



# 2021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요약)

2021. 12.



경상남도  
디지털정책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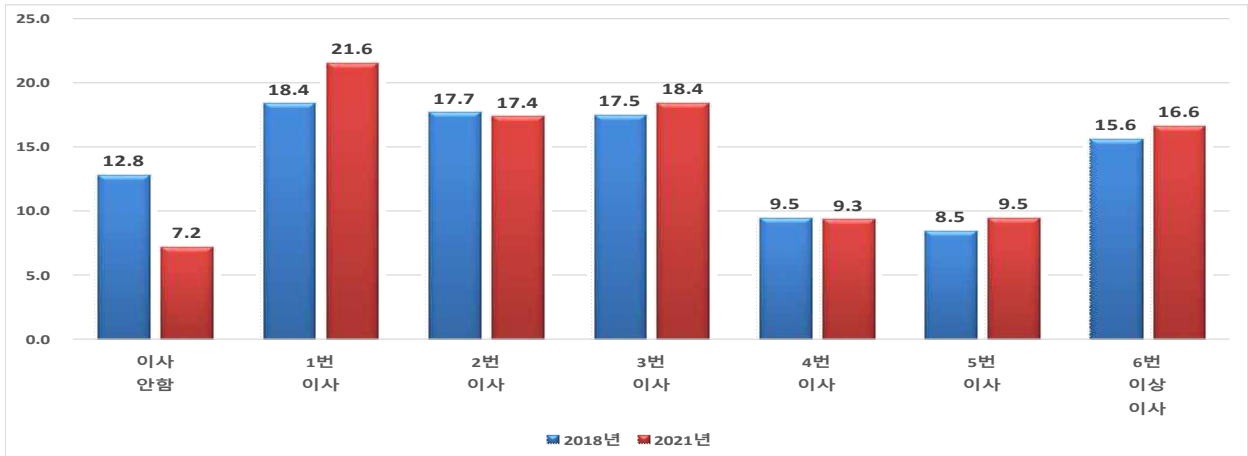
# 목 차

<b>I. 주거교통</b> .....	<b>1</b>
1.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횟수 .....	1
2. 지역 거주기간 .....	1
3. 향후 정주의사 .....	2
4. 주거환경 만족도 .....	2
5.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 .....	3
6.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견해 .....	3
7. 통근·통학 지역,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	3
8. 교통수단 만족도 .....	4
9.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시 불만족 및 만족 이유 .....	5
10.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 .....	5
11. 지역 교통안전 해결 방안 .....	5
12. 보행만족도 .....	6
<b>II. 문화여가</b> .....	<b>7</b>
1.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7
2. 주말(공휴일)의 여가 활용 .....	7
3. 여가활동 만족도 .....	8
4.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	8
5.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 .....	9
6. 도내 관광 경험 및 개선점 .....	9
7. 타 지역민에게 경남 관광지 소개 .....	10
<b>III. 일자리노동</b> .....	<b>11</b>
1. 일자리 충분도 및 지역의 실업정도 .....	11
2. 지역의 고용전망 및 경제전망 .....	11
3. 일자리 만족도 .....	12
4.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	12
5.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	13
6.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	13
7. 청년 일자리 지원 분야 .....	14
8.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	14
9. 청년 일자리 확대 분야 .....	15
10. 노인 일자리 지원 분야 .....	15
<b>IV. 소득소비</b> .....	<b>16</b>
1.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16
2. 가구 월평균 소득 .....	16
3. 소득 만족도 및 장래 가구 소득에 대한 견해 .....	17
4.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	17
5. 소비생활 만족도 .....	18
6. 가구의 부채정도와 이유 .....	18
7. 노후대비 소득보장 .....	19
8. 삶에 대한 만족감 .....	19
<b>V. 교육</b> .....	<b>20</b>
1.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20
2. 교육환경 만족도 .....	21
<b>VI. 부가조사</b> .....	<b>22</b>
1. 청년인구 유출 및 유입 .....	22
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변화 .....	22
3. 코로나19로 인한 행동 변화 .....	23
<b>[참고] 조사개요</b> .....	<b>24</b>

# I. 주거교통

## 1.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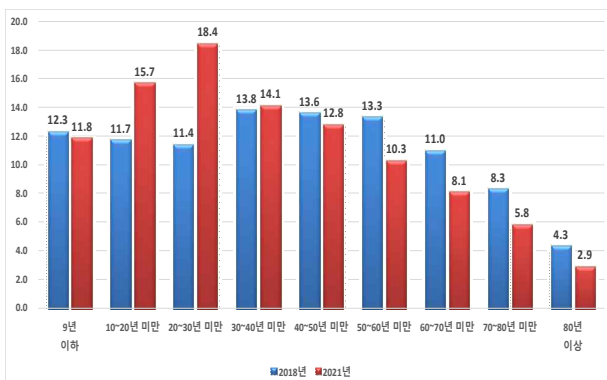
-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횟수는 '1번 이사'가 21.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3번 이사' 18.4%, '2번 이사' 17.4%, '6번 이상 이사'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 3.5번 이사)
- 2018년에 비해 '이사 안함'이 5.6%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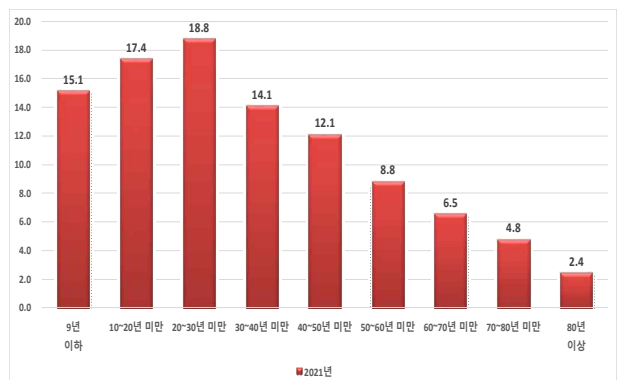
## 2. 지역 거주기간

- 경상남도 거주기간은 '20~30년 미만'이 18.4%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10~20년 미만' 15.7%, '30~40년 미만'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35.0년으로 나타남
- 경남도내 시군 거주기간은 '20~30년 미만'이 18.8%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10~20년 미만' 17.4%, '30~40년 미만'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32.1년으로 나타남

<경상남도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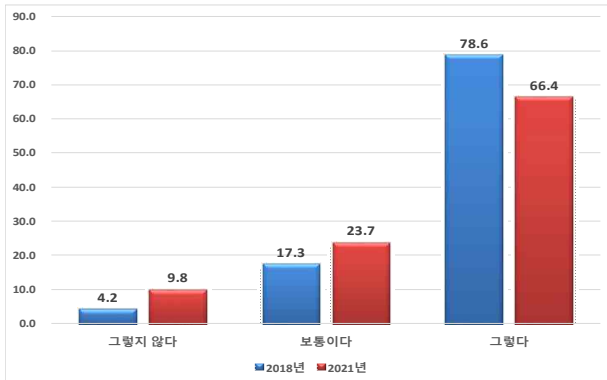
<경남도내 시군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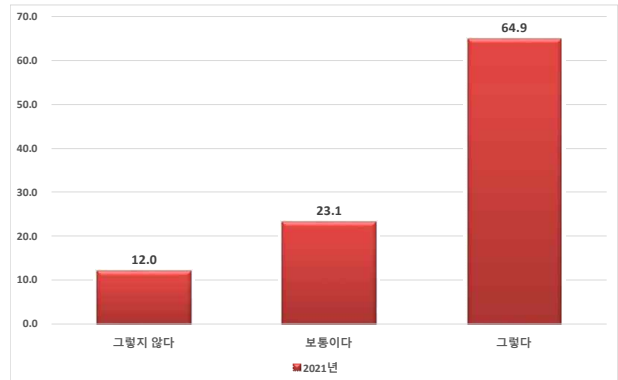
### 3. 향후 정주의사

- 경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렇다'가 66.4%, '보통이다' 23.7%, '그렇지 않다' 9.8%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그렇다'가 12.2%p 감소함
- 현재 시군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렇다'가 64.9%, '보통이다' 23.1%, '그렇지 않다' 12.0% 순으로 나타남

<경남에 계속 거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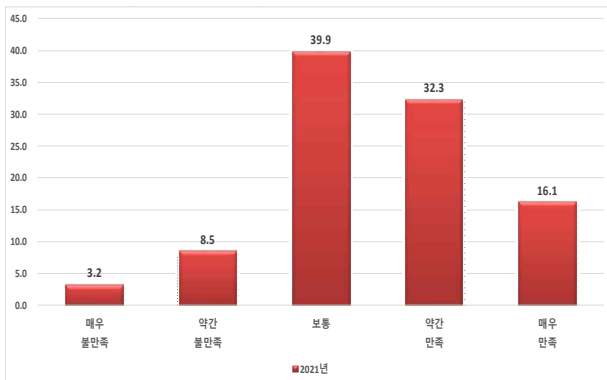
<현재 시군에 계속 거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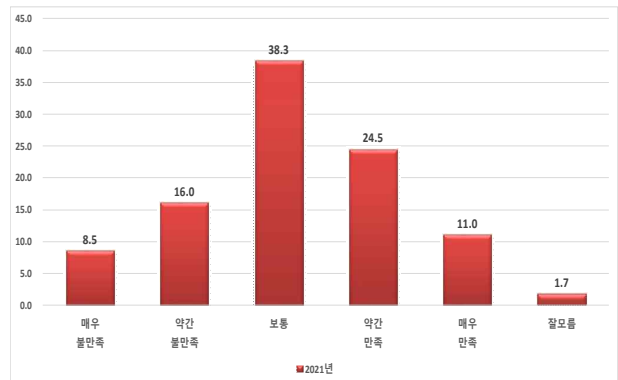
### 4. 주거환경 만족도

- 주거환경 만족도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은 '만족'이 48.4%로 나타났고,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은 '만족'이 35.5%, 주택의 경우 '만족'이 47.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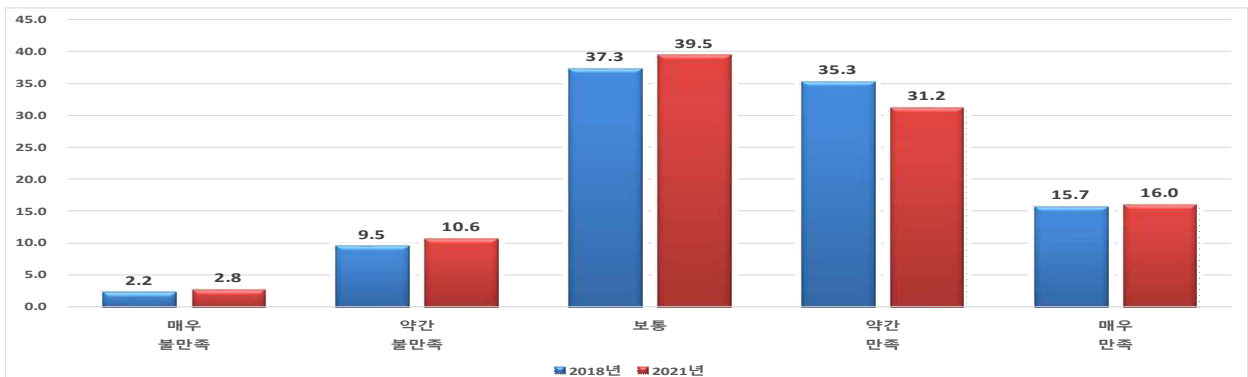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만족도>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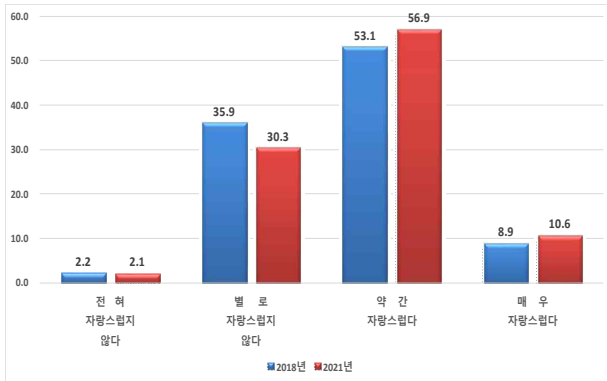
<주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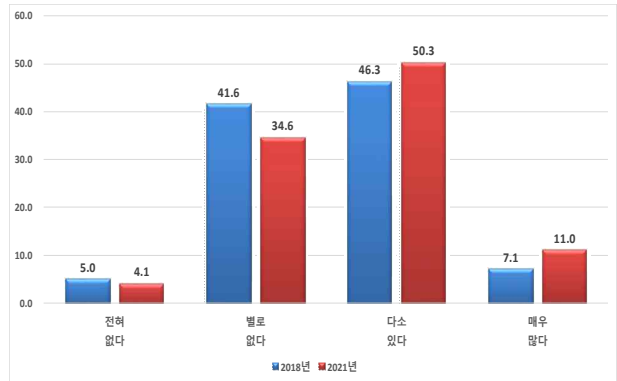
## 5.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

- 경상남도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자랑스럽다'가 67.5%, '자랑스럽지 않다' 32.4%로 나타났고, 2018년에 비해 '자랑스럽다'가 5.5%p 상승함
- 현재 살고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은 '많다'가 61.3%, '없다' 38.7%로 나타났고, 2018년에 비해 '많다'가 7.9%p 상승함

<경상남도 도민으로서의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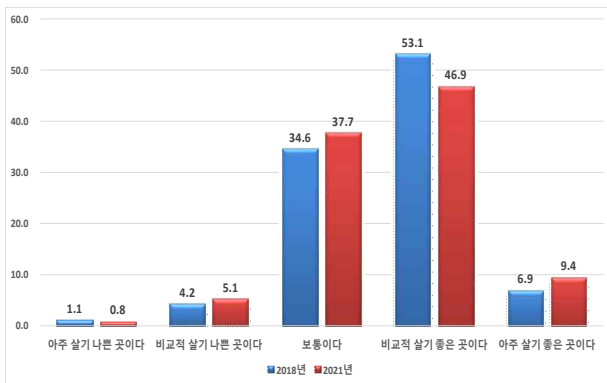
<현재 살고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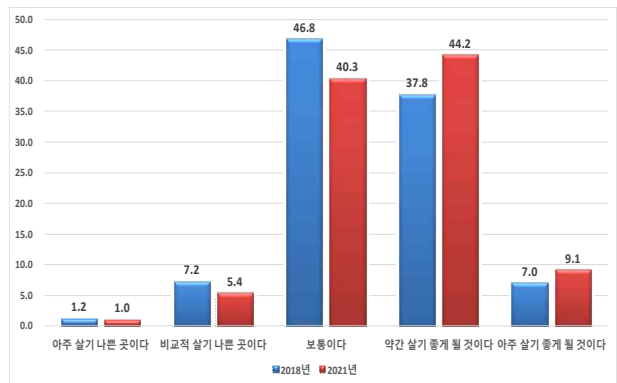
## 6.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견해

-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는 '살기 좋은 곳이다' 56.3%로 나타났고, 2018년에 비해 3.7%p 감소함
- 향후 1~2년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은 '살기 좋게 될 것이다' 53.3%로 나타났고, 2018년에 비해 8.5%p 증가함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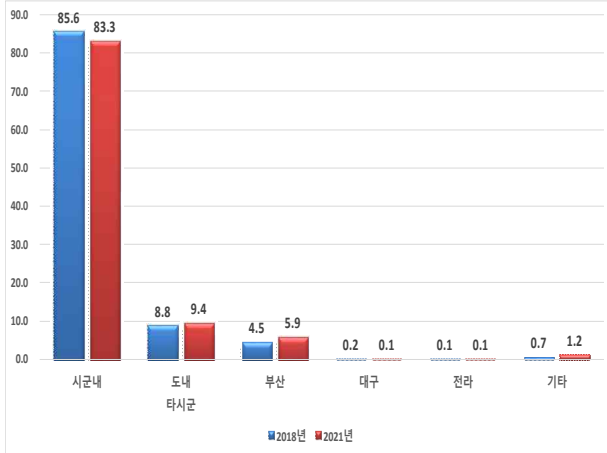
<향후 1~2년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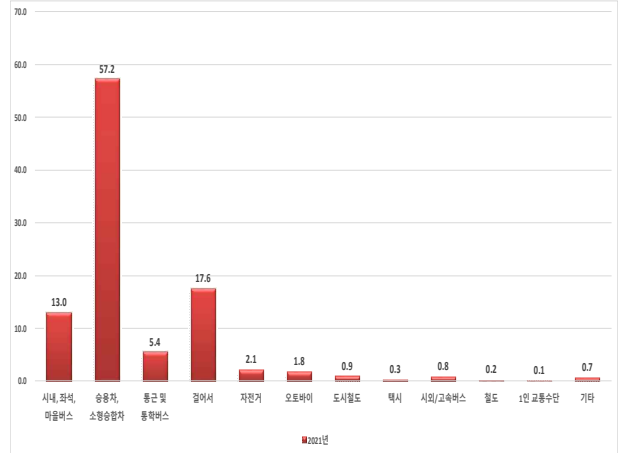
## 7. 통근·통학 지역,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 통근·통학을 하는 사람은 62.0%(2018년 65.4%)로 나타났고, 평균소요시간은 23.0분(2018년 23.8분)으로 나타남
- 통근·통학 지역은 '시군내'가 83.3%, '도내 타시군' 9.4%, 부산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통근·통학 교통수단은 '승용차, 소형승합차' 57.2%, '걸어서' 17.6%, '시내, 좌석, 마을 버스'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통근통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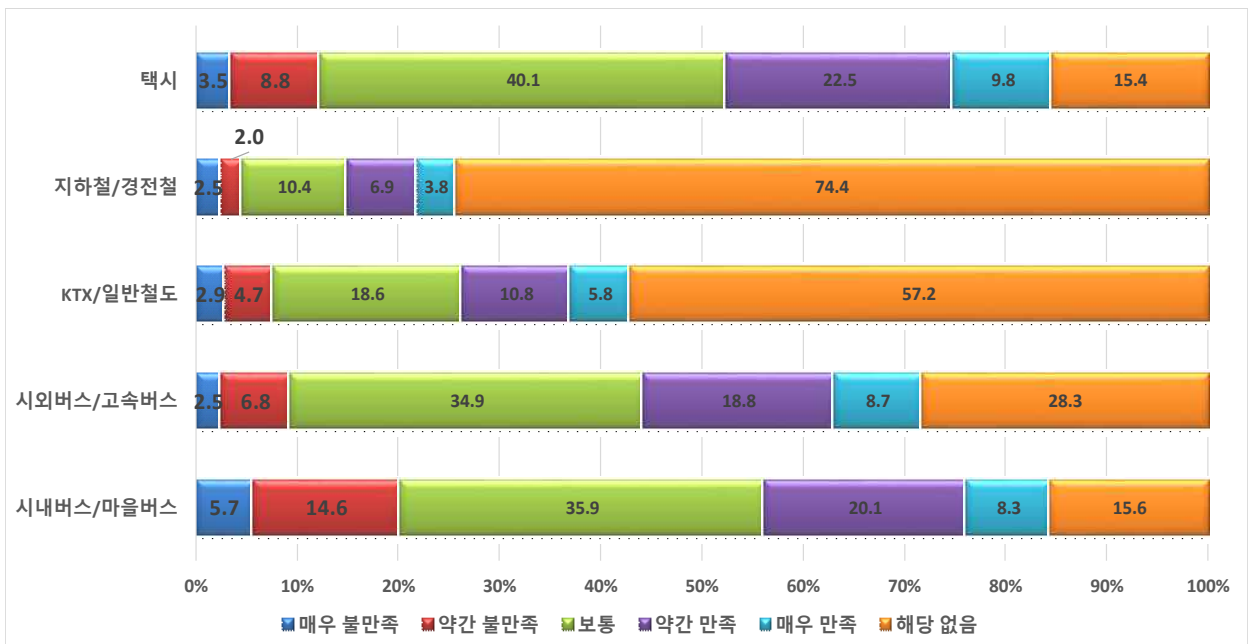


<통근통학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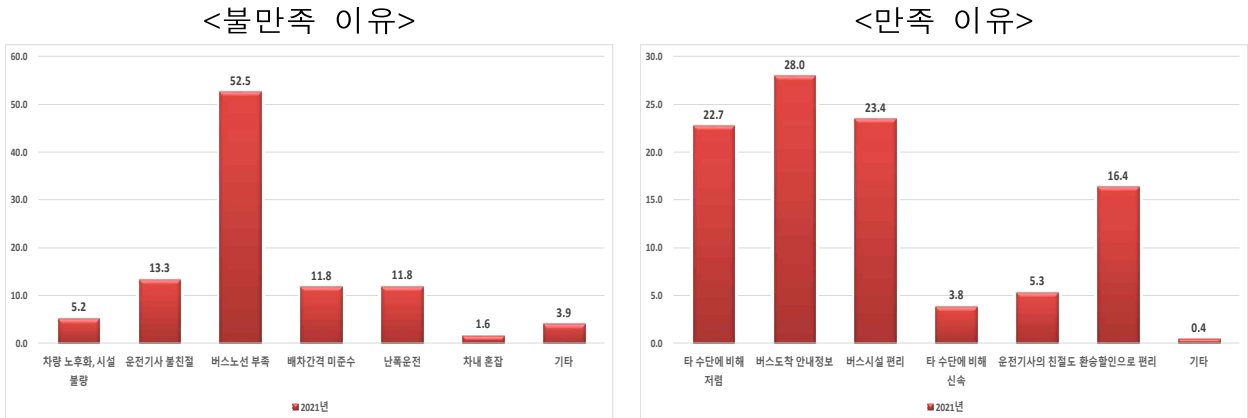
## 8. 교통수단 만족도

- 택시는 '만족' 32.3%, '보통' 40.1%, '불만족' 12.3%, '해당없음' 15.4%로 나타남
- 지하철/경전철은 '만족' 10.7%, '보통' 10.4%, '불만족' 4.5%, '해당없음' 74.4%로 나타남
- KTX/일반철도는 '만족' 16.6%, '보통' 18.6%, '불만족' 7.6%, '해당없음' 57.2%로 나타남
- 시외버스/고속버스는 '만족' 27.5%, '보통' 34.9%, '불만족' 9.3%, '해당없음' 28.3%로 나타남
- 시내버스/마을버스는 '만족' 28.3%, '보통' 35.9%, '불만족' 20.3%, '해당없음' 15.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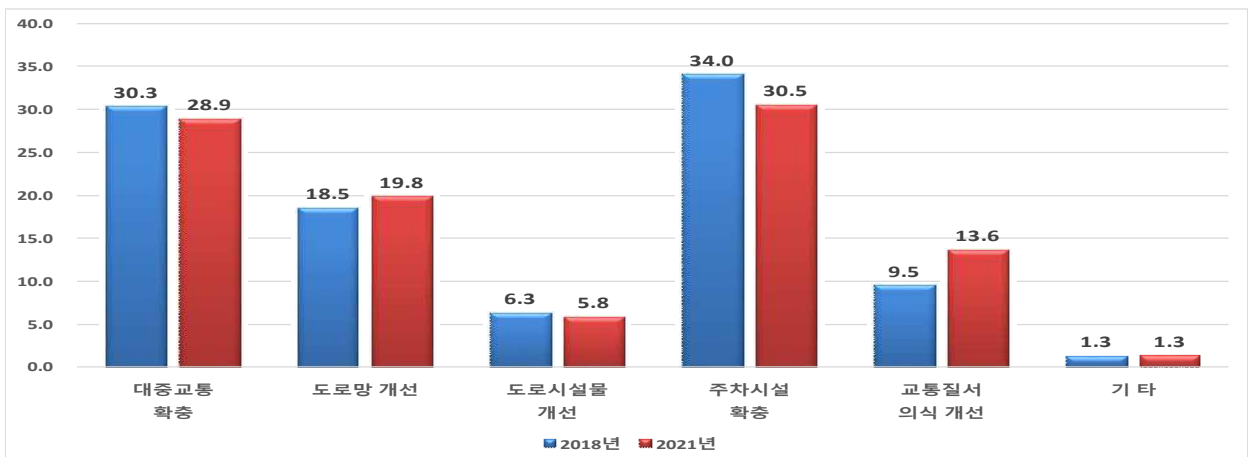
## 9.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시 불만족 및 만족 이유

-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시 불만족 이유는 '버스노선 부족'이 52.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전기사 불친절' 13.3%, '배차간격 미준수' 11.8%, '난폭운전'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시 만족 이유는 '버스도착 안내정보'가 28.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버스시설 편리' 23.4%, '타 수단에 비해 저렴' 22.7%, '환승할인으로 편리'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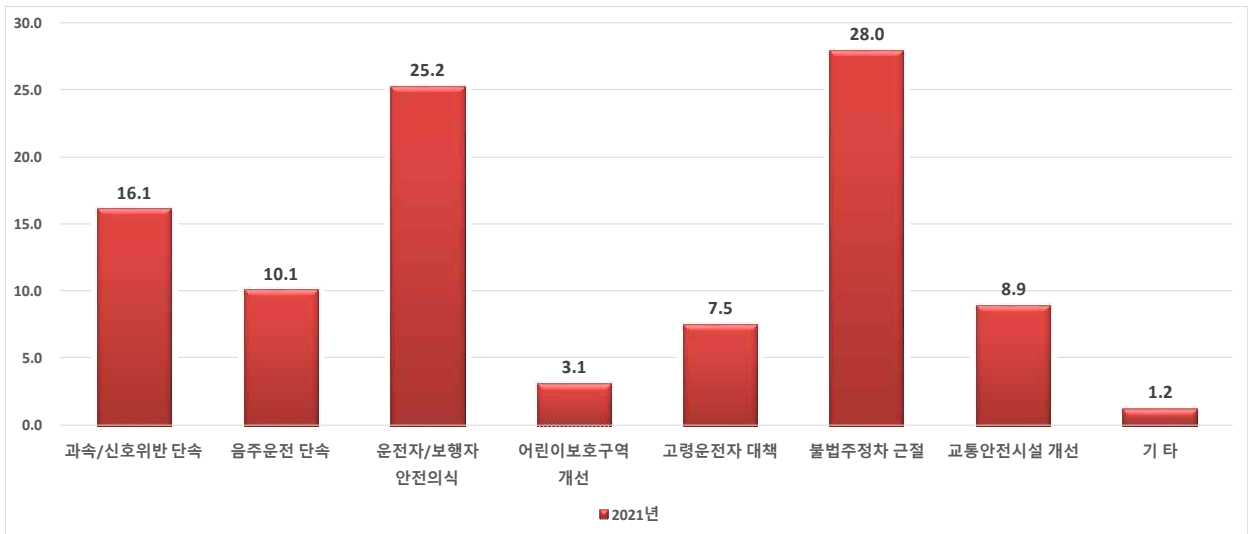
## 10.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

-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주차시설 확충'이 30.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확충' 28.9%, '도로망 개선'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질서 의식 개선'은 2018년에 비해 4.1%p 증가함



## 11. 지역 교통안전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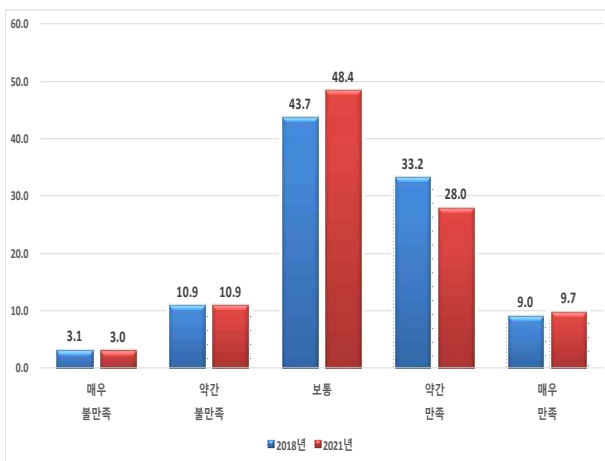
- 지역 교통안전 해결 방안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이 28.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전자/보행자 안전의식' 25.2%, '과속/신호위반 단속' 16.1%, '음주운전 단속'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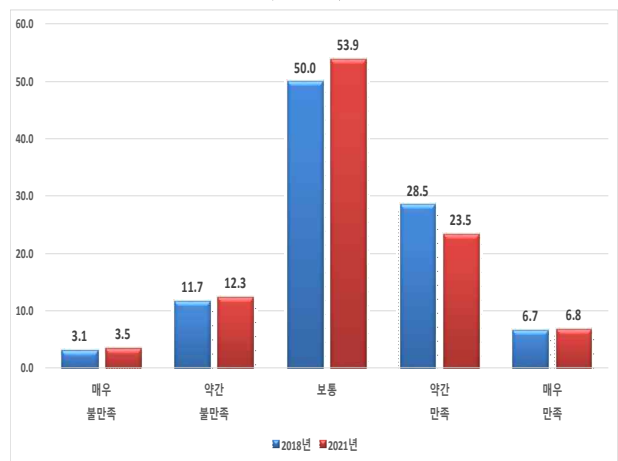
## 12. 보행만족도

- 주거지역 인근 보행만족도는 '만족'이 37.7%, '보통' 48.4%, '불만족' 13.9%로 나타났으며, '만족'의 경우 2018년에 비해 4.5%p 감소함
- 시내(읍내) 지역 보행만족도는 '만족'이 30.3%, '보통' 53.9%, '불만족' 15.8%로 나타났으며, '만족'의 경우 2018년에 비해 4.9%p 감소함

<주거지역 인근>



<시내(읍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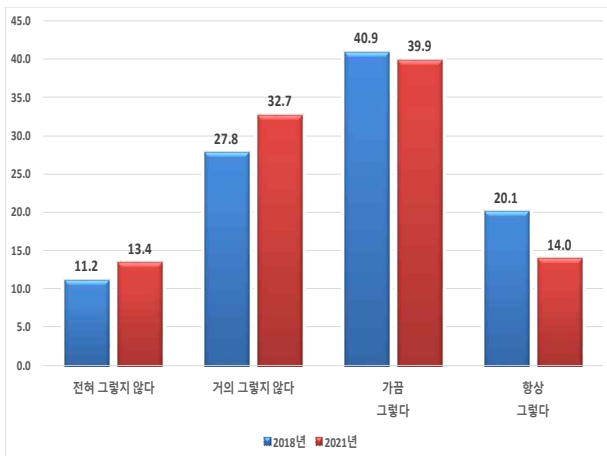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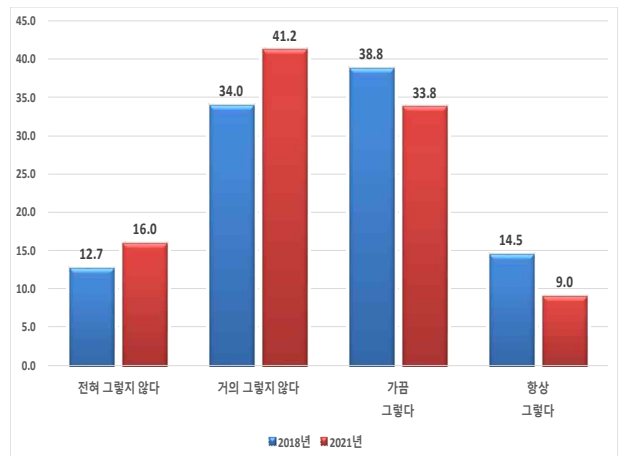
### 1.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평일에 시간이 부족한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53.9%, ‘그렇지 않다’ 46.1%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는 2018년에 비해 7.1%p 증가함
- 주말에 시간이 부족한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42.8%, ‘그렇지 않다’ 57.2%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는 2018년에 비해 10.5%p 증가함

<평일 시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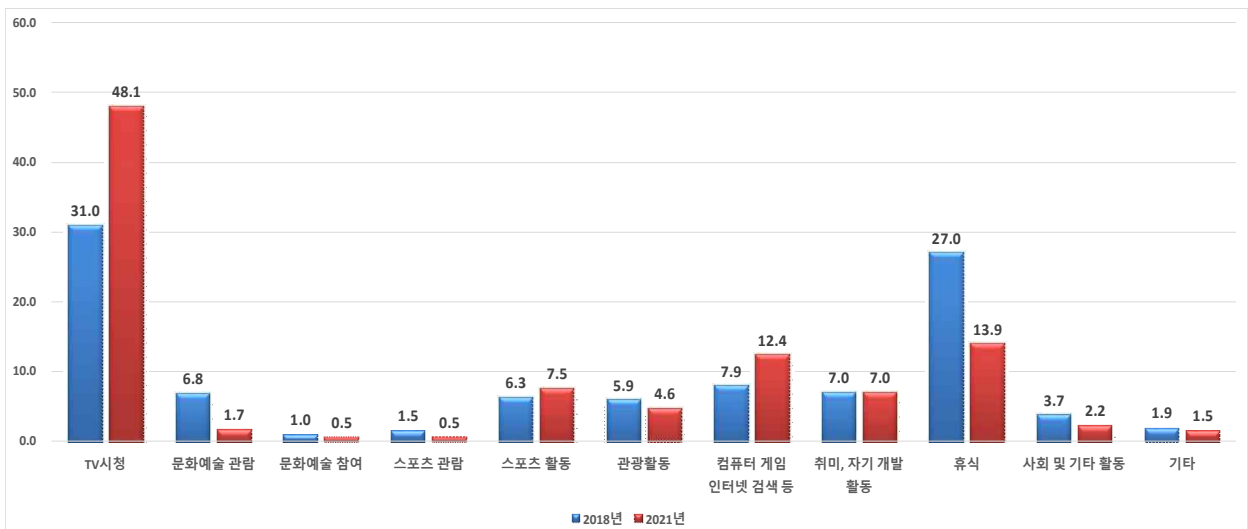


<주말 시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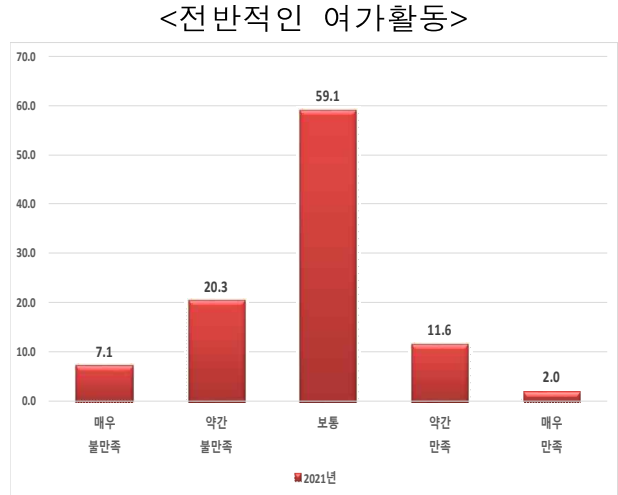
### 2. 주말(공휴일)의 여가 활용

- 주말(공휴일)의 여가시간을 48.1%가 ‘TV 시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휴식’ 13.9%,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 등’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휴식’이(13.1%p) 가장 크게 감소함
  - 2018년에 비해 ‘TV 시청’이(17.1%p) 가장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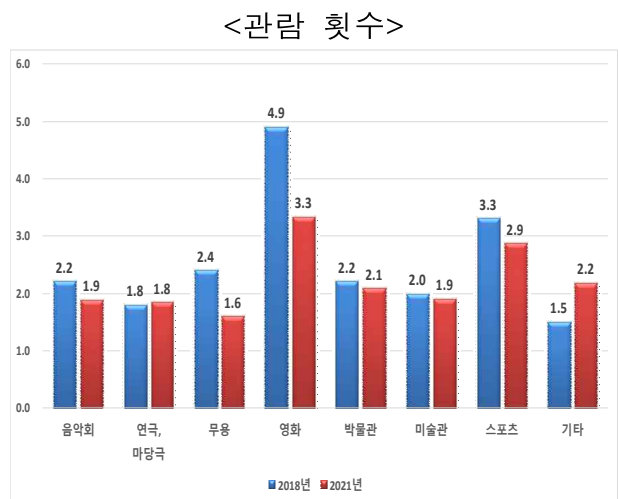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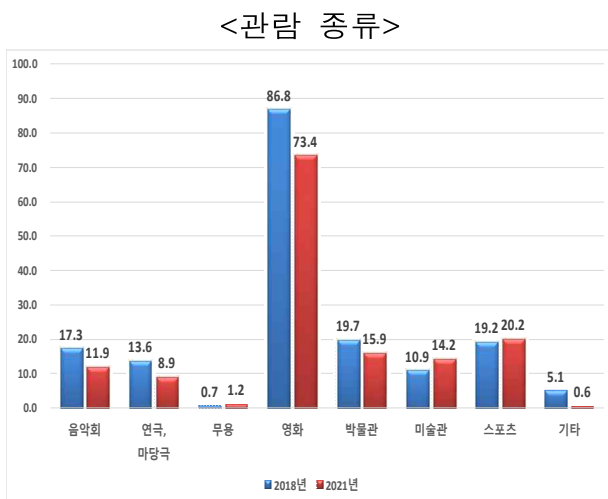
### 3. 여가활동 만족도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는 '만족'이 13.9%, '보통' 55.6%, '불만족' 30.5%로 나타남
-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는 '만족'이 13.6%, '보통' 59.1%, '불만족' 27.4%로 나타남



### 4.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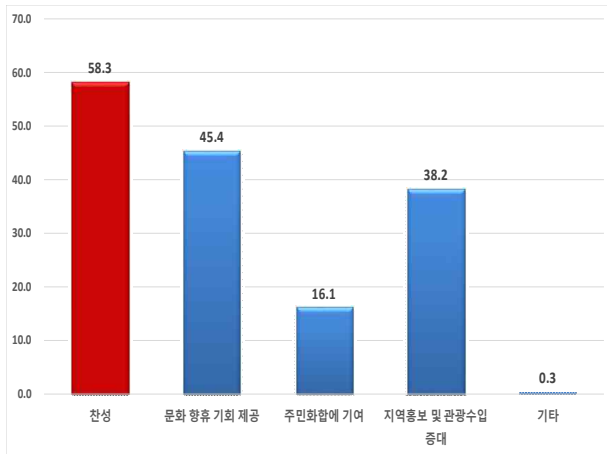
-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8%(2018년 56.7%)로 나타났고, 관람의 종류는 '영화'가 7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포츠' 20.2%, '박물관' 15.9%, '미술관'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체육·행사 평균 관람 횟수는 4.1회(2018년 4.4회)로 나타났고, 종류별로는 '영화'가 3.3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포츠' 2.9회, '박물관' 2.1회, '미술관' 1.9회, '음악회' 1.9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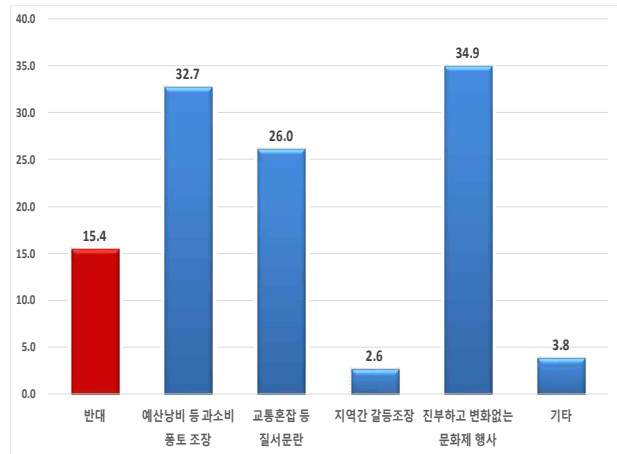
## 5.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

- 지역문화제 개최에 '찬성'하는 사람은 58.3%로 나타났고, 찬성하는 이유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이 45.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 38.2%, '주민화합에 기여'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제 개최에 '반대'하는 사람은 15.4%로 나타났고, 반대하는 이유는 '진부하고 변화없는 문화제 행사'가 34.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산낭비 등 과소비 풍토 조장' 32.7%, '교통혼잡 등 질서문란' 2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찬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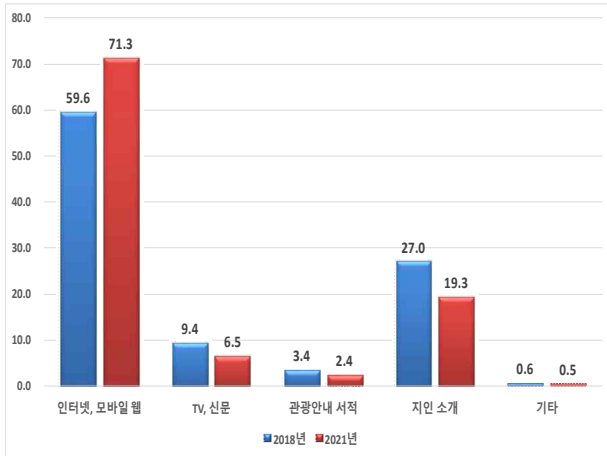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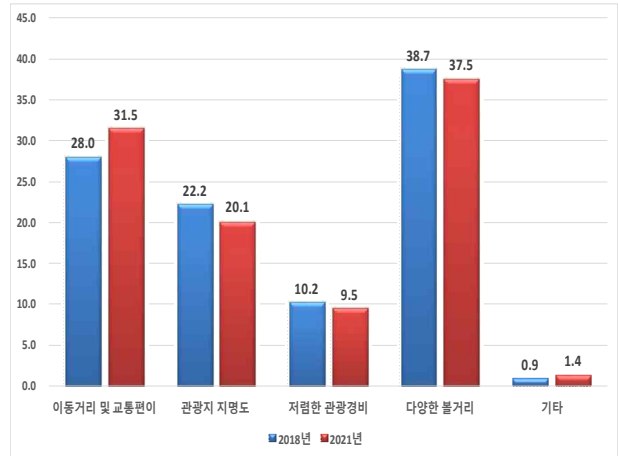
## 6. 도내 관광 경험 및 개선점

- 경남 도내 관광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6.8%(2018년 55.7%)로 나타남
- 관광지 정보 취득 경로는 '인터넷, 모바일 웹'이 7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인 소개' 19.3%, 'TV, 신문' 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인터넷, 모바일 웹'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인 소개'가 크게 감소함
- 관광지 선택 이유로는 '다양한 볼거리'가 37.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이동거리 및 교통편이' 31.5%, '관광지 지명도' 2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관광지 개선점으로는 '다양한 채널의 관광정보 제공'이 34.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음식점 위생 개선 및 맛집 발굴 안내' 23.3%, '바가지 요금 근절' 20.6%, '숙박시설의 개선 및 확충'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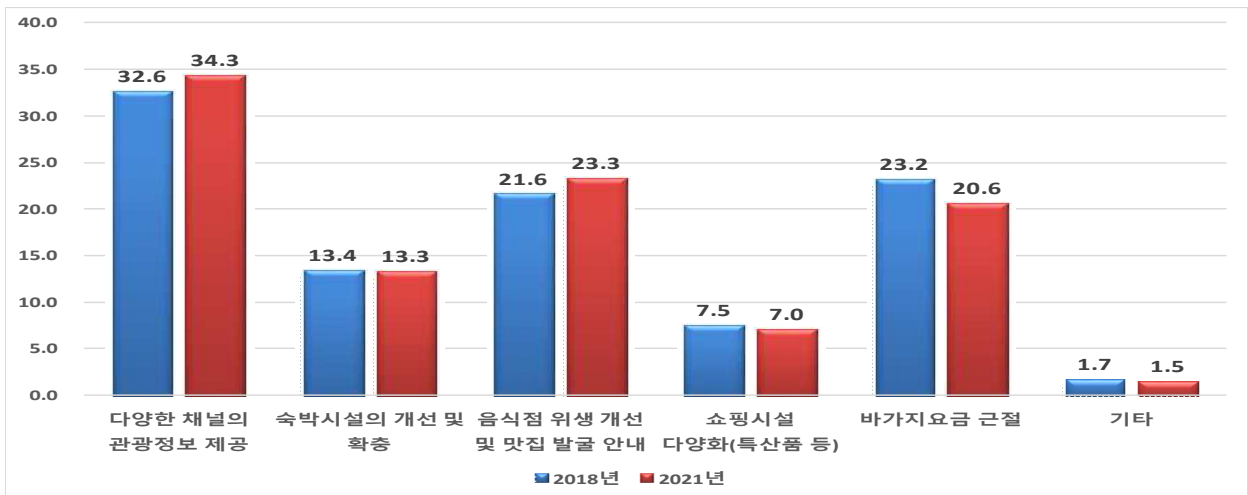
<관광지 정보 취득 경로>



<관광지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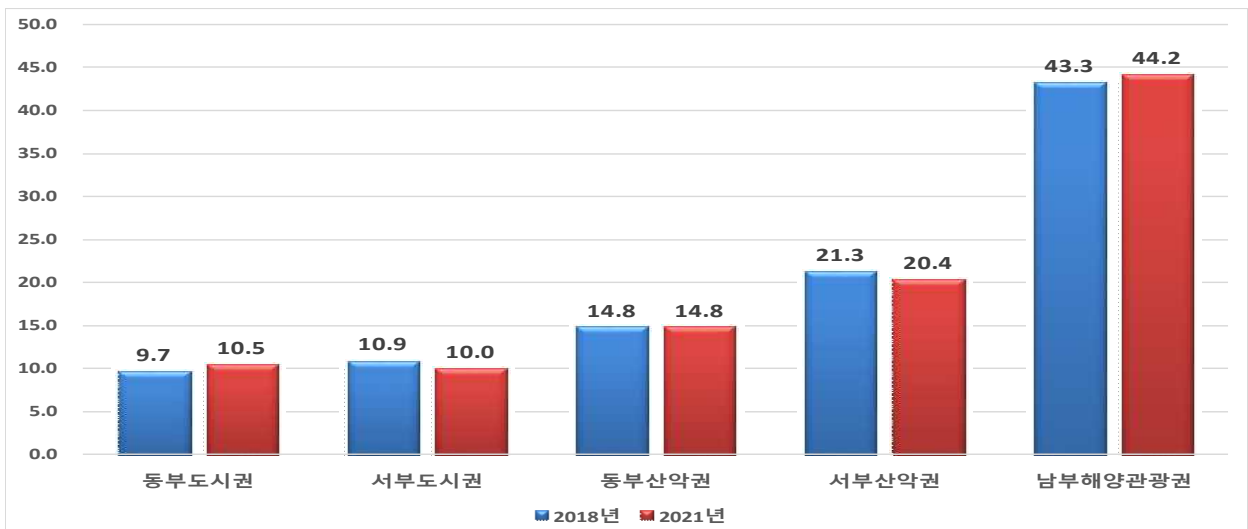


<관광지 개선점>



## 7. 타 지역민에게 경남 관광지 소개

○ 타 지역민에게 소개하고 싶은 경남의 관광지는 '남부해양관광권'이 44.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서부산악권; 20.4%, '동부산악권' 14.8%, '동부도시권' 10.5%, '서부도시권' 10.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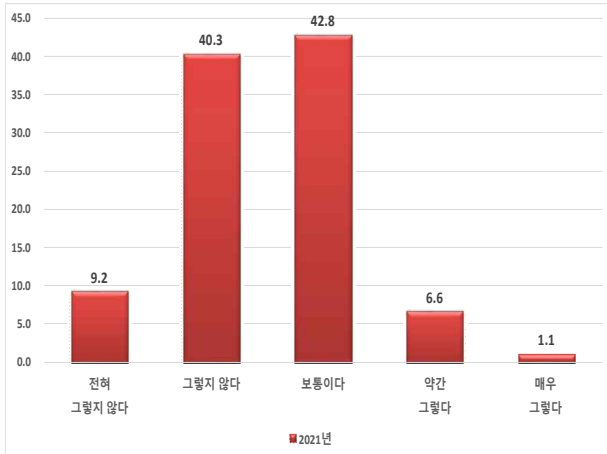


### III. 일자리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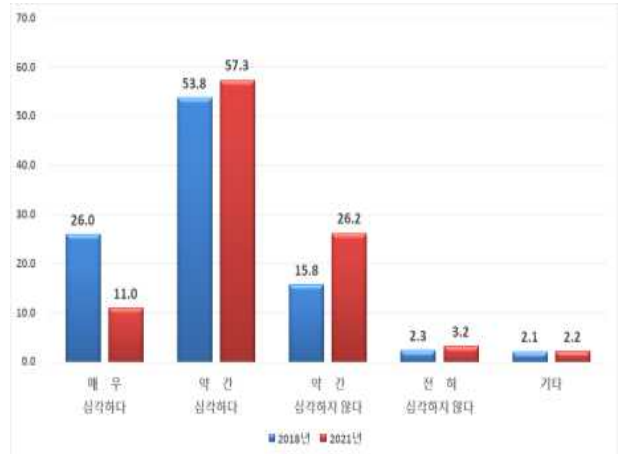
#### 1. 일자리 충분도 및 지역의 실업정도

- 일자리 기회의 충분도는 '그렇다'가 7.7%, '그렇지 않다' 49.5%로 나타남
- 지역의 실업정도는 '심각하다'가 68.3%, '심각하지 않다' 29.4%, '기타' 2.2%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심각하다'의 응답이 11.4%p 감소함

<일자리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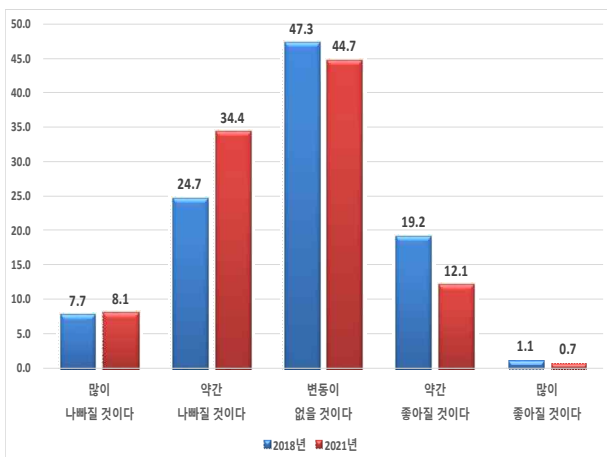
<지역의 실업정도>



#### 2. 지역의 고용전망 및 경제전망

- 지역의 고용전망은 '나빠질 것이다'가 42.5%, '좋아질 것이다' 12.8%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나빠질 것이다'는 10.0%p 증가했고, '좋아질 것이다'는 7.5%p 감소함
- 지역의 경제전망은 '나빠질 것이다'가 41.4%, '좋아질 것이다' 14.7%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나빠질 것이다'는 8.3%p 증가했고, '좋아질 것이다'는 6.2%p 감소함

<지역의 고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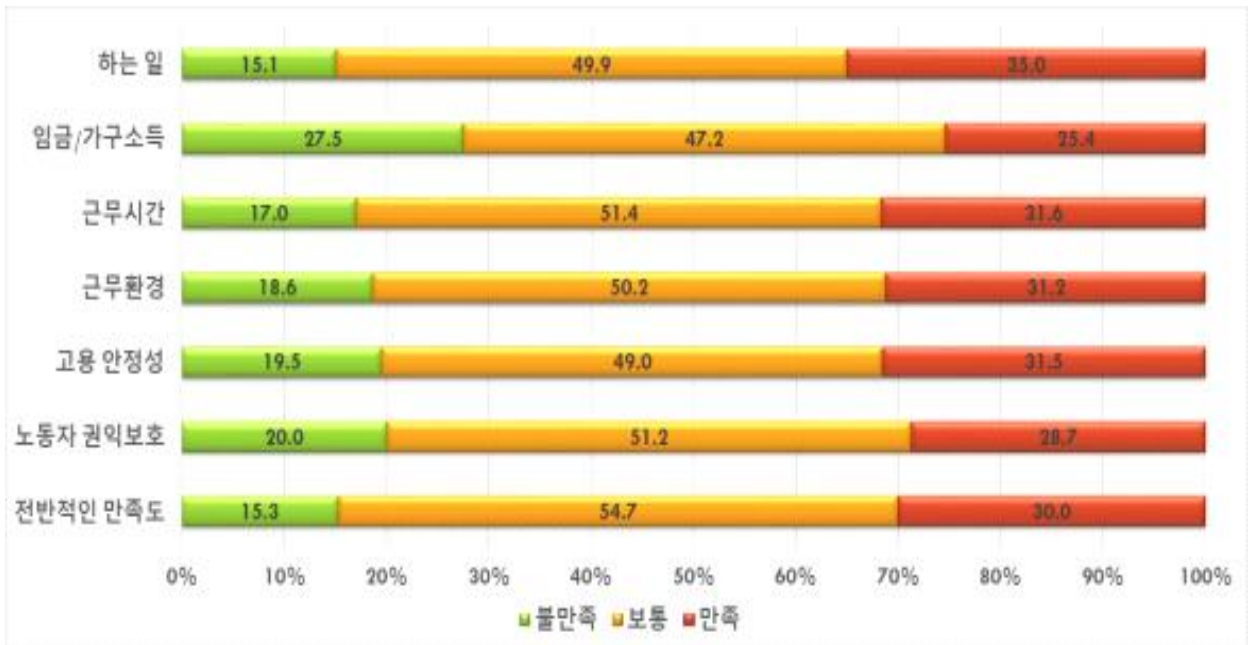


<지역의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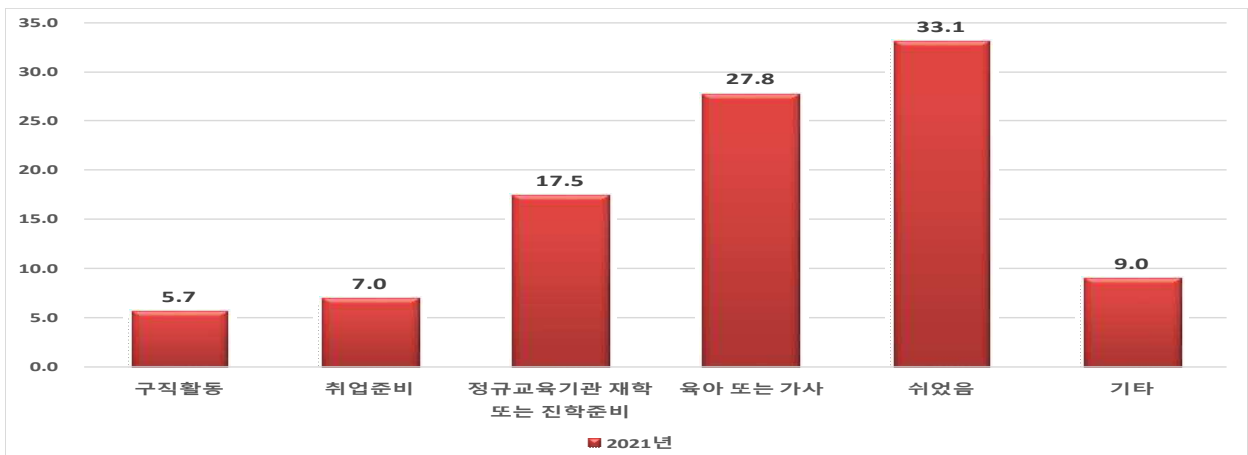
### 3. 일자리 만족도

- 하는 일은 '만족' 35.0%, '보통' 49.9%, '불만족' 15.1%로 나타남
- 임금·소득은 '만족' 25.4%, '보통' 47.2%, '불만족' 27.5%로 나타남
- 근로시간은 '만족' 31.6%, '보통' 51.4%, '불만족' 17.0%로 나타남
- 근무환경은 '만족' 31.2%, '보통' 50.2%, '불만족' 18.6%로 나타남
- 고용 안정성은 '만족' 31.5%, '보통' 49.0%, '불만족' 19.5%로 나타남
- 노동자 권익보호는 '만족' 28.7%, '보통' 51.2%, '불만족' 20.0%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 30.0%, '보통' 54.7%, '불만족' 15.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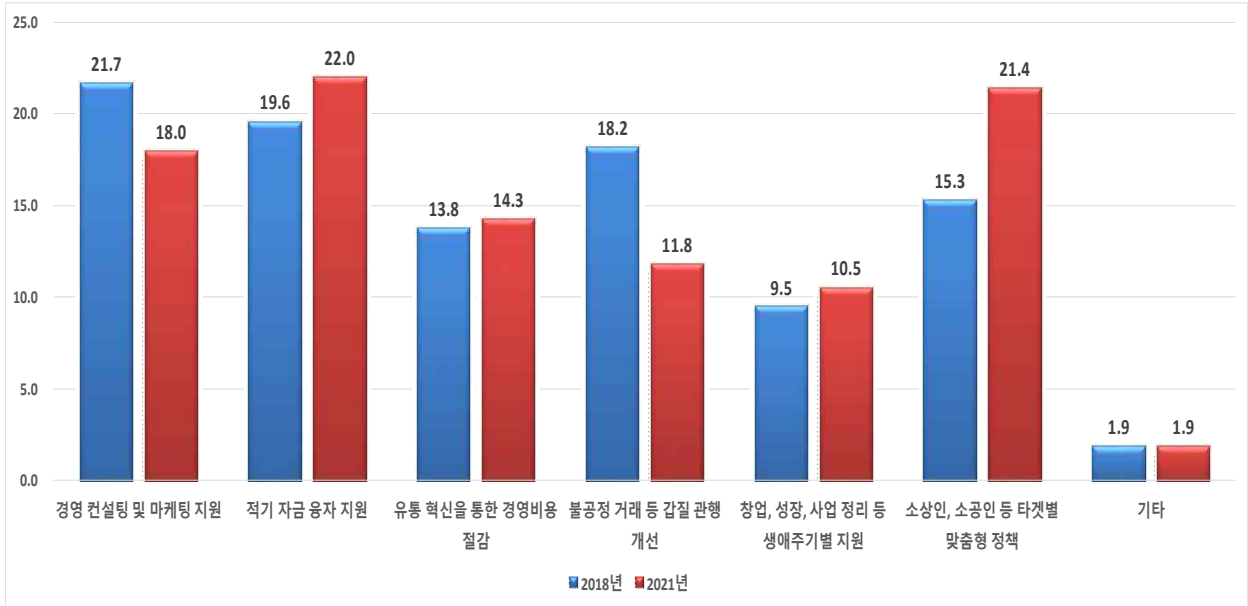
### 4.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일하지 않은 사람은 40.2%로 나타났고, 일하지 않은 이유로는 '쉬었음'이 33.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아 또는 가사' 27.8%,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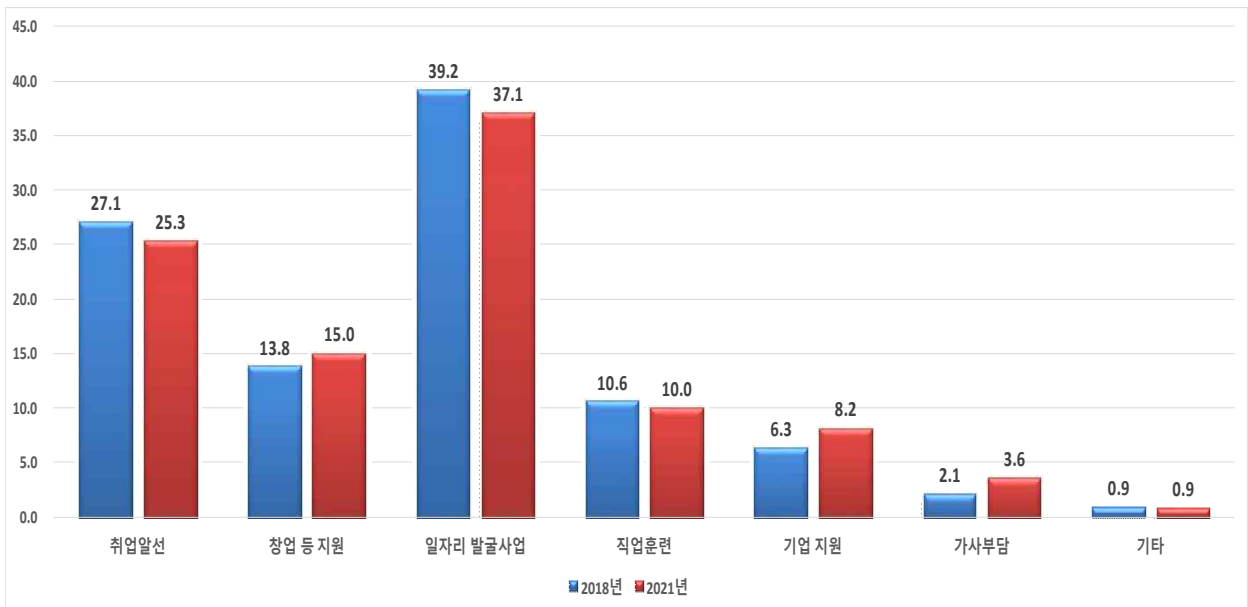
## 5.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우선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적기 자금 융자 지원'이 22.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상인, 소공인 등 타겟별 맞춤형 정책' 21.4%,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18.0%, '유통 혁신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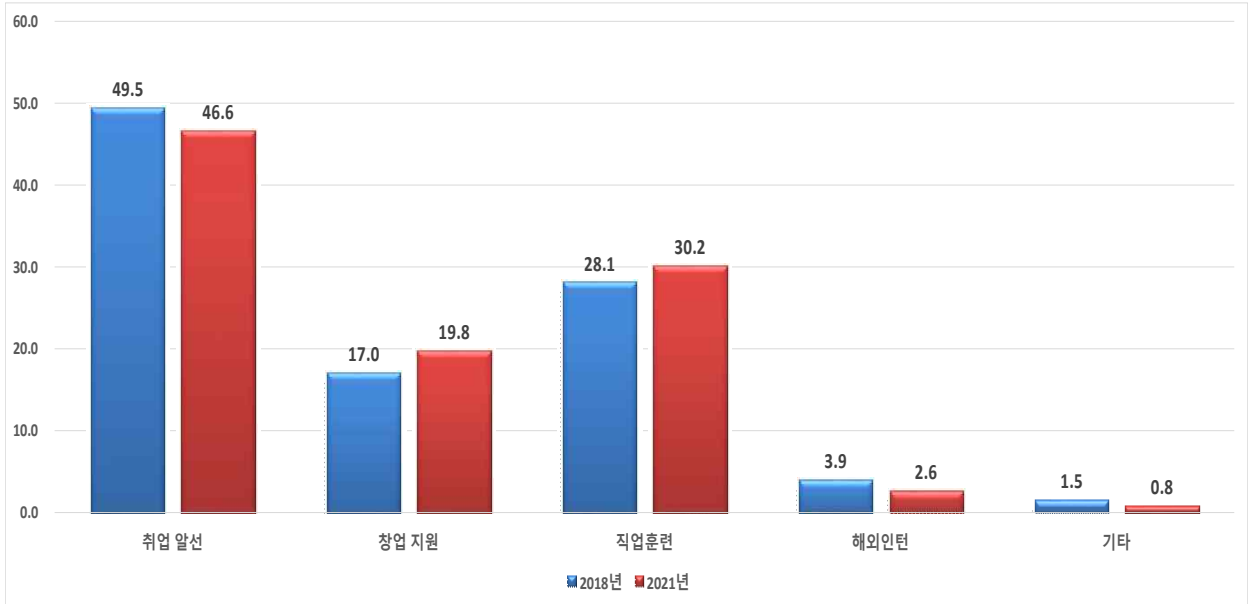
## 6.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일자리 발굴사업'이 37.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업알선' 25.3%, '창업 등 지원' 15.0%, '직업훈련'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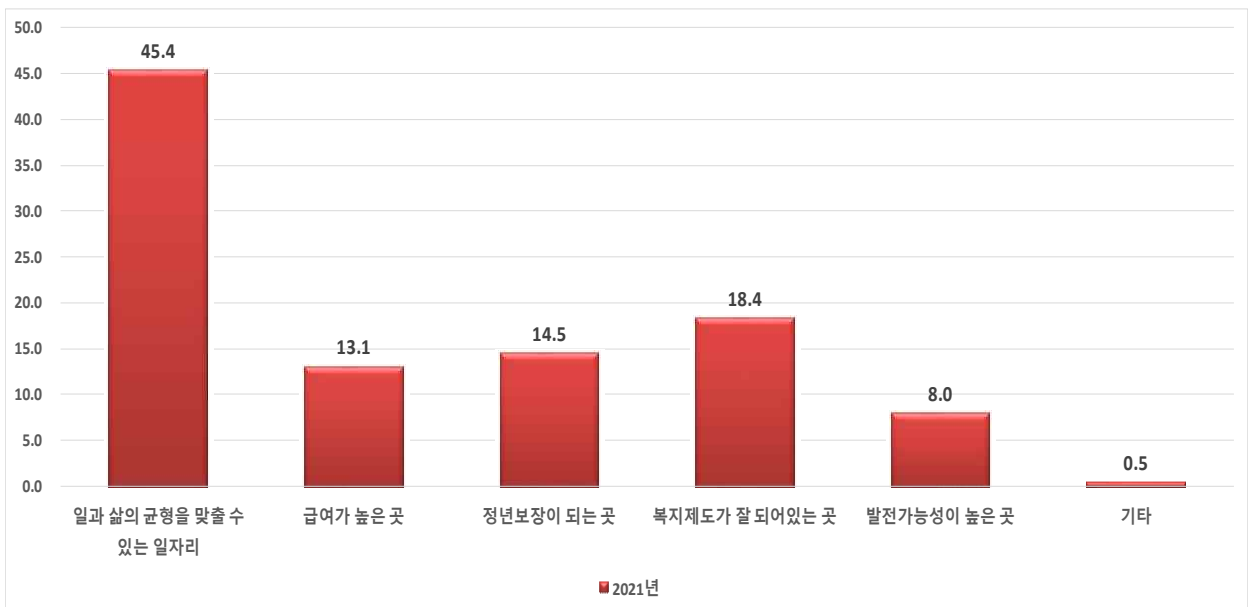
## 7. 청년 일자리 지원 분야

-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우선 확대해야할 분야로는 '취업알선'이 4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업훈련' 30.2%, '창업 지원'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8.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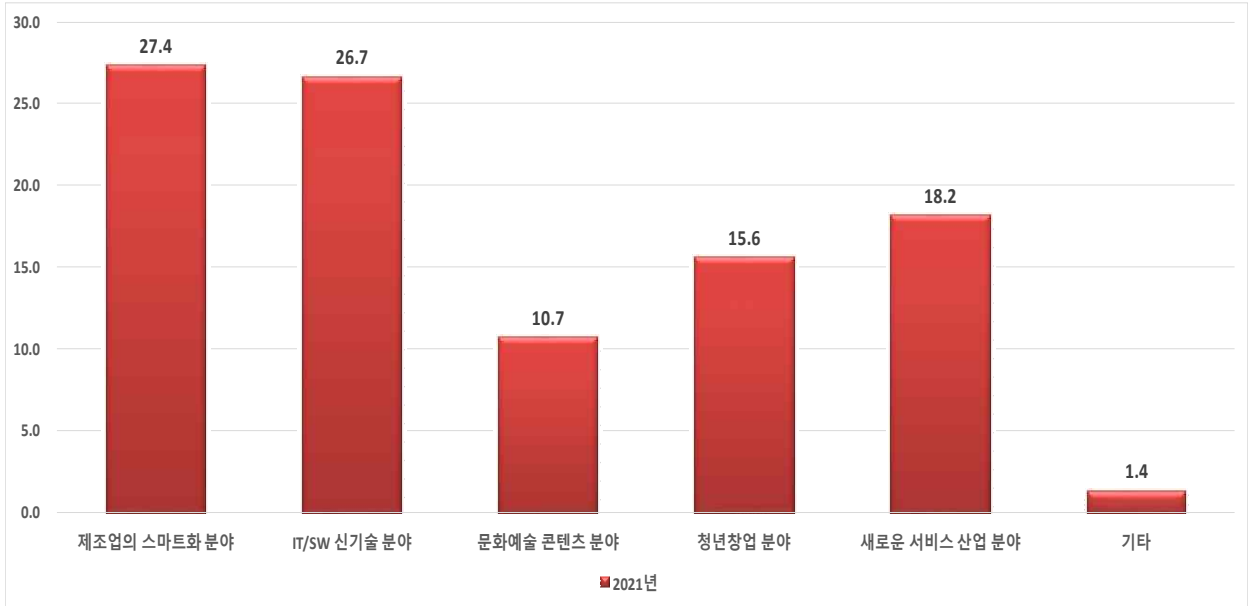
- 좋은 일자리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가 45.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 18.4%, '정년보장이 되는 곳' 14.5%, '급여가 높은 곳' 13.1%,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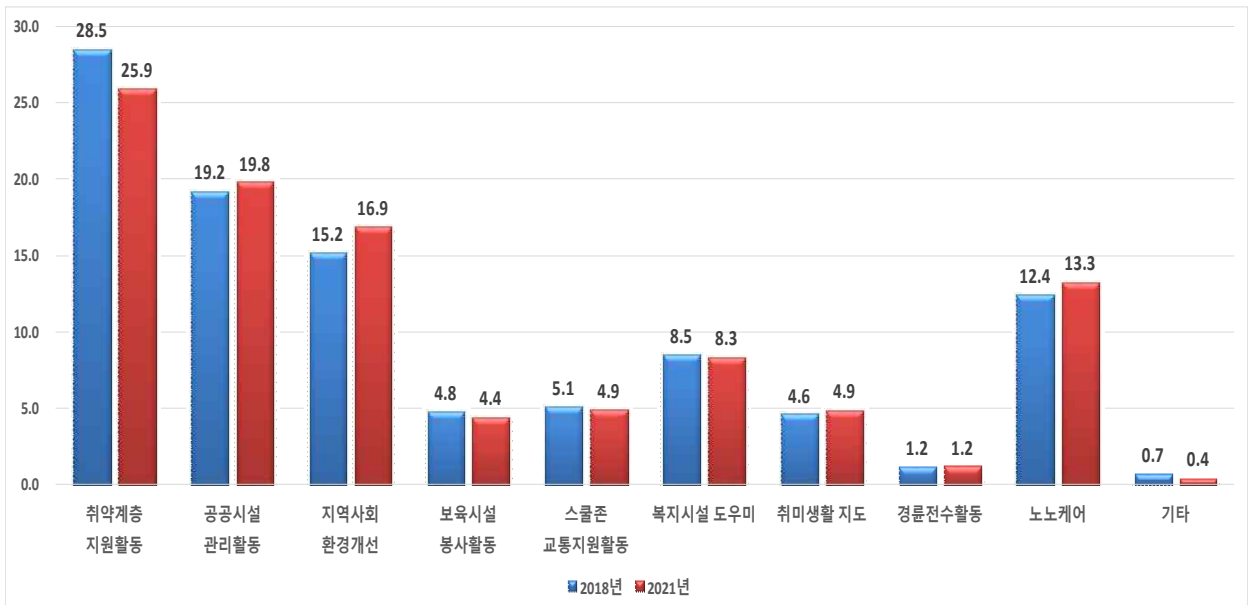
## 9. 청년 일자리 확대 분야

- 청년 일자리 확대해야 할 분야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분야'가 27.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IT/SW 신기술 분야' 26.7%, '새로운 서비스 산업 분야' 18.2%, '청년창업 분야' 15.6%,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 노인 일자리 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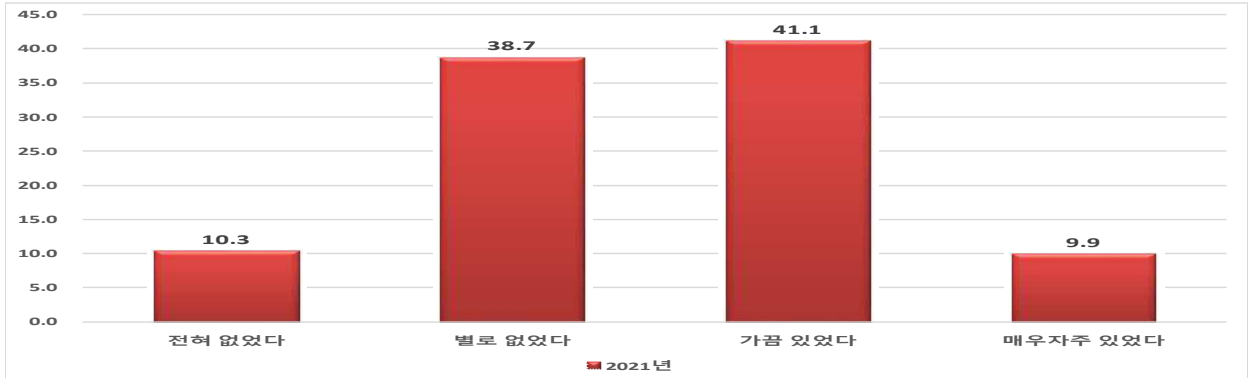
-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우선 확대해야 할 분야로는 '취약계층 지원활동'이 25.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공시설 관리활동' 19.8%, '지역사회 환경개선' 16.9%, '노노케어'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IV. 소득소비

### 1.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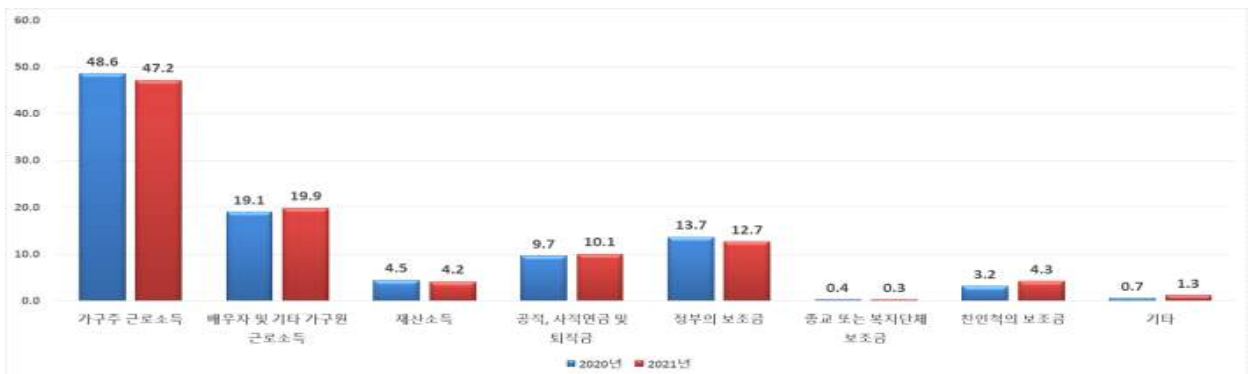
- 생계를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가 51.0%, '없었다'가 49.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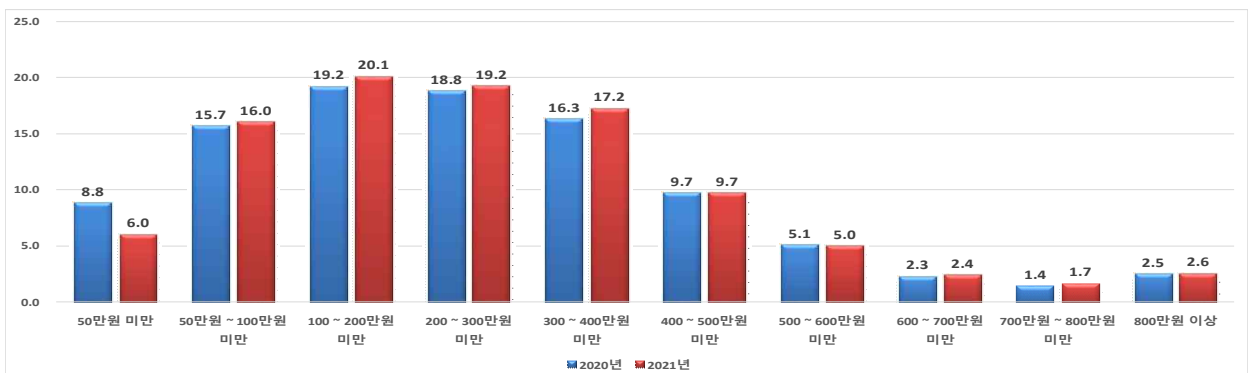
### 2. 가구 월평균 소득

-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가구주 근로소득'이 4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19.9%, '정부의 보조금'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100~300만원 미만'(39.3%)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22.0%로 나타남

<가구의 주된 소득원>



<월 평균 가구 총소득>



### 3. 소득 만족도 및 장래 가구 소득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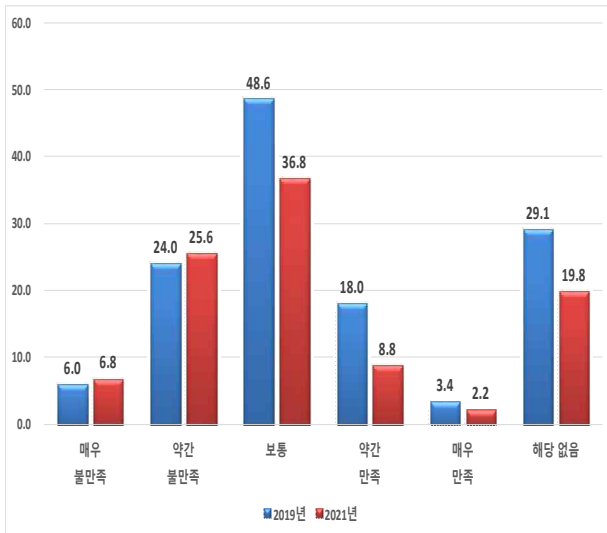
○ 소득 만족도는 '만족'이 11.0%, '불만족'이 32.4%로 나타남

- 2019년에 비해 '만족'이 10.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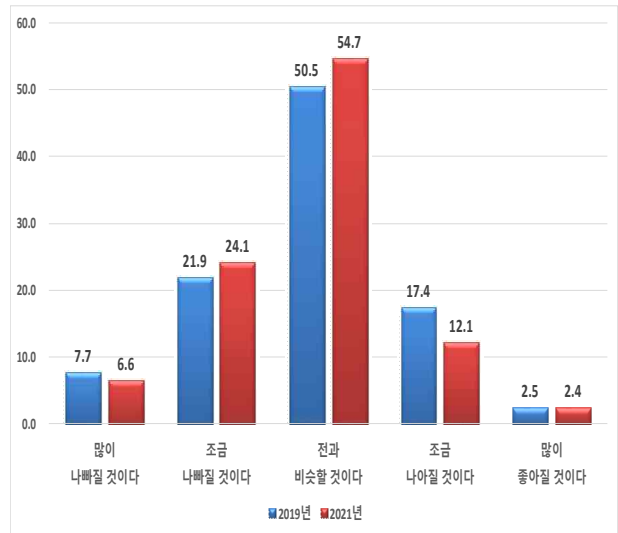
○ 장래 가구 소득에 대한 견해는 '좋아질 것이다'가 14.5%, '나빠질 것이다'가 30.7%로 나타남

- 2019년에 비해 '좋아질 것이다'가 5.3%p 감소함

<소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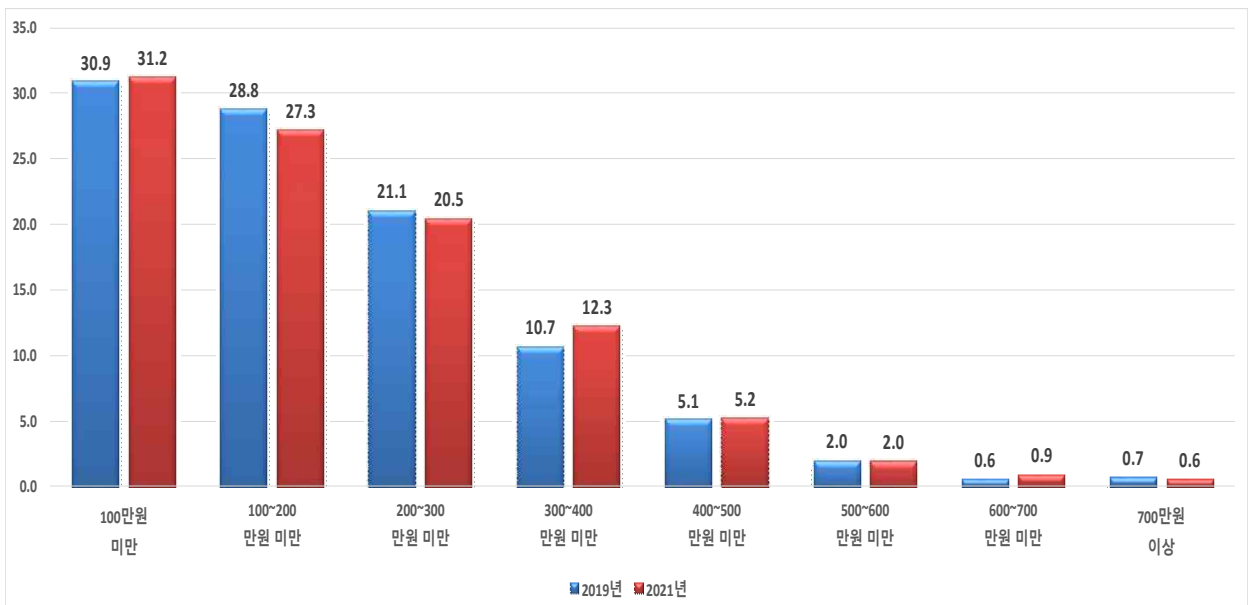


<장래 가구 소득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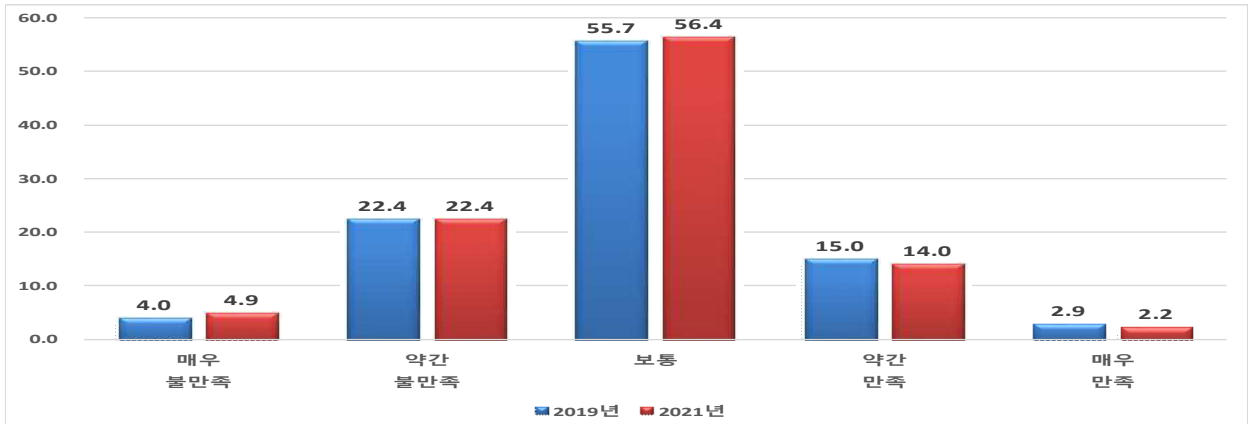
### 4.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00만원 미만'이 31.2%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0만원 미만'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58.5%를 차지함



## 5. 소비생활 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16.2%, '불만족'이 2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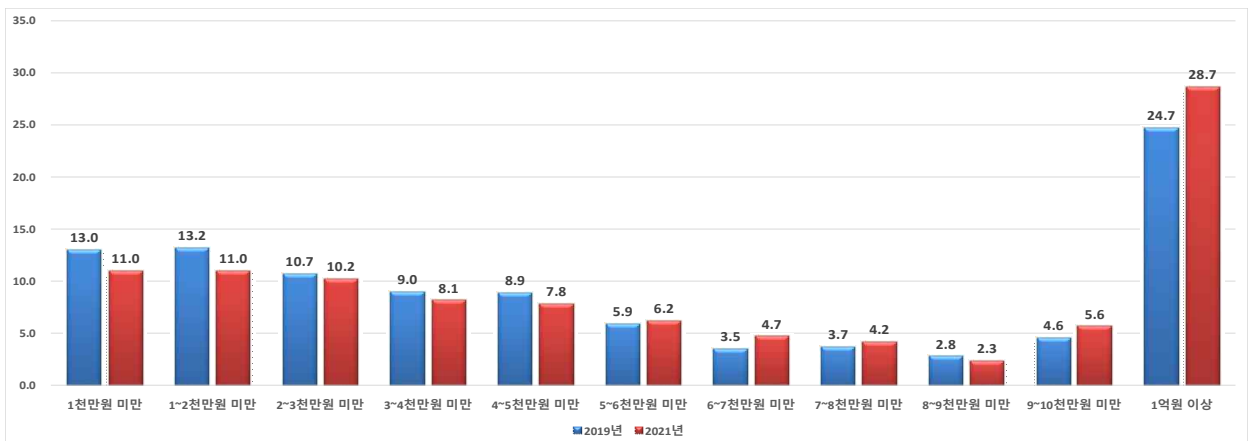
## 6. 가구의 부채정도와 이유

○ 부채가 있는 가구는 42.7%(2019년 42.7%)으로 나타났고, 부채의 금액은 '1억원 이상'이 28.7%로 가장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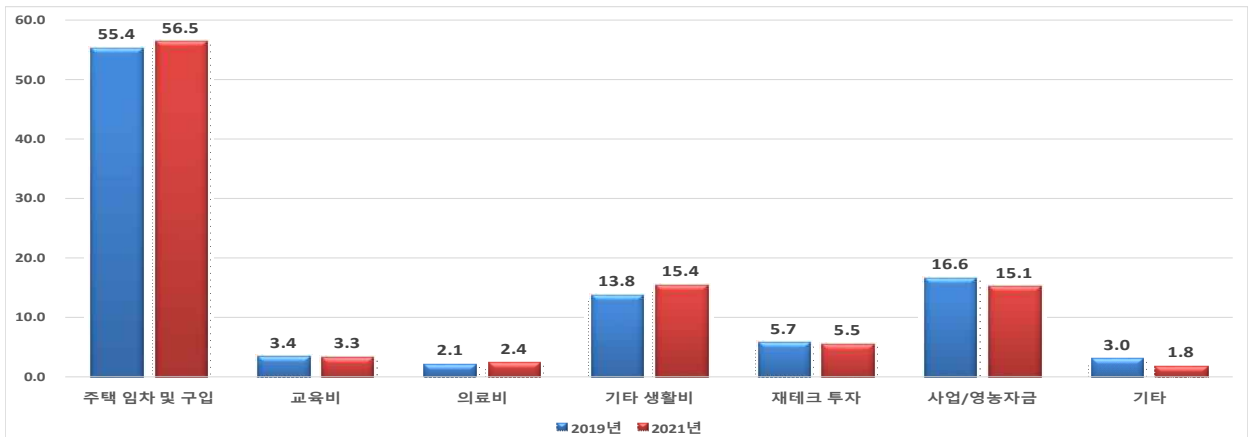
- 2019년에 비해 적은 금액에서의 비중을 감소했고, 높은 금액에서 비중이 증가함

○ 부채의 주된 이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56.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 생활비' 15.4%, '사업/영농자금' 15.1% 순으로 나타남

<부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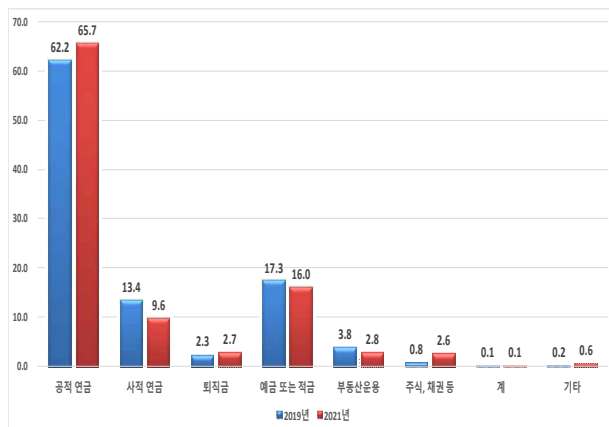
<부채의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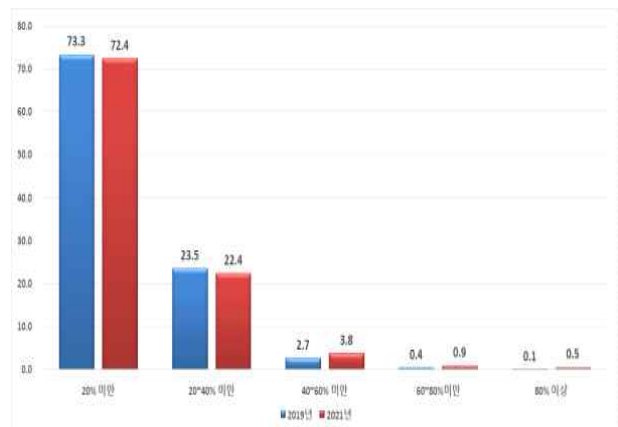
## 7. 노후대비 소득보장

-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49.3%(2019년 47.0%)로 나타났으며,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 향후 준비 계획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15.5%,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36.6%, '준비할 능력이 없다' 47.8%로 나타남
- 준비방법은 '공적 연금'이 65.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금 또는 적금' 16.0%, '사적 연금'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득대비 노후투자에 지출하는 비율은 '20% 미만'이 72.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20~40% 미만' 22.4%, '40~60% 미만' 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준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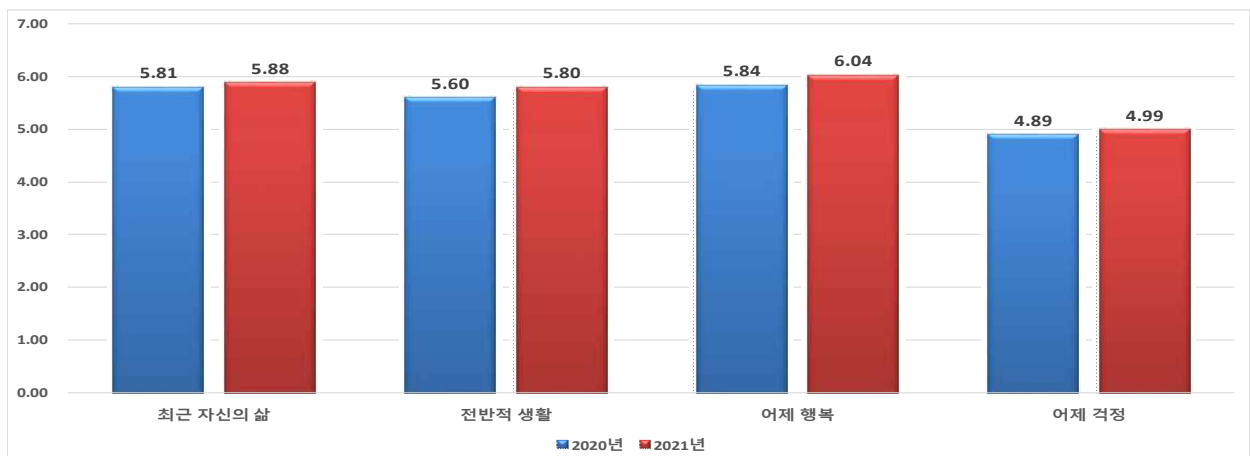


<소득대비 지출 비율>



## 8. 삶에 대한 만족감

- 경남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 중 '최근 자신의 삶'<sup>1)</sup>에 대한 만족도는 5.88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80점, '어제 행복'은 5.04점, '어제 걱정'은 4.99점으로 나타남
- 2020년에 비해 대체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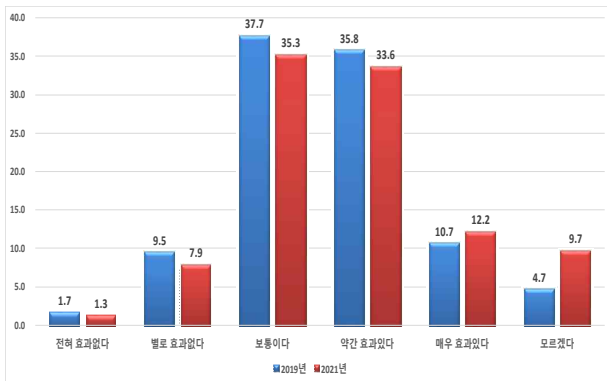
1) 만족도의 최저점수는 0점, 최고점수는 10점임

# V.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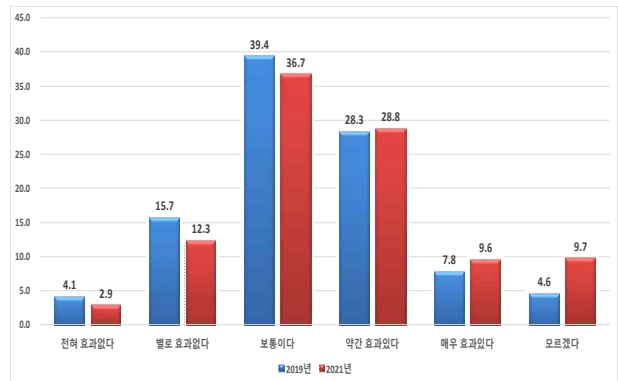
## 1.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지식, 기술습득에 대해 '효과있다' 45.8%, '효과없다' 9.2%로 나타남
- 인격형성에 대해 '효과있다' 38.4%, '효과없다' 15.2%로 나타남
-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에 대해 '효과있다' 32.5%, '효과없다' 16.3%로 나타남
-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에 대해 '효과있다' 37.1%, '효과없다' 15.4%로 나타남
-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에 대해 '효과있다' 47.1%, '효과없다' 8.4%로 나타남
- 사회성 향상에 대해 '효과있다' 45.7%, '효과없다' 9.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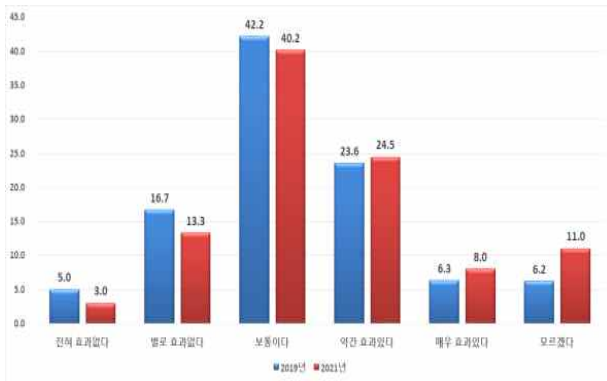
<지식, 기술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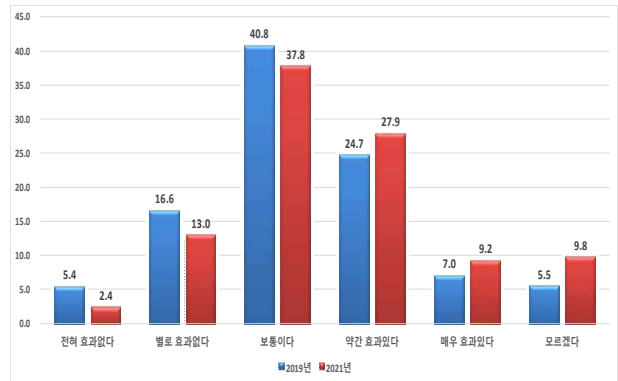
<인격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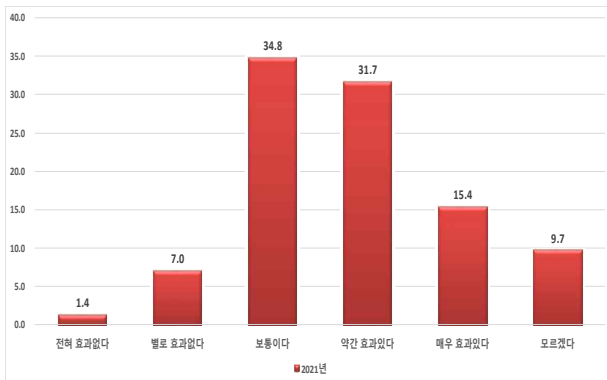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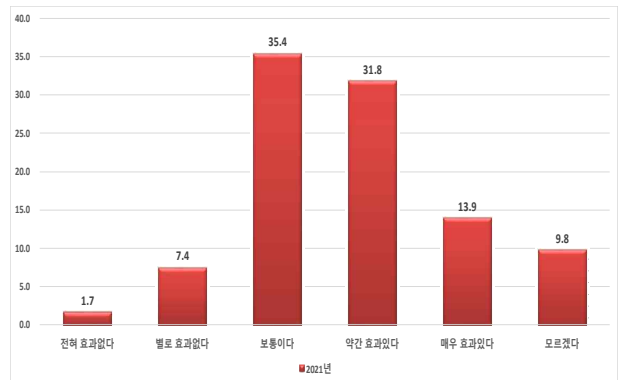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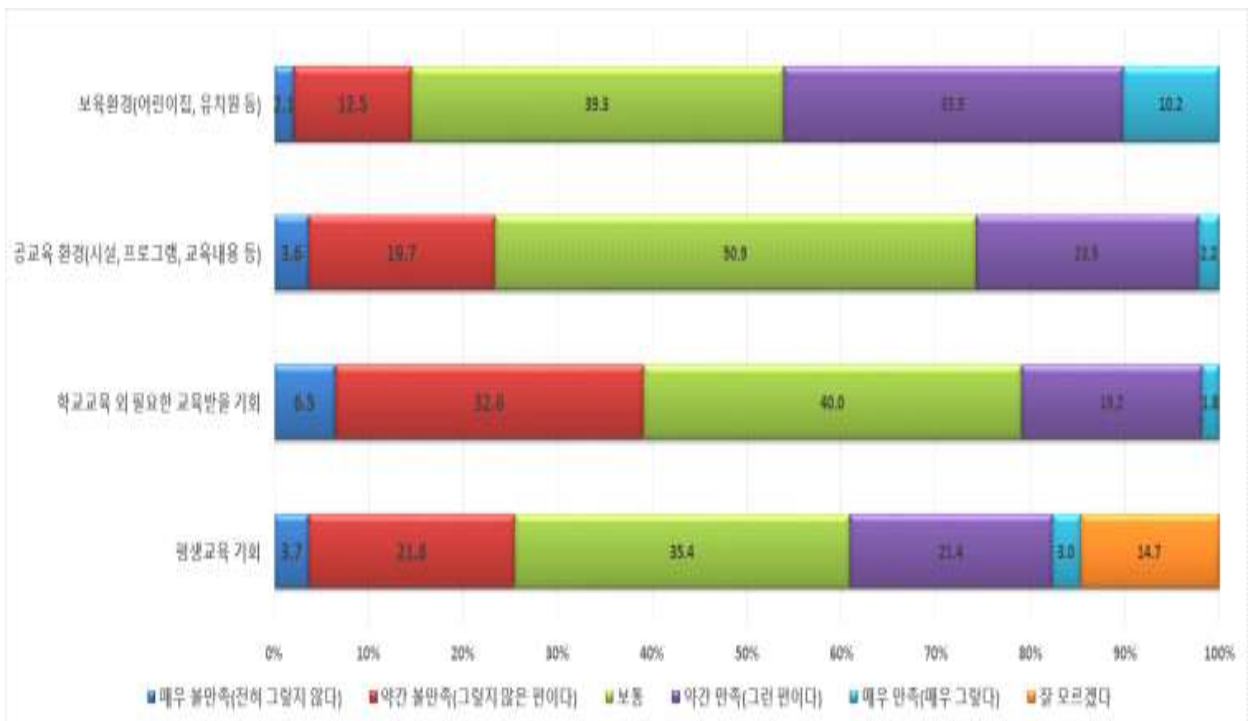


<사회성 향상>



## 2. 교육환경 만족도

-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14.6%, '만족' 46.1%로 나타남
- 공교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23.3%, '만족' 25.7%로 나타남
- 학교교육 외 필요한 교육받을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지 않다' 39.1%, '그렇다' 21.0%로 나타남
- 평생교육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지 않다' 25.5%, '그렇다' 24.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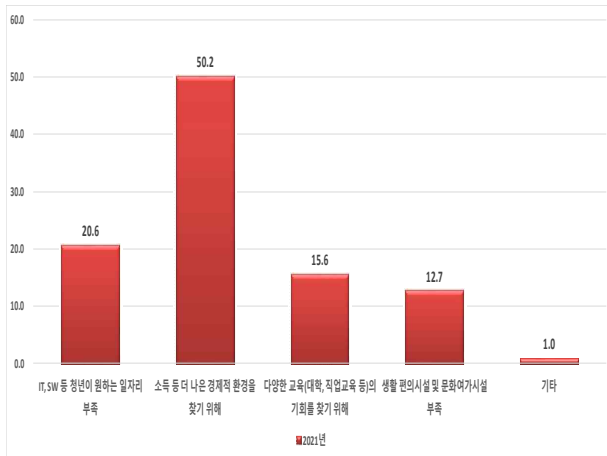


## VI. 부가조사

### 1. 청년인구 유출 및 유입

- 청년인구 유출의 이유는 '소득 등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해'가 50.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IT, SW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 20.6%, '다양한 교육(대학, 직업교육 등)의 기회를 찾기 위해' 15.6%, '생활 편의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부족'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인구 유입의 이유는 '고향, 익숙한 곳이라서/부모님 근처에서 함께 살기 위해'가 3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도권 생활(주택난, 생활비 상승)이 힘들어서' 27.6%, '취업·창업 등 일자리(창업)를 찾기 위해' 24.9%, '여유로운 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위라벨)'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청년인구 유출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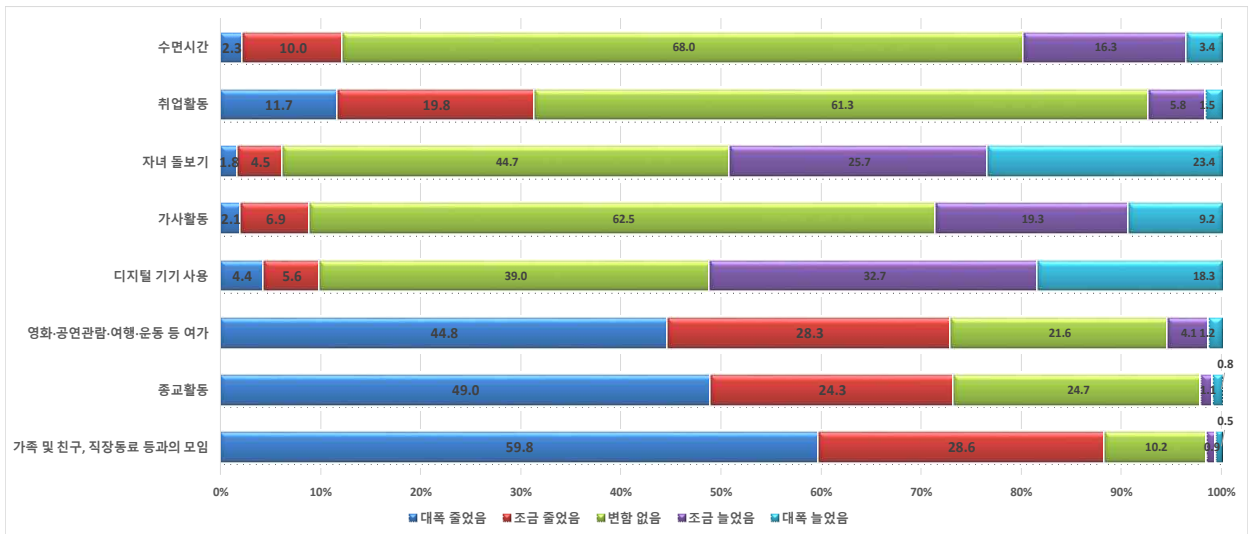
<청년인구 유입의 이유>



### 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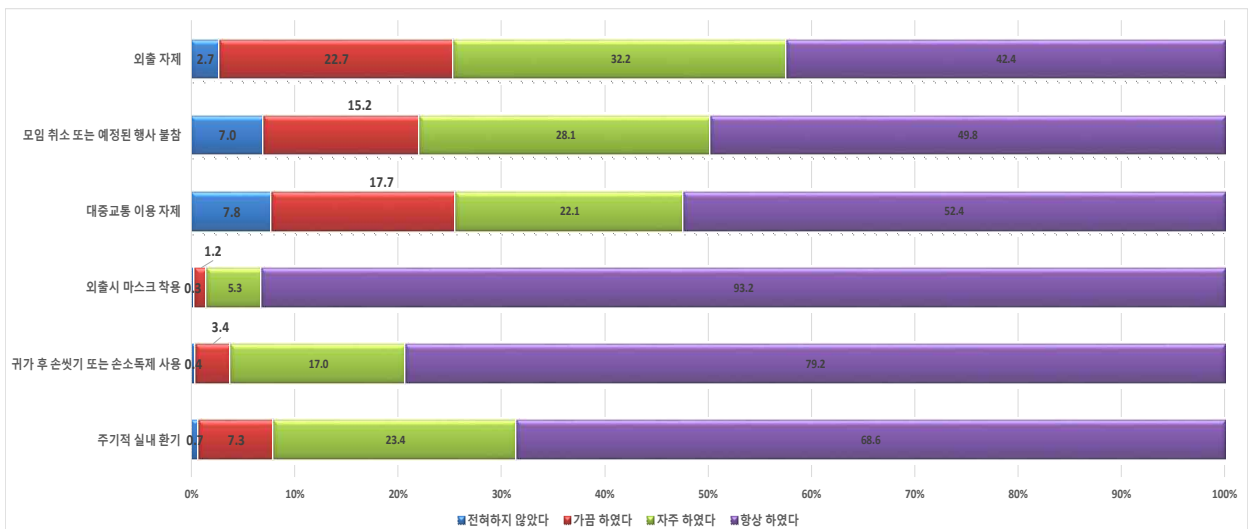
- 수면시간은 '줄었음' 12.3%, '변함없음' 68.0%, '늘었음' 19.7%로 나타남
- 취업활동은 '줄었음' 31.5%, '변함없음' 61.3%, '늘었음' 7.3%로 나타남
- 자녀 돌보기는 '줄었음' 6.3%, '변함없음' 44.7%, '늘었음' 49.1%로 나타남
- 가사활동은 '줄었음' 9.0%, '변함없음' 62.5%, '늘었음' 28.5%로 나타남
- 디지털 기기 사용은 '줄었음' 10.0%, '변함없음' 39.0%, '늘었음' 51.0%로 나타남
- 영화·공연관람·여행·운동 등 여가는 '줄었음' 73.1%, '변함없음' 21.6%, '늘었음' 5.3%로 나타남
- 종교활동은 '줄었음' 73.3%, '변함없음' 24.7%, '늘었음' 1.9%로 나타남
- 가족 및 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모임은 '줄었음' 88.4%, '변함없음' 10.2%, '늘었음' 1.4%로 나타남





### 3. 코로나19로 인한 행동 변화

- 외출 자제는 '전혀 하지 않았다' 2.7%, '가끔 하였다' 22.7%, '자주 하였다' 32.2%, '항상 하였다' 42.4%로 나타남
- 모임 취소 또는 예정된 행사 불참은 '전혀 하지 않았다' 7.0%, '가끔 하였다' 15.2%, '자주 하였다' 28.1%, '항상 하였다' 49.8%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 자제는 '전혀 하지 않았다' 7.8%, '가끔 하였다' 17.7%, '자주 하였다' 22.1%, '항상 하였다' 52.4%로 나타남
- 외출시 마스크 착용은 '전혀 하지 않았다' 0.3%, '가끔 하였다' 1.2%, '자주 하였다' 5.3%, '항상 하였다' 93.2%로 나타남
- 귀가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은 '전혀 하지 않았다' 0.4%, '가끔 하였다' 3.4%, '자주 하였다' 17.0%, '항상 하였다' 79.2%로 나타남
- 주기적 실내 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0.7%, '가끔 하였다' 7.3%, '자주 하였다' 23.4%, '항상 하였다' 68.6%로 나타남



##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1. 8. 27. ~ 9. 15.
- 조사대상 : 도내 15,000가구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25,762명)
  - 도내 전체가구 : 1,279천가구(2018 인구주택총조사) 중 1.2% 표본
- 조사인력 : 379명(조사관리자 41, 조사원 259 내검·입력원 79)
- 조사항목 : 5개 부문 150개(도 39, 시군 111), 부가조사 제외
  - 5개 부문 : 주거·교통, 문화·여가, 일자리·노동, 소득·소비, 교육

## □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조사대상 연령 :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 조사대상 기간
  - 조사대상 기간(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21. 8. 27. 현재임
  - 「지난 1년」은 2020. 8. 27. ~ 2021. 8. 26. 동안임
  - 「지난 1주」는 2021. 8. 20. ~ 2021. 8. 26. 동안임
- 보기 중 여러 개(1~3순위) 응답이 가능한 문항의 경우 제목의 “(주된 응답)” 은 응답 1순위 1개만 응답하였을 때의 결과이고, “(복수 응답)” 은 여러 개(1~2개 또는 1~3개) 응답하였을 때 케이스별로 집계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해당 숫자 없음            0.0 : 단위 미만

---

# 2021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

2021. 12



경 남 남 도



##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2021년 경상남도 사회조사」의 결과를 수록한 것임
2.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조사대상 연령
    -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 조사대상 기간
    - 조사대상 기간(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21. 8. 27. 현재임
    - 「지난 1년」은 2020. 8. 27. ~ 2021. 8. 26. 동안임
    - 「지난 1주」는 2021. 8. 20. ~ 2021. 8. 26. 동안임
3. 보기 중 여러 개(1~3순위) 응답이 가능한 문항의 경우 제목의 "(주된 응답)"은 응답 1순위 1개만 응답하였을 때의 결과이고, "(복수 응답)"은 여러 개(1~2개 또는 1~3개) 응답하였을 때 케이스별로 집계
4.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해당 숫자 없음            0.0 : 단위 미만
5.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경상남도 디지털정책담당관 (☎055-211-2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례

## I. 2021년 경남 사회조사 개요

1. 경남 사회조사 개요 .....	3
가. 조사 목적 .....	3
나. 법적 근거 및 조사연혁 .....	3
다. 조사체계 .....	3
라.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	4
마. 조사항목 .....	4
바. 표본설계 .....	6
사. 표본 규모 .....	6
아. 가중값 및 추정 .....	7
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 .....	9
가. 가구 특성 .....	9
나. 응답자 특성 .....	12
3. 시·군 특성항목 조사 .....	16
가. 특성항목 반영 사유 .....	16
나. 조사항목 .....	17

## II. 2018년 경남 사회조사 결과

1. 주거와 교통 .....	21
1)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 횟수 .....	25
2) 지역거주기간 및 향후 정주 의사 .....	26
3) 주거환경 만족도 .....	30
4)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및 소속감 .....	33
5)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견해 .....	35
6) 통근통학 지역,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	37
7) 교통수단 만족도 .....	39
8)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 .....	42
9) 지역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 .....	43
10) 보행만족도 .....	44

<b>2. 문화와 여가</b> .....	<b>45</b>
11)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47
12)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	48
13) 여가활동 만족도 .....	49
14)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	50
15)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 .....	51
16) 도내 관광 경험 및 개선할 점 .....	54
17) 타 지역민에게 경남 관광지 소개 .....	57
<b>3. 일자리 노동 부문</b> .....	<b>59</b>
18) 일자리 충분도 .....	61
19) 지역의 실업정도 .....	62
20) 지역의 고용전망 .....	63
21) 지역의 경제전망 .....	64
22) 일자리 만족도 .....	65
23)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	67
24) 일자리 창출 분야 .....	68
25) 청년일자리 지원 분야 .....	69
26)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	70
27) 청년일자리 확대 분야 .....	71
28)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분야 .....	72
<b>4. 소득과 소비 부문</b> .....	<b>73</b>
29)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75
30) 가구 월평균 소득 .....	76
31) 소득만족도 .....	78
32)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 .....	79
33)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	80
34) 소비생활 만족도 .....	81
35) 가구 부채정도 및 이유 .....	82
36) 노후대비 소득보장 .....	84
37) 삶에 대한 만족감 .....	86
<b>5. 교육 부문</b> .....	<b>87</b>
38)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89
39) 교육환경 만족도 .....	91



6. 부가조사 부문 .....	95
40) 청년인구 유출 .....	97
41) 청년인구 유입 .....	98
4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변화 .....	99
43) 코로나19로 인한 행동변화 .....	100

### Ⅲ. 통 계 표

# 1. 2021년 경남 사회조사 개요

1. 경남 사회조사 개요
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
3. 시·군 특성항목 조사



# 1. 경남 사회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 세계화·지방화·정보화 등 급변하는 경제시대에 지역개발 및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회상태를 총체적,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회지표가 필요함
- 경남도민의 사회적 관심사, 주관적 생활수준 및 의식에 관련된 항목 등을 조사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도민이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경상남도가 지역의 균형 발전, 낙후지역 개발, 복지정책 개발, 현실적 실업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

## 나. 법적 근거 및 조사연혁

### 1)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217001호)

### 2) 조사연혁

- 1992.05.18. : 제1회 「경상남도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실시
- 1993.03.06. : 「경남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로 명칭 변경
- 2009.03.06. : 「경상남도 사회통계조사」로 명칭 변경
- 2010.04.01. : 「경상남도 사회조사」로 명칭 변경
- 2019.05.07. : 제28회 「경상남도 사회조사」 실시
- 2020.08.20. : 제29회 「경상남도 사회조사」 실시

## 다. 조사체계

- 당초 「경상남도 사회조사」의 결과는 도 단위로 공표되었지만, 조사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시·군 단위까지 공표하기 위해 매년 시·군의 특성항목을 추가하고, 시·군별로 표본을 늘려 조사함
- 매년 실시하는 경상남도 사회조사에 시·군 특성항목을 반영하여 조사하는 경우 시·군에서 자체 사회조사를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조사 가능
- 2011년 3개 시·군을 시작으로 2012년 6개 시·군, 2013년 7개 시·군, 2014년과 2017년 9개 시·군에 이어 2016년부터는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실시

라.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1) 조사기간

- 조사기준 시점 : 2021. 8. 27. 0시
- 조사대상 기간 : 2020. 8. 27 ~ 2021. 8. 26(1년간)
- 조사 기간 : 2021. 8. 27 ~ 9. 15 (20일간)

2) 조사방법

- 경남도(기획) → 도내 18개 시.군(조사원 모집) → 조사원(현장조사 실시)
- 조사원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방문면접조사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면접이 어려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

마. 조사항목

- 경상남도 사회조사는 응답자의 응답 부담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분할하여 매년 조사

짝수년도 (2020년 조사)		홀수년도 (2021년 조사)	
계	5개 부분 51개 항목	계	7개 부분 43개 항목
보건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희망 운동종목 및 필요한 체육시설</li> <li>○ 정기적인 운동 횟수</li> <li>○ 의료서비스 만족도</li> <li>○ 유병기간 및 치료법</li> <li>○ 의료비 부담정도</li> <li>○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li> </ul>	주거와 교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 횟수</li> <li>○ 지역거주기간 및 향후 정주 의사</li> <li>○ 주거환경 만족도</li> <li>○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및 소속감</li> <li>○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li> <li>○ 통근·통학 여부, 교통수단 및 시간</li> <li>○ 교통수단 만족도</li> <li>○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li> <li>○ 지역 교통안전 해결 방안</li> <li>○ 보행만족도</li> </ul>
가족가구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li> <li>○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li> <li>○ 부모 부양 책임자</li> <li>○ 결혼에 대한 견해</li> <li>○ 저출산의 이유와 해결방안</li> <li>○ 이상적인 자녀수</li> <li>○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 및 보육 만족도</li> <li>○ 자녀 양육을 위한 알·가정 양립 지원</li> <li>○ 분거가족</li> <li>○ 가족관계 만족도</li> <li>○ 가구 월평균 소득</li> </ul>	문화와 여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li> <li>○ 주말(공휴일 포함)의 여가 활용</li> <li>○ 여가활동 만족도</li> <li>○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li> <li>○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li> <li>○ 도내 관광 경험 및 개선할 점</li> <li>○ 타 지역민에게 경남 관광지 소개</li> </ul>

작수년도 (2020년 조사)		출수년도 (2021년 조사)	
사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참여 횟수 및 시간</li> <li>○ 기부 참여</li> <li>○ 사회적 지원</li> <li>○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li> <li>○ 사회 단체·모임 가입·참여</li> <li>○ 스마트폰 이용</li> <li>○ 도정 참여 여부 및 참여 분야</li> <li>○ 사회문제 참여 여부 및 참여 분야</li> <li>○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li> <li>○ 삶에 대한 만족감</li> <li>○ 일반인에 대한 신뢰</li> <li>○ 공동체 의식</li> <li>○ 사회적 계층의식</li> <li>○ 소득 불평등 정도</li> <li>○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li> <li>○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li> <li>○ 양성 평등 수준</li> <li>○ 양성 평등 우선 지원</li> <li>○ 에너지 절약 실천</li> </ul>	일자리 노동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충분도</li> <li>○ 지역의 실업정도</li> <li>○ 지역의 고용전망</li> <li>○ 지역의 경제전망</li> <li>○ 일자리 만족도</li> <li>○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li> <li>○ 일자리 창출 분야</li> <li>○ 청년일자리 지원 분야</li> <li>○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li> <li>○ 청년 일자리 확대 분야</li> <li>○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li> <li>○ 학교(학원) 폭력 해결</li> <li>○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li> <li>○ 범죄환경 예방도시 조성사업 우선 분야</li> <li>○ 지진방재시스템 강화 우선 추진</li> <li>○ 농축산물 인증제도 인식정도</li> <li>○ 농축산물 안정성 강화 필요 정책</li> <li>○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li> <li>○ 안전교육 받은 경험</li> </ul>		소득과 소비 (9)
안전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적 환경체감도</li> <li>○ 환경오염 방지 노력</li> <li>○ 재활용품 관리 대책</li> <li>○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li> <li>○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추진 정책</li> </ul>	교육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li> <li>○ 교육환경 만족도</li> </ul>
환경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의 종류</li> <li>○ 주거 점유형태</li> <li>○ 성별</li> <li>○ 생년월일</li> <li>○ 가구주와의 관계</li> <li>○ 교육정도</li> <li>○ 혼인상태</li> <li>○ 통근·통학 여부, 교통수단 및 시간</li> </ul>	부가조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인구 유출</li> <li>○ 청년인구 유입</li> <li>○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변화</li> <li>○ 코로나19로 인한 행동변화</li> </ul>
기본항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의 종류</li> <li>○ 주거 점유형태</li> <li>○ 성별</li> <li>○ 생년월일</li> <li>○ 가구주와의 관계</li> <li>○ 교육정도</li> <li>○ 혼인상태</li> <li>○ 통근·통학 여부, 교통수단 및 시간</li> </ul>	기본항목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의 종류</li> <li>○ 주거 점유형태</li> <li>○ 성별</li> <li>○ 생년월일</li> <li>○ 가구주와의 관계</li> <li>○ 교육정도</li> <li>○ 혼인상태</li> </ul>

## 바. 표본설계

### 1)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 목표모집단 : 기준시점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인구
- 조사모집단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 표본추출틀 : 2018년 인구총조사 조사구 명부(조사하기 어려운 섬조사구 제외)

### 2) 조사모집단 분포

- 2018년 인구총조사 모집단을 활용하여 모집단 분석을 실시

### 3) 표본추출틀의 작성

- 2018년 인구총조사의 일반조사구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조사구 중 조사하기 어려운 섬지역과 기숙시설, 사회시설은 제외함

### 4) 층화 및 분류지표

- 층화

- 공표범위 및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18개 층으로 층화

- 분류지표

- 시군별 층화지표 외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보조층화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 추출 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면, 보조층화 지표도 사실상 층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층화지표 외에 시군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가구 및 인구특성 중 층화목적 및 통계 정도(정확도와 정밀도)를 고려하여 분류지표로 활용

## 사. 표본 규모

### 1) 표본규모 결정 및 배분

- 표본규모

- 상대표준 오차(RSE)를 활용한 표본 규모 설정

$$n_1 \times RSE_1^2 = n_2 \times RSE_2^2$$

- 2018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주요항목(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남 RSE는 0.5%이며, 시군별로는 1.2~3.3% 수준으로 나타남

- 목표 RSE는 시군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현 수준을 유지

### 2) 표본추출

- 방법: 층화2단 집락추출법

- 추출단위

-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법(MOS=가구 수)
- 가구: 단순임의추출법으로 시작가구 추출(시작가구를 포함한 연속된 20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

- 조사단위: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가구주 포함)

○타 조사와 중복된 조사구에 대해 대체 처리

## 아. 가중값 및 추정

### 1) 가중값

○ 설계가중값 : 층별 추출확률의 역수로 작성

$$w_{hij}^{(1)} = \frac{M_h}{n_h M_{hi}} \times \frac{M_{hi}}{m_{hi}} = \frac{M_h}{n_h \times 20}$$

- $M_h$  :  $h$ 층 전체 가구수
  - $M_{hi}$  :  $h$ 층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전체 가구수(크기척도)
  - $n_h$  :  $h$ 층 표본 조사구수
  - $m_{hi}$  :  $h$ 층  $i$ 번째 표본 조사구 내 표본 가구수
- $h = 1, 2, \dots, 18$  : 설계층(시군),  $i = 1, 2, \dots, n_h$  : 조사구,  $j = 1, 2, \dots, m_{hi}$  : 가구

○ 무응답조정 가중값 : 조사구별 응답률의 역수로 작성

$$w_{hij}^{(2)} = w_{hij}^{(1)} \times \frac{m_{hi}}{m_{hi}(0)}$$

- $w_{hij}^{(1)}$  :  $h$ 층  $i$ 번째 표본 조사구 내  $j$ 번째 표본 가구의 설계 가중값
- $m_{hi}$  :  $h$ 층  $i$ 번째 표본 조사구 내 표본 가구수
- $m_{hi}(0)$  :  $h$ 층  $i$ 번째 표본 조사구에서 조사 완료된 표본 가구수

○ 사후층화 조정계수

- 권역.성.연령그룹별로 최신(조사기준 시점) 주민등록인구에 맞게 보정
- 벤치마크 모집단: 2018년 5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f_{rsa} = \frac{X_{rsa}}{\hat{X}_{rsa}}$$

- $rsa$  : 권역×성별×연령별 그룹(사후층)
- $X_{rsa}$  : 사후층별 모집단 크기
- $\hat{X}_{rsa}$  : 사후층별 가중값의 합

○ 최종 가중값



$$w_{hij} = w_{hij}^{(2)} \times f_{rsa}$$

- $w_{hij}$  :  $h$  층  $i$  조사구  $j$  가구의 최종 가중값
- $w_{hij}^{(2)}$  :  $h$  층  $i$  조사구  $j$  가구의 무응답 가중값
- $f_{rsa}$  : 사후층별 가중값의 합

## 2) 추정

### ○ 평균(모비율)

$$\hat{\mu} = \bar{y} = \frac{\sum_h^{18}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sum_h^4 \sum_i^{n_h} \sum_j^{m_{hi}} w_{hij}}$$

- $h = 1, 2, \dots, 18$  : 층(사군)
- $i = 1, 2, \dots, n_h$  : 조사구
- $j = 1, 2, \dots, m_{hi}$  : 대상가구주 또는 대상 가구원
-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내  $j$  번째 가중값

### ○ 분산(테일러선형근사)

$$\widehat{Var}(\bar{y}) = \sum_{h=1}^{18}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 $e_{hi\cdot}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dots}$
- $\bar{e}_{h\cdot\cdot} = \left( \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w_{\dots} = \sum_h^{18} \sum_i^{n_h} \sum_j^{m_{hi}} w_{hij}$

$$\widehat{SE}(\bar{y}) = \sqrt{\widehat{Var}(\bar{y})}$$

$$R\widehat{SE}(\bar{y}) = \frac{\widehat{SE}(\bar{y})}{\bar{y}}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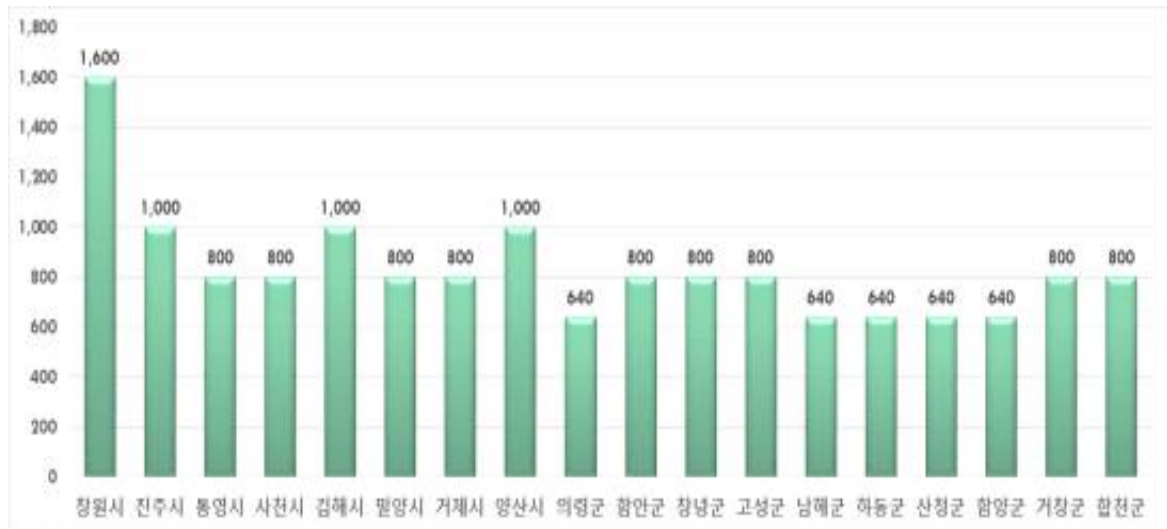
## 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

### 가. 가구특성

#### 1) 시·군별 가구분포

지역명	가구수	비율(%)	지역명	가구수	비율
<b>경남 합계</b>	<b>15,000</b>	<b>100.0</b>	의령군	640	4.3
창원시	1,600	10.7	함안군	800	5.3
진주시	1,000	6.7	창녕군	800	5.3
통영시	800	5.3	고성군	800	5.3
사천시	800	5.3	남해군	640	4.3
김해시	1,000	6.7	하동군	640	4.3
밀양시	800	5.3	산청군	640	4.3
거제시	800	5.3	함양군	640	4.3
양산시	1,000	6.7	거창군	800	5.3
<b>시 합계</b>	<b>7,800</b>	<b>52.0</b>	<b>군 합계</b>	<b>7,200</b>	<b>48.0</b>

<시·군별 가구 분포>



## 2) 가구원 수별 분포

○ 조사대상 가구 중 1인 가구가 39.8%로 가장 많고, 2인 가구 37.8%, 3인 가구 11.9%, 4인 가구 8.3%, 5인 이상 가구 2.3% 순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비율이 시 지역(36.4%)보다 군 지역(43.4%)이 7.0%p 높게 나타남

-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군 지역보다 시 지역이 7.4%p, 6.8%p 각각 높음

지역명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b>경남 합계</b>	<b>100.0</b>	<b>39.8</b>	<b>37.8</b>	<b>11.9</b>	<b>8.3</b>	<b>2.3</b>
창원시	100.0	31.9	35.1	17.9	12.5	2.6
진주시	100.0	37.3	36.0	13.5	10.2	3.0
통영시	100.0	39.8	35.9	12.9	10.0	1.5
사천시	100.0	42.8	34.8	13.8	5.5	3.3
김해시	100.0	34.7	28.3	19.0	14.3	3.7
밀양시	100.0	43.4	39.8	8.9	6.3	1.8
거제시	100.0	33.3	31.0	16.3	15.5	4.0
양산시	100.0	33.2	30.0	18.0	15.9	2.9
<b>시 합계</b>	<b>100.0</b>	<b>36.4</b>	<b>33.8</b>	<b>15.4</b>	<b>11.6</b>	<b>2.8</b>
의령군	100.0	49.1	37.2	7.5	4.8	1.4
함안군	100.0	43.5	40.1	6.4	7.1	2.9
창녕군	100.0	43.8	40.4	8.9	5.5	1.5
고성군	100.0	38.8	45.1	9.6	4.1	2.4
남해군	100.0	37.5	44.2	11.3	5.5	1.6
하동군	100.0	43.0	44.8	7.2	3.6	1.4
산청군	100.0	42.2	46.6	5.8	3.4	2.0
함양군	100.0	43.4	41.1	8.4	5.5	1.6
거창군	100.0	48.0	39.1	6.9	4.6	1.4
합천군	100.0	44.9	42.8	7.9	3.8	0.8
<b>군 합계</b>	<b>100.0</b>	<b>43.4</b>	<b>42.1</b>	<b>8.0</b>	<b>4.8</b>	<b>1.7</b>

<가구원수 비율>



<시·군 지역 가구원수 비율>



### 3) 거처종류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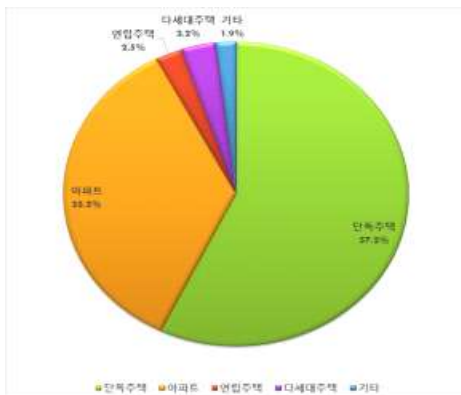
○ 조사대상의 거처종류는 단독주택이 57.2%, 아파트가 3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립주택 2.5%, 다세대주택 3.2%, 기타주택은 1.9%로 나타남

○ 시 지역은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고(52.1%), 군 지역은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음 (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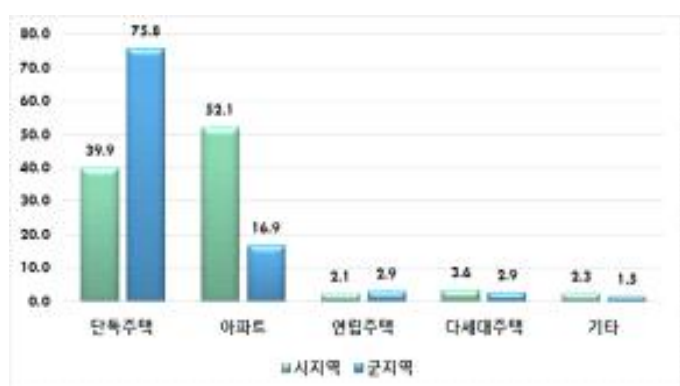
- 단독주택 비율의 경우 시 지역은 밀양시(66.4%), 군 지역은 남해군(87.8%)이 가장 높음
- 아파트 비율의 경우 시 지역은 양산시(74.0%), 군 지역은 함안군(35.0%)이 가장 높음

지역명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b>경남 합계</b>	<b>100.0</b>	<b>57.2</b>	<b>35.2</b>	<b>2.5</b>	<b>3.2</b>	<b>1.9</b>
창원시	100.0	36.9	50.0	5.0	4.3	3.8
진주시	100.0	45.9	48.0	2.1	2.8	1.2
통영시	100.0	47.8	50.0	0.0	0.9	1.4
사천시	100.0	43.6	42.5	3.6	4.9	5.4
김해시	100.0	28.9	60.0	0.0	8.2	2.9
밀양시	100.0	66.4	30.0	1.4	1.8	0.5
거제시	100.0	35.3	57.5	2.9	4.4	0.0
양산시	100.0	23.3	74.0	0.1	0.6	2.0
<b>시 합계</b>	<b>100.0</b>	<b>39.9</b>	<b>52.1</b>	<b>2.1</b>	<b>3.6</b>	<b>2.3</b>
의령군	100.0	81.7	9.4	2.8	6.1	0.0
함안군	100.0	57.6	35.0	5.3	1.8	0.4
창녕군	100.0	68.6	21.3	4.0	2.0	4.1
고성군	100.0	73.4	18.8	4.3	3.1	0.5
남해군	100.0	87.8	6.3	0.0	2.3	3.6
하동군	100.0	81.7	12.5	2.0	1.9	1.9
산청군	100.0	85.6	12.5	0.0	0.6	1.3
함양군	100.0	78.3	12.5	3.9	3.4	1.9
거창군	100.0	65.3	27.5	2.3	3.9	1.1
합천군	100.0	85.4	7.5	3.4	3.5	0.3
<b>군 합계</b>	<b>100.0</b>	<b>75.8</b>	<b>16.9</b>	<b>2.9</b>	<b>2.9</b>	<b>1.5</b>

<거처종류 비율>



<시·군 지역 거처종류 비율>



#### 4)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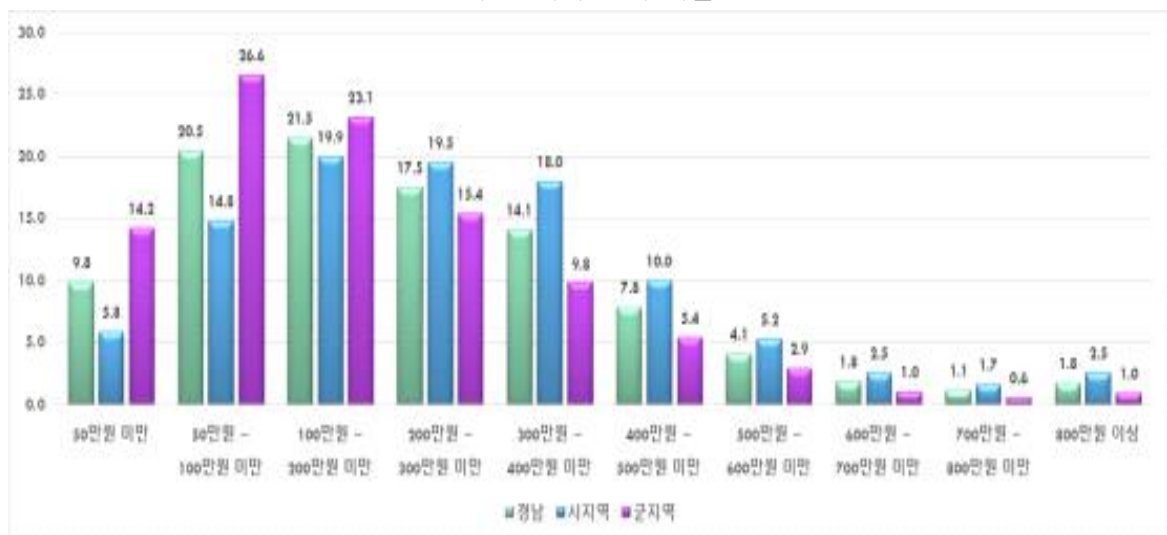
○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율은 100~200만원 미만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100만원 미만 20.5%, 200~300만원 미만 17.5% 순으로 나타남

○ 시 지역은 100~200만원 미만(19.9%)이 가장 높고, 군 지역은 50~100만원 미만(26.6%)이 가장 높음

- 시 지역의 소득 분포가 군 지역보다 높음

지역명	계(%)	50만원 미만	50~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700	700~800	800만원 이상
<b>경남 합계</b>	<b>100.0</b>	<b>9.8</b>	<b>20.5</b>	<b>21.5</b>	<b>17.5</b>	<b>14.1</b>	<b>7.8</b>	<b>4.1</b>	<b>1.8</b>	<b>1.1</b>	<b>1.8</b>
창원시	100.0	3.4	14.0	19.9	20.4	18.8	9.9	4.6	2.5	2.8	3.8
진주시	100.0	4.2	16.8	23.0	18.1	15.2	9.3	5.3	3.8	1.6	2.7
통영시	100.0	5.9	18.4	22.3	18.6	16.9	8.6	5.3	1.8	1.5	0.9
사천시	100.0	5.8	17.9	21.0	17.4	17.4	10.4	4.5	2.1	1.8	1.9
김해시	100.0	3.1	12.9	15.1	20.7	19.4	14.0	7.4	3.0	1.6	2.8
밀양시	100.0	18.3	17.0	18.9	17.1	12.3	7.3	3.6	1.6	1.1	2.9
거제시	100.0	8.0	11.1	20.9	23.3	20.3	7.4	4.4	2.4	0.8	1.6
양산시	100.0	2.3	12.2	19.2	19.2	22.3	12.0	6.6	2.7	1.2	2.3
<b>시 합계</b>	<b>100.0</b>	<b>5.8</b>	<b>14.8</b>	<b>19.9</b>	<b>19.5</b>	<b>18.0</b>	<b>10.0</b>	<b>5.2</b>	<b>2.5</b>	<b>1.7</b>	<b>2.5</b>
의령군	100.0	19.4	35.5	18.0	12.5	6.3	2.3	3.0	1.4	0.9	0.8
함안군	100.0	17.9	22.0	19.5	14.9	11.3	8.0	4.0	1.6	0.5	0.4
창녕군	100.0	19.3	23.6	20.5	15.3	10.5	5.8	2.4	1.3	0.6	0.9
고성군	100.0	7.8	22.5	28.0	15.6	12.6	8.0	4.3	0.5	0.4	0.4
남해군	100.0	9.8	26.4	22.2	17.3	12.2	5.9	3.6	0.8	0.2	1.6
하동군	100.0	6.7	31.1	25.6	14.8	10.6	5.5	2.2	0.5	0.8	2.2
산청군	100.0	9.7	30.9	28.3	15.5	9.7	3.1	1.4	0.5	0.5	0.5
함양군	100.0	13.0	28.8	23.1	14.5	9.8	4.5	2.2	2.0	1.1	0.9
거창군	100.0	11.0	23.0	23.8	18.0	9.5	7.0	4.4	1.6	0.8	1.0
합천군	100.0	25.0	25.9	22.8	14.8	5.4	3.0	1.6	0.1	0.3	1.3
<b>군 합계</b>	<b>100.0</b>	<b>14.2</b>	<b>26.6</b>	<b>23.1</b>	<b>15.4</b>	<b>9.8</b>	<b>5.4</b>	<b>2.9</b>	<b>1.0</b>	<b>0.6</b>	<b>1.0</b>

<시·군 지역 소득 비율>



## 나. 응답자 특성

### 1) 응답자 성별 분포

○ 총 응답자는 25,762명, 시 지역 13,967명(54.2%), 군 지역 11,795명(45.8%)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46.1%, 여자가 53.9%로 나타났고, 시 지역의 남자는 47.6%, 여자는 52.4%, 군 지역의 남자는 44.4%, 여자는 55.6%로 나타남

-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거제시(52.7%), 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의령군(59.2%)임

지역명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계(%)	남자	여자
<b>경남 합계</b>	<b>25,762</b>	<b>100.0</b>	<b>100.0</b>	<b>46.1</b>	<b>53.9</b>
창원시	3,043	11.8	100.0	48.1	51.9
진주시	1,794	7.0	100.0	47.0	53.0
통영시	1,370	5.3	100.0	45.7	54.3
사천시	1,347	5.2	100.0	47.2	52.8
김해시	1,896	7.4	100.0	47.7	52.3
밀양시	1,344	5.2	100.0	44.4	55.6
거제시	1,329	5.2	100.0	52.7	47.3
양산시	1,844	7.2	100.0	47.8	52.2
<b>시 합계</b>	<b>13,967</b>	<b>54.2</b>	<b>100.0</b>	<b>47.6</b>	<b>52.4</b>
의령군	992	3.9	100.0	40.8	59.2
함안군	1,298	5.0	100.0	44.7	55.3
창녕군	1,316	5.1	100.0	45.1	54.9
고성군	1,335	5.2	100.0	44.6	55.4
남해군	1,099	4.3	100.0	44.9	55.1
하동군	1,071	4.2	100.0	45.1	54.9
산청군	1,066	4.1	100.0	46.4	53.6
함양군	1,053	4.1	100.0	45.1	54.9
거창군	1,257	4.9	100.0	43.2	56.8
합천군	1,308	5.1	100.0	43.7	56.3
<b>군 합계</b>	<b>11,795</b>	<b>45.8</b>	<b>100.0</b>	<b>44.4</b>	<b>55.6</b>

<성별 비율>



<시·군 지역 성별 비율>



## 2) 연령대별 분포

○ 응답자의 연령대 중 60세 이상이 49.5%로 가장 많고, 50대 17.9%, 40대 14.5%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 군 지역의 65세 이상 비율은 51.5%로 전체 응답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임

- 시 지역은 65세 이상(26.6%), 50대(19.6%), 40대(18.4%) 순으로 많고, 군 지역 또한 65세 이상(51.5%), 50대(15.8%), 40대(9.9%) 순으로 많이 나타남

지역명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b>경남 합계</b>	<b>100.0</b>	<b>3.0</b>	<b>6.0</b>	<b>9.1</b>	<b>14.5</b>	<b>17.9</b>	<b>49.5</b>	<b>38.0</b>
창원시	100.0	4.1	10.9	12.0	17.4	21.6	34.1	23.7
진주시	100.0	4.0	10.3	11.1	16.2	18.2	40.2	30.4
통영시	100.0	2.9	6.4	10.4	17.0	19.9	43.5	32.1
사천시	100.0	3.0	5.6	8.0	18.1	18.8	46.4	34.5
김해시	100.0	5.4	10.9	13.2	20.9	21.9	27.7	18.1
밀양시	100.0	1.6	4.7	6.4	11.5	18.0	57.7	42.7
거제시	100.0	3.9	6.5	16.2	26.0	19.4	27.9	18.1
양산시	100.0	4.0	10.1	17.2	20.1	17.5	31.1	21.0
<b>시 합계</b>	<b>100.0</b>	<b>3.8</b>	<b>8.7</b>	<b>12.1</b>	<b>18.4</b>	<b>19.6</b>	<b>37.4</b>	<b>26.6</b>
의령군	100.0	2.1	3.3	5.6	7.6	12.3	69.1	59.2
함안군	100.0	2.5	1.6	7.3	15.4	14.9	58.2	45.5
창녕군	100.0	1.7	3.0	8.4	9.0	14.1	63.8	50.6
고성군	100.0	1.5	2.3	6.3	11.8	16.1	61.9	50.7
남해군	100.0	1.6	2.7	5.4	8.7	14.3	67.2	53.4
하동군	100.0	3.2	2.2	2.8	9.0	17.6	65.3	52.4
산청군	100.0	2.4	2.8	3.8	8.8	15.5	66.6	53.6
함양군	100.0	2.5	3.6	4.1	10.2	16.1	63.5	50.8
거창군	100.0	2.6	3.1	6.4	11.5	18.6	57.8	46.1
합천군	100.0	1.3	3.0	3.7	6.3	18.0	67.7	54.9
<b>군 합계</b>	<b>100.0</b>	<b>2.1</b>	<b>2.7</b>	<b>5.5</b>	<b>9.9</b>	<b>15.8</b>	<b>63.9</b>	<b>51.5</b>

<시·군 지역 연령대별 비율>



### 3) 교육정도별 및 혼인상태별 분포

○ 응답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3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졸(25.4%), 초졸 이하(26.5%), 중졸(14.8%) 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는 65.3%가 배우자가 있고, 사별 15.5%, 미혼 14.4%, 이혼 4.8%로 나타남

- 군 지역의 사별은 21.2%로 시 지역(10.6%)보다 10.6%p 높음

지역명	교육정도					혼인상태				
	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b>경남 합계</b>	<b>100.0</b>	<b>26.5</b>	<b>14.8</b>	<b>33.3</b>	<b>25.4</b>	<b>100.0</b>	<b>14.4</b>	<b>65.3</b>	<b>15.5</b>	<b>4.8</b>
창원시	100.0	11.4	13.2	39.0	36.3	100.0	21.7	64.1	8.9	5.3
진주시	100.0	17.3	13.7	33.9	35.1	100.0	20.7	62.5	11.1	5.6
통영시	100.0	20.6	18.0	37.5	23.9	100.0	15.8	63.6	13.4	7.3
사천시	100.0	23.1	12.8	38.0	26.1	100.0	14.8	62.9	13.9	8.5
김해시	100.0	9.3	13.7	41.2	35.8	100.0	23.5	62.6	8.2	5.7
밀양시	100.0	28.9	15.1	29.1	26.9	100.0	11.2	67.0	17.8	4.1
거제시	100.0	10.5	12.0	45.8	31.8	100.0	16.4	72.8	6.2	4.6
양산시	100.0	9.0	13.0	38.4	39.6	100.0	21.4	64.4	9.2	5.0
<b>시 합계</b>	<b>100.0</b>	<b>15.2</b>	<b>13.8</b>	<b>38.0</b>	<b>33.0</b>	<b>100.0</b>	<b>19.0</b>	<b>64.7</b>	<b>10.6</b>	<b>5.7</b>
의령군	100.0	49.3	14.0	21.6	15.1	100.0	7.7	61.6	27.1	3.6
함안군	100.0	29.8	17.0	33.8	19.3	100.0	8.0	69.0	18.7	4.2
장영군	100.0	36.6	15.4	31.8	16.1	100.0	10.5	64.2	20.5	4.8
고성군	100.0	38.7	16.1	30.3	14.8	100.0	7.5	69.1	19.6	3.8
남해군	100.0	37.2	18.8	27.3	16.7	100.0	7.9	67.8	20.7	3.5
하동군	100.0	44.0	15.8	26.1	14.2	100.0	9.9	65.2	20.8	4.1
산청군	100.0	41.7	15.0	28.0	15.3	100.0	9.1	67.0	20.9	3.0
함양군	100.0	38.7	17.6	26.5	17.3	100.0	10.2	66.3	20.9	2.7
거창군	100.0	37.5	13.6	26.8	22.0	100.0	9.7	65.7	20.5	4.1
함천군	100.0	48.5	16.6	22.5	12.5	100.0	9.0	64.1	23.4	3.5
<b>군 합계</b>	<b>100.0</b>	<b>40.0</b>	<b>16.0</b>	<b>27.7</b>	<b>16.4</b>	<b>100.0</b>	<b>8.9</b>	<b>66.1</b>	<b>21.2</b>	<b>3.8</b>

<교육정도 비율>



<경상남도 혼인상태 비율>





### 3. 시·군 특성항목 조사

#### 가. 특성항목 반영 사유

- 경상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시·군의 특성항목을 별도로 조사하여 시·군에 대한 조사 결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 조사 체계,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은 경상남도 사회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매년 실시하는 경상남도 사회조사에 시·군 특성항목을 반영하는 조사하는 경우 시·군에서 자체 사회조사를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연도별 시·군 특성항목 조사는 다음과 같다.
  - 2011년 :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3개 시·군
  - 2012년 :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6개 시·군
  - 2013년 :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7개 시·군
  - 2014년 :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9개 시·군
  - 2017년 :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9개 시·군
  - 2016년 이후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8개 시·군

## 나. 조사항목

○ 도 단위 조사의 7개 부문 43개 항목을 공통항목으로 하여 해당 시·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 110개를 추가하여 총 153개 항목을 조사함

시군	항 목	시군	항 목
창원시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원시 미래의 도시 모습 및 중점 추진 시정 분야</li> <li>○ 창원시 문화·관광도시 건설 지원 분야</li> <li>○ 경력단절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li> <li>○ 창업 의사</li> <li>○ 창업 희망 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희망 이유</li> <li>○ 창업 필요 정책</li> <li>○ 창업 활성화 지원 희망 프로그램</li> <li>○ 빅데이터 정책 반영</li> <li>○ 탄소중립 인식</li> <li>○ 창원시 탄소중립 시작시기</li> <li>○ 여성친화도시 인지도부</li> <li>○ 여성친화도시 중점추진 분야</li> </ul>
진주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조건</li> <li>○ 도서관 이용 현황</li> <li>○ 서적 종류별 독서량</li> <li>○ 자전거 보유 현황</li> <li>○ 자전거 이용 현황</li> </ul>	통영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고 싶은 힐링도시 조성에 대한 견해</li> <li>○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인식여부</li> <li>○ 품격있는 문화시민 의식 변화의 필요성</li> <li>○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분야</li> <li>○ 향후 도시모습 및 개선점</li> </ul>
사천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천시 관광객 수용태세</li> <li>○ 사천바다 케이블카에 대한 견해</li> <li>○ 사천에어쇼에 대한 견해</li> <li>○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li> <li>○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li> </ul>	김해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견해</li> <li>○ 신명나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방안</li> <li>○ 화포천 생태공원에 대한 견해</li> <li>○ 관광지 시설물 및 김해가야테마파크에 대한 견해</li> <li>○ 향후 도시모습 및 개선점</li> <li>○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견해</li> <li>○ 김해시내 대형마트 추가 개설에 대한 견해</li> </ul>
밀양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양시 향후 바람직한 도시형태</li> <li>○ 관광객 유치에 대한 견해</li> <li>○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시민문화행사 선호도</li> <li>○ 건강도시 추구를 위한 시설 확충 방안</li> </ul>	거제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희망정도</li> <li>○ 현재 일자리와 희망 일자리 차이</li> <li>○ 거제사랑상품권 구매</li> <li>○ 관광 활성화 방안</li> <li>○ 지역축제 참여 정도 및 만족도</li> <li>○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li> <li>○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li> <li>○ 아동교육 희망 정책</li> </ul>

시·군	항 목	시·군	항 목	
양산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품 교육도시 건설</li> <li>○ 건강도시 추구에 대한 견해</li> <li>○ 황산문화체육공원에 대한 견해</li> <li>○ 양산시 미래비전 및 개선점</li> <li>○ 지역문화 행사에 대한 견해</li> </ul>	의령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령군 미래의 도시 모습 및 개선점</li> <li>○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li> <li>○ 농민 소득증대 방안</li> <li>○ 건강정책 분야</li> <li>○ 외부 관광객 추천 관광지</li> <li>○ 희망하는 문화예술 행사</li> <li>○ 의령군 부림 일반산업단지 유치, 조성에 대한 만족도</li> <li>○ 의령군민이 생각하는 시민의식</li> </ul>	
함안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안군 발전을 위한 정책</li> <li>○ 노인세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호도</li> <li>○ 함안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li> <li>○ 지역 축제·문화 행사 참여 및 만족도</li> </ul>	창녕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녕군 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업종에 대한 견해</li> <li>○ 우포늪에 대한 만족도</li> <li>○ 지역 축제행사 참여 및 만족도</li> </ul>	
고성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군 미래상</li> <li>○ 거주지역 만족도</li> <li>○ 주거정책 필요 분야</li> <li>○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만족도</li> <li>○ 부족한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필요한 정책</li> <li>○ 지역 축제 참여 및 만족도</li> <li>○ 희망 문화예술행사</li> <li>○ 관광산업 발전 방향</li> <li>○ 우선 추진해야 할 청년정책</li> </ul>		
남해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해군 군정 뉴스 취득 경로</li> <li>○ 남해군 관광자원 개발</li> <li>○ 남해군 청사 신축</li> <li>○ 남해군 청년인구 유입</li> </ul>	하동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축제행사 참여 및 만족도</li> <li>○ 지역 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li> <li>○ 재활용품 분리배출 형태</li> <li>○ 음식물쓰레기 배출 형태</li> <li>○ 보건소 이용여부 및 만족도</li> <li>○ 레포츠 시설 이용 만족도</li> </ul>	
산청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 교육도시 건설</li> <li>○ 농업경쟁력 강화</li> <li>○ 관광 활성화 방안</li> <li>○ 지역축제행사 참여 및 만족도</li> </ul>	함양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양군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견해</li> <li>○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견해</li> </ul>	
거창군 (9)	<p><b>&lt;교통 부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환경 개선</li> <li>○ 교통시설 만족도</li> <li>○ 보행환경 개선</li> <li>○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li> </ul> <p><b>&lt;문화관광 부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행사 참여</li> <li>○ 문화예술행사 정보 습득 경로</li> <li>○ 문화예술행사 만족도</li> <li>○ 희망하는 문화예술행사</li> <li>○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li> </ul>	합천군 (8)	<p><b>&lt;행정 부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천군 비전에 대한 인지도 및 공감대</li> <li>○ 군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li> <li>○ 합천군 현 거주지 거주 이유</li> <li>○ 거주지역 만족도</li> </ul> <p><b>&lt;복지 부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서비스</li> <li>○ 영·유아 보육 지원</li> <li>○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 요인</li> <li>○ 자녀 안전사고 유형 및 장소</li> </ul>	

## II. 2021년 경남 사회조사 결과

1. 주거와 교통 부문
2. 문화와 여가 부문
3. 일자리 노동 부문
4. 소득과 소비 부문
5. 교육 부문
6. 부가조사



# 1. 주거와 교통

## < 조사항목별 요약 >

### 1)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 횟수

○ 경남도민은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횟수는 '1번 이사'가 21.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3번 이사' 18.4%, '2번 이사' 17.4%, '6번 이상 이사'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 지역거주기간 및 향후 정주 의사

○ 경남도민의 경상남도에 거주한 기간은 '20~30년 미만'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년 미만'이 15.7%, '30~40년 미만'이 14.1%, '40~50년 미만'이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경남도내 시군에 거주한 기간은 '20~30년 미만'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년 미만'이 17.4%, '9년 이하'가 15.1%, '30~40년 미만'이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향후 10년 이후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정주의사는 '그렇다'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23.1%, '그렇지 않다'가 12.0%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향후 10년 이후에도 경상남도에 정주의사는 '그렇다'가 66.4%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23.7%, '그렇지 않다'가 9.8% 순으로 나타남

### 3) 주거환경 만족도

○ 경남도민의 주택 만족도는 '만족'이 51.0%로 나타났고, '보통' 39.5%, '불만족'이 13.4%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기반시설 만족도는 '만족'이 48.4%로 나타났고, '보통' 39.9%, '불만족'이 11.7%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주차장 이용 만족도는 '만족'이 35.5%로 나타났고, '보통' 38.3%, '불만족'이 24.5%, '잘모름' 1.7% 순으로 나타남

### 4)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및 소속감

○ 경남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자랑스럽다'가 67.5%로 나타났고, '자랑스럽지 않다' 38.1%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은 '있다'가 61.3%로 나타났고, '없다' 38.7%로 나타남

## 5)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견해

- 경남도민의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는 ‘살기 좋은 곳이다’가 56.3%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34.6%, ‘살기 나쁜 곳이다’ 5.9%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향후 1~2년 뒤의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는 ‘살기 좋게 될 것이다’가 53.3%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40.3%, ‘살기 나쁘게 될 것이다’ 6.4%로 나타남

## 6) 통근통학 지역,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 경남도민의 통근통학 지역은 ‘시군내’가 8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내 타시군’이 8.8%, ‘부산’ 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승합차’가 57.2%로 나타났으며, ‘도보’ 17.6%, ‘시내, 좌석, 마을버스’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7) 교통수단 만족도

- 택시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32.3%, ‘보통’ 40.1%, ‘불만족’ 12.3%, ‘해당없음’ 15.4%로 나타남
- 지하철/경전철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10.7%, ‘보통’ 10.4%, ‘불만족’ 4.5%, ‘해당없음’ 74.4%로 나타남
- KTX/일반철도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16.6%, ‘보통’ 18.6%, ‘불만족’ 7.6%, ‘해당없음’ 57.2%로 나타남
- 시외버스/고속버스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27.5%, ‘보통’ 34.9%, ‘불만족’ 9.3%, ‘해당없음’ 28.3%로 나타남
- 시내버스/마을버스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28.3%, ‘보통’ 35.9%, ‘불만족’ 20.3%, ‘해당없음’ 15.6%로 나타남
-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버스노선 부족’이 52.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운전기사 불친절’ 13.3%, ‘배차간격 미준수’와 ‘난폭운전’이 각각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버스도착 안내정보’가 28.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버스시설 편리’ 23.4%, ‘타 수단에 비해 저렴’이 2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8)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

-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충’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 교통 확충’이 28.9%, ‘도로망 개선’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9) 지역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

- 지역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전자/보행자 안전의식’이 25.2%, ‘과속/신호위반 단속’ 16.1%, ‘음주운전 단속’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 보행만족도

- 경남도민의 주거지역 인근 보행만족도는 ‘만족’이 37.7%로 나타났고, ‘불만족’ 13.9%, ‘보통’ 48.4%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시내(읍내)지역 보행만족도는 ‘만족’이 30.3%로 나타났고, ‘불만족’ 15.8%, ‘보통’ 53.9%로 나타남





# 1)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 횟수

## 결혼 후 내 집 마련까지 이사 횟수

**문항** 귀댁은 결혼 후 최초로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이사를 몇 번 하였습니다습니까?

○ 경남도민은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횟수는 '1번 이사'가 21.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3번 이사' 18.4%, '2번 이사' 17.4%, '6번 이상 이사'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결혼 후 내 집 마련까지 이사 횟수에 대하여 시 지역은 '1번 이사'가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 지역 또한 '1번 이사'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결혼 후 내 집 마련까지 이사 횟수는 남자와 여자 모두 '1번 이사'가 각각 22.1%,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 결혼 후 내 집 마련까지 이사 횟수



<표 1> 결혼 후 내 집 마련까지 이사 횟수

(단위 : %, 회)

구분	합계	이사 안함	1번 이사	2번 이사	3번 이사	4번 이사	5번 이사	6번 이상 이사	평균 이사 횟수	
2018	100.0	12.8	18.4	17.7	17.5	9.5	8.5	15.6	3.4	
2021	100.0	7.2	21.6	17.4	18.4	9.3	9.5	16.6	3.5	
지역별	시 지역	100.0	5.7	19.4	16.9	19.3	10.2	10.2	18.3	3.7
	군 지역	100.0	13.5	30.9	19.5	14.6	5.7	6.4	9.3	2.5
성별	남 자	100.0	7.0	22.1	18.1	19.1	9.5	8.6	15.7	3.4
	여 자	100.0	7.7	20.4	15.6	16.9	9.1	11.4	18.9	3.8
연령별	15~19세	100.0	-	-	-	-	-	-	-	-
	20~29세	100.0	26.7	30.1	18.0	11.3	5.6	0.0	8.4	2.2
	30~39세	100.0	13.8	44.3	20.6	15.0	3.9	0.9	1.6	1.6
	40~49세	100.0	8.4	27.3	25.2	19.7	8.3	5.6	5.5	2.4
	50~59세	100.0	3.4	17.8	19.1	24.2	11.6	10.0	13.9	3.4
	60세 이상	100.0	7.5	19.0	14.1	16.2	9.4	11.3	22.5	4.0
	65세 이상	100.0	8.7	20.5	14.4	14.3	8.3	11.1	22.6	4.0

## 2) 지역거주기간 및 향후 정주 의사

### ▣ 경상남도 거주기간

문항 귀하는 경상남도에 사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총 거주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남도민의 경상남도에 거주한 기간은 ‘20~30년 미만’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년 미만’이 15.7%, ‘30~40년 미만’이 14.1%, ‘40~50년 미만’이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경상남도 거주기간의 경우 시 지역은 ‘20~30년 미만’이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년 미만’ 16.4%, ‘30~40년 미만’이 14.8% 등의 순이며 군 지역은 ‘50~60년 미만’과 ‘20~30년 미만’이 각각 12.9%, ‘60~70년 미만’이 12.3%, ‘70~80년 미만’이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경상남도 거주기간



<표 2-1> 경상남도 거주기간

(단위 : %)

구분	합계	9년 이하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60년 미만	60~70년 미만	70~80년 미만	80년 이상	
<b>2021</b>	<b>100.0</b>	<b>11.8</b>	<b>15.7</b>	<b>18.4</b>	<b>14.1</b>	<b>12.8</b>	<b>10.3</b>	<b>8.1</b>	<b>5.8</b>	<b>2.9</b>	
지역별	시 지역	100.0	12.5	16.4	19.4	14.8	13.1	9.8	7.3	4.7	1.8
	군 지역	100.0	7.7	11.4	12.9	10.0	11.1	12.9	12.3	12.2	9.4
성별	남 자	100.0	12.3	15.9	19.1	14.3	13.0	10.8	7.5	5.2	2.0
	여 자	100.0	11.4	15.5	17.7	14.0	12.6	9.8	8.6	6.5	3.9
연령별	15~19세	100.0	8.2	91.0	0.8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13.8	12.6	73.4	0.3	0.0	0.0	0.0	0.0	0.0
	30~39세	100.0	26.3	13.7	10.5	49.1	0.4	0.0	0.0	0.0	0.0
	40~49세	100.0	14.8	18.7	11.9	8.8	45.5	0.2	0.0	0.0	0.0
	50~59세	100.0	7.6	11.0	16.8	15.0	8.1	41.3	0.2	0.0	0.0
	60세 이상	100.0	6.2	5.6	7.0	9.8	9.3	6.8	26.5	19.2	9.6
	65세 이상	100.0	5.7	5.1	5.8	7.0	9.3	6.2	21.2	26.4	13.3

## 경남도내 시군 거주기간

문항 귀하는 시군에 사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총 거주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남도민의 경남도내 시군에 거주한 기간은 '20~30년 미만'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년 미만'이 17.4%, '9년 이하'가 15.1%, '30~40년 미만'이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경상남도 거주기간의 경우 시 지역은 '20~30년 미만'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년 미만' 18.0%, '9년 이하'가 15.8% 등의 순이며 군 지역은 '10~20년 미만'이 13.8%, '20~30년 미만'이 13.3%, '50~60년 미만'과 '9년 이하'가 각각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경남도내 시군 거주기간



<표 2-2> 경남도내 시군 거주기간

(단위 : %)

구분	합계	9년 이하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60년 미만	60~70년 미만	70~80년 미만	80년 이상	
2021	100.0	15.1	17.4	18.8	14.1	12.1	8.8	6.5	4.8	2.4	
지역별	시 지역	100.0	15.8	18.0	19.7	14.9	12.5	8.4	5.8	3.7	1.4
	군 지역	100.0	11.4	13.8	13.3	9.4	10.0	11.4	10.8	11.1	8.7
성별	남 자	100.0	15.9	17.4	19.2	14.0	12.0	9.3	6.2	4.3	1.7
	여 자	100.0	14.3	17.4	18.4	14.1	12.2	8.3	6.9	5.2	3.2
연령별	15~19세	100.0	10.4	88.8	0.8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18.2	14.5	67.1	0.2	0.0	0.0	0.0	0.0	0.0
	30~39세	100.0	32.0	15.3	10.3	42.1	0.3	0.0	0.0	0.0	0.0
	40~49세	100.0	17.9	21.3	13.7	8.6	38.3	0.1	0.0	0.0	0.0
	50~59세	100.0	10.6	13.0	18.5	17.3	7.7	32.7	0.2	0.0	0.0
	60세 이상	100.0	8.5	7.1	8.6	11.3	11.7	7.5	21.5	15.7	8.0
	65세 이상	100.0	7.8	6.6	7.2	8.6	11.8	7.6	17.8	21.6	11.1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정주의사

**문항**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까?

○ 경남도민의 향후 10년 이후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정주의사는 ‘그렇다’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23.1%, ‘그렇지 않다’가 12.0%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경남도민의 시군에 정주의사에 대한 ‘그렇다’의 비율은 시 지역(63.0%)이 군 지역(75.9%)에 비해 12.9%p 낮게 나타남
- 연령별 경남도민의 시군에 정주의사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65세 이상’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19세’가 33.8%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정주의사



〈표 2-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정주의사

(단위 : %)

구분	합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b>2021</b>	<b>100.0</b>	<b>12.0</b>	<b>23.1</b>	<b>64.9</b>	
지역별	시 지역	100.0	12.5	24.5	63.0
	군 지역	100.0	9.4	14.8	75.9
성별	남 자	100.0	12.5	24.1	63.4
	여 자	100.0	11.5	22.1	66.4
연령별	15~19세	100.0	34.2	32.0	33.8
	20~29세	100.0	25.8	35.3	38.8
	30~39세	100.0	13.9	31.6	54.5
	40~49세	100.0	10.8	26.4	62.8
	50~59세	100.0	8.9	21.1	70.0
	60세 이상	100.0	4.2	11.9	84.0
	65세 이상	100.0	3.1	10.7	86.3

## 경상남도 정주의사

문항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경상남도에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까?

○ 경남도민의 향후 10년 이후에도 경상남도에 정주의사는 ‘그렇다’가 66.4%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23.7%, ‘그렇지 않다’가 9.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경남도민의 경상남도 정주의사에 대한 ‘그렇다’의 비율은 시 지역(49.3%)이 군 지역(44.0%)에 비해 5.3%p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경남도민의 경상남도 정주의사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65세 이상’이 8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19세’가 33.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경상남도 정주의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2%p 감소함

<그림 2-4> 경상남도 정주의사



<표 2-4> 경상남도 정주의사

(단위 : %)

구분	합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2018	100.0	4.2	17.3	78.6
2021	100.0	9.8	23.7	66.4
지역별	시 지역	10.3	25.2	64.6
	군 지역	7.4	15.6	77.0
성별	남 자	10.3	24.7	65.1
	여 자	9.4	22.8	67.8
연령별	15~19세	29.2	37.1	33.8
	20~29세	22.1	37.5	40.4
	30~39세	11.1	32.2	56.6
	40~49세	8.7	26.5	64.8
	50~59세	7.0	21.2	71.8
	60세 이상	3.2	11.8	85.0
	65세 이상	2.4	10.7	86.9

### 3) 주거환경 만족도

#### 주택 만족도

문항      귀하는 현재 주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경남도민의 주택 만족도는 ‘만족’이 47.2%로 나타났고, ‘보통’ 39.5%, ‘불만족’이 13.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경남도민의 주택 만족도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시 지역(46.4%)이 군 지역(51.5%)에 비해 5.1%p 낮게 나타남
- 연령별 경남도민의 주택 만족도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65세 이상’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9세’가 40.2%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3-1> 주택 만족도



<표 3-1> 주택 만족도

(단위 : %)

구분	합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18	100.0	11.7	2.2	9.5	37.3	51.0	35.3	15.7	
2021	100.0	13.4	2.8	10.6	39.5	47.2	31.2	16.0	
지역별	시 지역	100.0	13.5	2.8	10.7	40.0	46.4	30.4	16.0
	군 지역	100.0	12.5	2.4	10.1	36.1	51.5	35.9	15.6
성별	남 자	100.0	13.4	2.9	10.5	40.0	46.6	30.7	15.9
	여 자	100.0	13.4	2.6	10.8	38.9	47.6	31.6	16.0
연령별	15~19세	100.0	11.6	1.9	9.7	43.2	45.3	28.1	17.2
	20~29세	100.0	16.6	3.7	12.9	43.1	40.2	26.9	13.3
	30~39세	100.0	12.4	2.6	9.8	41.6	46.0	31.6	14.4
	40~49세	100.0	13.2	2.4	10.8	39.9	46.9	29.1	17.8
	50~59세	100.0	15.2	3.5	11.7	39.2	45.6	30.2	15.4
	60세 이상	100.0	11.7	2.3	9.4	36.2	52.2	35.3	16.9
	65세 이상	100.0	10.9	1.9	9.0	35.8	53.3	36.0	17.3

## 기반시설 만족도

문항 귀하는 현재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경남도민의 기반시설 만족도는 ‘만족’이 48.4%로 나타났고, ‘보통’ 39.9%, ‘불만족’이 11.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경남도민의 기반시설 만족도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시 지역(49.3%)이 군 지역(44.0%)에 비해 5.3%p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경남도민의 기반시설 만족도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65세 이상’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9세’가 44.6%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3-2> 기반시설 만족도



<표 3-2> 기반시설 만족도

(단위 : %)

구분	합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b>2021</b>	<b>100.0</b>	<b>11.7</b>	<b>3.2</b>	<b>8.5</b>	<b>39.9</b>	<b>48.4</b>	<b>32.3</b>	<b>16.1</b>	
지역별	시 지역	100.0	11.5	3.3	8.2	39.3	49.3	32.4	16.9
	군 지역	100.0	12.7	2.6	10.1	43.3	44.0	31.9	12.1
성별	남 자	100.0	12.0	3.3	8.7	39.7	48.2	31.9	16.3
	여 자	100.0	11.3	3.1	8.2	40.0	48.7	32.7	16.0
연령별	15~19세	100.0	9.1	1.7	7.4	46.0	44.9	29.3	15.6
	20~29세	100.0	12.5	3.3	9.2	42.9	44.6	30.1	14.5
	30~39세	100.0	11.9	3.4	8.5	41.4	46.7	30.1	16.6
	40~49세	100.0	11.3	3.4	7.9	39.0	49.7	31.7	18.0
	50~59세	100.0	12.5	3.7	8.8	38.1	49.4	32.7	16.7
	60세 이상	100.0	11.4	2.9	8.5	38.6	50.1	34.8	15.3
	65세 이상	100.0	10.6	2.8	7.8	39.0	50.4	34.8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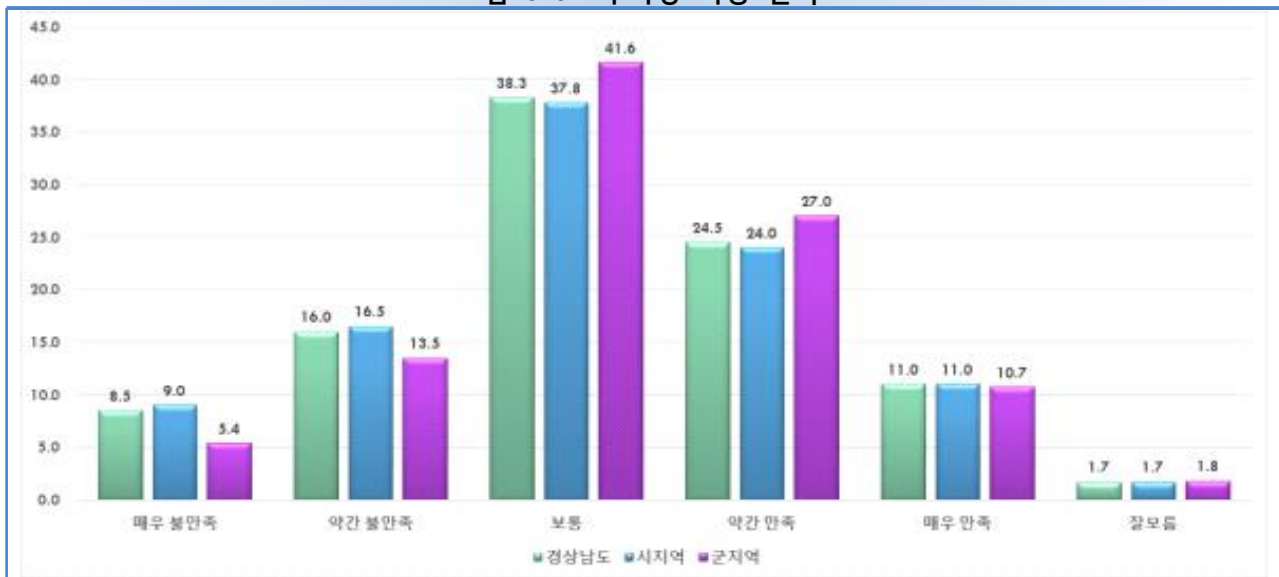
## 주차장 이용 만족도

문항

귀하는 현재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경남도민의 주차장 이용 만족도는 ‘만족’이 35.5%로 나타났고, ‘보통’ 38.3%, ‘불만족’이 24.5%, ‘잘모름’ 1.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경남도민의 주차장 이용 만족도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시 지역(35.0%)이 군 지역(37.7%)에 비해 2.2%p 낮게 나타남
- 연령별 경남도민의 주차장 이용 만족도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65세 이상’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9세’가 28.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타 주거환경 만족도에 비해 주차장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주차장 이용 만족도



<표 3-3> 주차장 이용 만족도

(단위 : %)

구분	합계	불만족	만족		보통	만족	만족		잘모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b>2021</b>	<b>100.0</b>	<b>24.5</b>	<b>8.5</b>	<b>16.0</b>	<b>38.3</b>	<b>35.5</b>	<b>24.5</b>	<b>11.0</b>	<b>1.7</b>	
지역별	시 지역	100.0	25.5	9.0	16.5	37.8	35.0	24.0	11.0	1.7
	군 지역	100.0	18.9	5.4	13.5	41.6	37.7	27.0	10.7	1.8
성별	남 자	100.0	25.4	9.2	16.2	38.6	34.7	23.9	10.8	1.2
	여 자	100.0	23.5	7.7	15.8	38.1	36.2	25.0	11.2	2.2
연령별	15~19세	100.0	17.9	5.6	12.3	42.7	31.1	21.3	9.8	8.2
	20~29세	100.0	27.4	8.9	18.5	42.0	28.4	19.2	9.2	2.2
	30~39세	100.0	29.5	11.6	17.9	36.9	33.3	24.0	9.3	0.3
	40~49세	100.0	28.3	10.5	17.8	35.7	35.8	24.4	11.4	0.2
	50~59세	100.0	26.8	9.9	16.9	36.3	36.4	25.0	11.4	0.5
	60세 이상	100.0	18.4	5.2	13.2	39.5	39.3	27.1	12.2	2.6
	65세 이상	100.0	16.3	4.3	12.0	40.8	39.7	27.0	12.7	3.3

#### 4)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및 소속감

##### 자부심

**문항** 귀하는 경상남도의 도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 경남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자랑스럽다’가 67.5%로 나타났고, ‘자랑스럽지 않다’ 32.4%로 나타남
- 지역별 경남도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자랑스럽다’의 비율은 시 지역(66.3%)이 군 지역(75.1%)에 비해 8.8%p 낮게 나타남
- 연령별 경남도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자랑스럽다’의 비율은 ‘65세 이상’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9세’가 54.8%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1>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표 4-1>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단위 : %)

구분	합계	자랑스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약간 자랑스럽다	매우 자랑스럽다			
2018	100.0	38.1	2.2	35.9	62.0	53.1	8.9	
2021	100.0	32.4	2.1	30.3	67.5	56.9	10.6	
지역별	시 지역	100.0	33.7	2.2	31.5	66.3	56.1	10.2
	군 지역	100.0	25.0	1.4	23.6	75.1	62.0	13.1
성별	남 자	100.0	33.6	2.5	31.1	66.4	55.4	11.0
	여 자	100.0	31.2	1.7	29.5	68.8	58.5	10.3
연령별	15~19세	100.0	40.8	2.2	38.6	59.1	52.0	7.1
	20~29세	100.0	44.8	3.8	41.0	55.1	47.6	7.5
	30~39세	100.0	45.1	3.1	42.0	54.8	47.9	6.9
	40~49세	100.0	38.2	2.6	35.6	61.8	53.4	8.4
	50~59세	100.0	29.4	1.6	27.8	70.6	59.7	10.9
	60세 이상	100.0	18.5	0.9	17.6	81.4	66.0	15.4
	65세 이상	100.0	16.4	0.7	15.7	83.6	67.3	16.3

## 소속감

문항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동네(읍면동)에 대해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낍니까?

○ 경남도민의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은 ‘있다’가 61.3%로 나타났고, ‘없다’ 38.7%로 나타남

- 지역별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소속감에 대한 ‘있다’의 비율은 시 지역(59.6%)이 군 지역(71.5%)에 비해 11.9%p 낮게 나타남
- 연령별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소속감에 대한 ‘있다’의 비율은 ‘65세 이상’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9세’가 46.4%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2>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표 4-2>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단위 : %)

구분	합계	없다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있다	다소 있다	매우 있다	
2018	100.0	46.6	5.0	41.6	53.4	46.3	7.1	
2021	100.0	38.7	4.1	34.6	61.3	50.3	11.0	
지역별	시 지역	100.0	40.4	4.3	36.1	59.6	49.6	10.0
	군 지역	100.0	28.5	2.8	25.7	71.5	54.5	17.0
성별	남 자	100.0	41.6	4.9	36.7	58.4	47.8	10.6
	여 자	100.0	35.8	3.4	32.4	64.3	52.9	11.4
연령별	15~19세	100.0	48.9	6.5	42.4	51.2	42.9	8.3
	20~29세	100.0	53.7	8.9	44.8	46.4	38.4	8.0
	30~39세	100.0	51.9	5.5	46.4	48.1	42.1	6.0
	40~49세	100.0	45.2	4.0	41.2	54.7	46.8	7.9
	50~59세	100.0	36.1	2.5	33.6	64.0	53.7	10.3
	60세 이상	100.0	22.5	2.2	20.3	77.5	60.2	17.3
	65세 이상	100.0	20.5	2.0	18.5	79.5	60.5	19.0

## 5)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견해

### ▣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문항**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전반적으로 살기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의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는 ‘살기 좋은 곳이다’가 56.3%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34.6%, ‘살기 나쁜 곳이다’ 5.9%로 나타남
- 지역별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에 대한 ‘살기 좋은 곳이다’의 비율은 시 지역(55.4%) 이 군 지역(61.9%)에 비해 6.5%p 낮게 나타남
- 연령별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65세 이상’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19세’가 42.7%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5-1>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표 5-1>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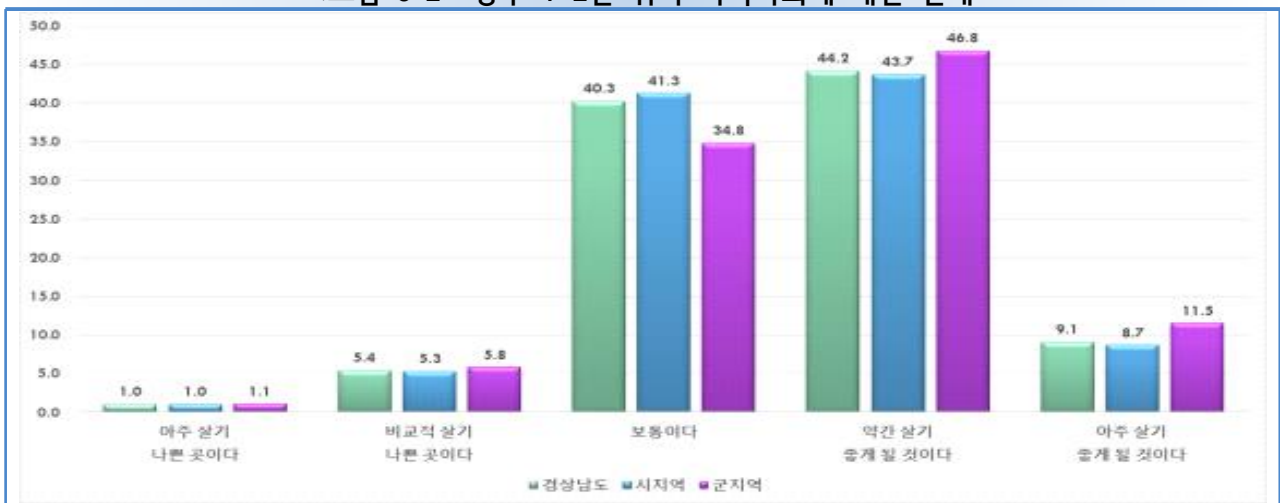
구분	합계	살기가 나쁜 곳이다	살기 나쁜 곳이다		보통이다	살기 좋은 곳이다	살기 좋은 곳이다		
			아주 살기 나쁜 곳이다	비교적 살기 나쁜 곳이다			비교적 살기 좋은 곳이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	
2018	100.0	5.9	1.1	4.2	34.6	60.0	53.1	6.9	
2021	100.0	5.9	0.8	5.1	37.7	56.3	46.9	9.4	
지역별	시 지역	100.0	5.9	0.8	5.1	38.7	55.4	46.4	9.0
	군 지역	100.0	6.1	0.9	5.2	32.0	61.9	49.9	12.0
성별	남 자	100.0	6.4	1.0	5.4	39.7	53.9	44.9	9.0
	여 자	100.0	5.6	0.7	4.9	35.8	58.7	48.8	9.9
연령별	15~19세	100.0	8.4	0.4	8.0	48.8	42.7	36.1	6.6
	20~29세	100.0	8.2	1.7	6.5	44.4	47.4	40.1	7.3
	30~39세	100.0	8.3	1.0	7.3	39.5	52.2	45.6	6.6
	40~49세	100.0	5.8	0.5	5.3	39.4	54.8	47.4	7.4
	50~59세	100.0	5.1	0.9	4.2	38.9	56.0	47.3	8.7
	60세 이상	100.0	4.2	0.6	3.6	30.4	65.3	51.6	13.7
	65세 이상	100.0	4.2	0.6	3.6	28.3	67.6	52.1	15.5

## 향후 1~2년 뒤의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문항**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향후 1~2년 뒤에는 지금보다 어떻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의 향후 1~2년 뒤의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는 ‘살기 좋게 될 것이다’가 53.3%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40.3%, ‘살기 나쁘게 될 것이다’ 6.4%로 나타남
- 지역별 향후 1~2년 뒤의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에 대한 ‘살기 좋은 곳이다’의 비율은 시 지역(55.4%)이 군 지역(61.9%)에 비해 6.5%p 낮게 나타남
- 연령별 향후 1~2년 뒤의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에 대한 ‘살기 좋게 될 것이다’의 비율은 ‘65세 이상’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19세’가 42.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5-2> 향후 1~2년 뒤의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표 5-2> 향후 1~2년 뒤의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분	합계	살기가 나쁘게 될 것이다	살기 나쁘게 될 것이다		보통이다	살기 좋게 될 것이다	살기 좋게 될 것이다		
			아주 살기가 나쁘게 될 것이다	비교적 살기가 나쁘게 될 것이다			비교적 살기 좋게 될 것이다	아주 살기 좋게 될 것이다	
2018	100.0	8.4	1.2	7.2	46.8	44.8	37.8	7.0	
2021	100.0	6.4	1.0	5.4	40.3	53.3	44.2	9.1	
지역별	시 지역	100.0	6.3	1.0	5.3	41.3	52.4	43.7	8.7
	군 지역	100.0	6.9	1.1	5.8	34.8	58.3	46.8	11.5
성별	남 자	100.0	6.7	1.0	5.7	42.4	50.8	42.2	8.6
	여 자	100.0	6.0	1.0	5.0	38.2	55.8	46.2	9.6
연령별	15~19세	100.0	8.6	1.0	7.6	48.4	42.9	35.8	7.1
	20~29세	100.0	9.5	1.7	7.8	46.7	43.8	37.0	6.8
	30~39세	100.0	7.8	1.0	6.8	42.9	49.4	42.6	6.8
	40~49세	100.0	6.1	0.9	5.2	42.1	51.9	43.9	8.0
	50~59세	100.0	5.0	1.0	4.0	41.2	53.9	45.5	8.4
	60세 이상	100.0	5.1	0.8	4.3	33.4	61.4	48.8	12.6
65세 이상	100.0	4.7	0.7	4.0	31.5	63.7	49.3	14.4	

## 6) 통근통학 지역,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 통근통학 지역

문항

귀하는 통근 또는 통학을 합니까?

통근 또는 통학을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경남도민의 통근통학 지역은 ‘시군내’가 8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내 타시군’이 8.8%, ‘부산’ 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통근통학 지역 중 ‘시군내’의 비율은 시 지역(81.8%)이 군 지역(92.2%)에 비해 10.4%p 낮게 나타남
- 성별 통근통학 지역 ‘시군내’의 비율은 남자(79.7%)가 여자(88.5%)에 비해 8.8%p 낮게 나타남

<그림 6-1> 통근통학 지역



<표 6-1> 통근통학 지역

(단위 : %)

구분	합계	통근 통학을 한다	평균 소요 시간 (편도)	통근·통학 지역						
				시군내	도내 타시군	부산	대구	전라	기타	
2018	100.0	65.4	23.8	85.6	8.8	4.5	0.2	0.1	0.7	
2021	100.0	62.0	23.0	83.3	9.4	5.9	0.1	0.1	1.2	
지역별	시 지역	100.0	62.2	24.6	81.8	9.9	6.8	0.1	0.1	1.4
	군 지역	100.0	60.7	13.9	92.2	6.8	0.2	0.3	0.4	0.2
성별	남 자	100.0	73.3	24.1	79.7	12.0	6.7	0.1	0.1	1.5
	여 자	100.0	50.5	21.5	88.5	5.7	4.8	0.1	0.1	0.9
연령별	15~19세	100.0	90.8	24.3	90.3	4.9	4.5	0.0	0.0	0.3
	20~29세	100.0	67.0	29.9	78.6	9.5	9.7	0.1	0.0	1.9
	30~39세	100.0	71.2	23.2	78.5	12.6	6.9	0.2	0.2	1.6
	40~49세	100.0	77.0	23.5	80.7	11.4	6.3	0.2	0.1	1.3
	50~59세	100.0	70.7	22.3	83.5	9.8	5.2	0.1	0.1	1.3
	60세 이상	100.0	35.8	17.2	90.9	5.4	2.9	0.0	0.0	0.6
	65세 이상	100.0	28.9	15.5	93.5	4.1	1.9	0.0	0.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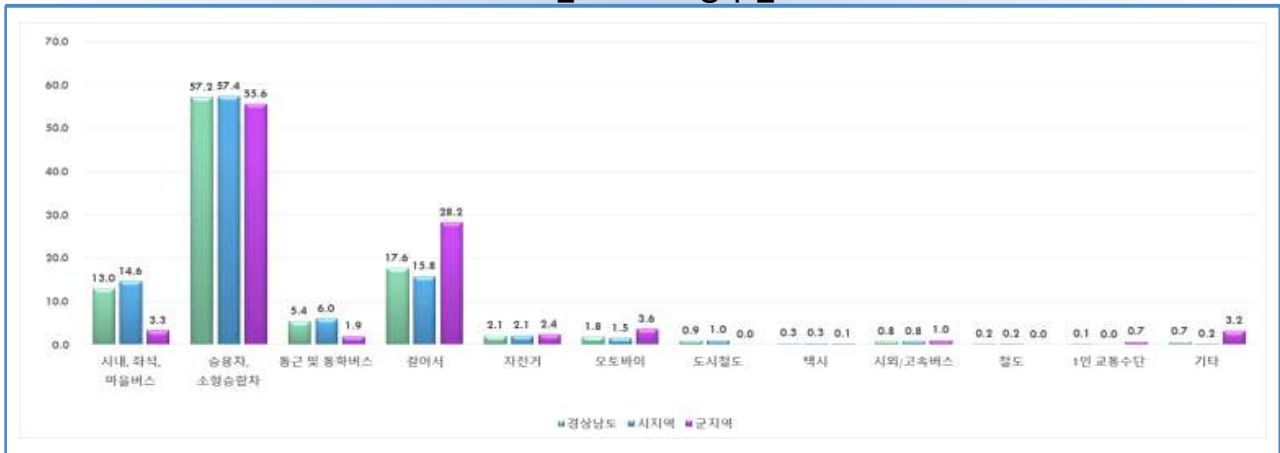
## 교통수단

문항

통근 또는 통학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의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승합차’가 57.2%로 나타났으며, ‘도보’ 17.6%, ‘시내, 좌석, 마을버스’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승용차·승합차’의 비율은 시 지역(57.4%)이 군 지역(55.6%)에 비해 1.8%p 높게 나타남
- 성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승용차·승합차’의 비율은 남자(65.2%)가 여자(45.4%)에 비해 19.8%p 높게 나타남

<그림 6-2> 교통수단



<표 6-2> 교통수단

(단위 : %)

구분	합계	시내, 좌석, 마을버스	승용차, 소형승합차	통근 및 통학버스	걸어서	자전거	오토바이	도시철도	택시	시외/고속버스	철도	1인 교통수단	기타	
2021	100.0	13.0	57.2	5.4	17.6	2.1	1.8	0.9	0.3	0.8	0.2	0.1	0.7	
지역별	시 지역	100.0	14.6	57.4	6.0	15.8	2.1	1.5	1.0	0.3	0.8	0.2	0.0	0.2
	군 지역	100.0	3.3	55.6	1.9	28.2	2.4	3.6	0.0	0.1	1.0	0.0	0.7	3.2
성별	남자	100.0	8.4	65.2	6.3	12.2	2.8	2.5	0.6	0.1	0.8	0.2	0.0	0.8
	여자	100.0	19.6	45.4	4.2	25.4	1.1	0.8	1.3	0.5	0.9	0.1	0.3	0.4
연령별	15~19세	100.0	42.7	11.5	9.3	30.0	2.0	0.2	1.4	0.3	2.4	0.2	0.0	0.1
	20~29세	100.0	29.0	37.5	7.1	14.7	2.6	1.3	3.0	0.7	3.4	0.5	0.0	0.2
	30~39세	100.0	7.1	72.5	5.5	10.1	1.9	1.6	0.4	0.2	0.3	0.1	0.1	0.2
	40~49세	100.0	7.0	72.2	5.4	11.3	1.3	1.5	0.7	0.2	0.1	0.1	0.0	0.2
	50~59세	100.0	6.6	68.2	5.4	14.7	1.9	1.6	0.3	0.2	0.3	0.1	0.1	0.6
	60세 이상	100.0	7.9	46.2	2.5	32.5	3.3	3.7	0.3	0.4	0.2	0.0	0.6	2.3
	65세 이상	100.0	7.7	37.8	2.2	39.5	3.3	4.9	0.3	0.3	0.4	0.0	1.0	2.8

## 7) 교통수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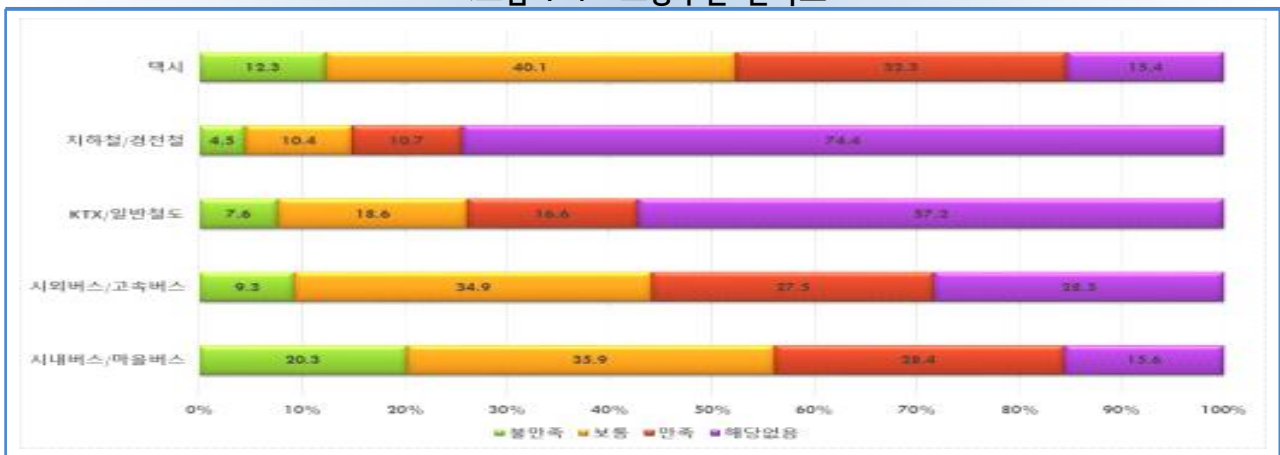
### ☒ 교통수단 만족도

문항

귀하는 지역의 교통수단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여 다음 각 교통수단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 택시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32.3%, ‘보통’ 40.1%, ‘불만족’ 12.3%, ‘해당없음’ 15.4%로 나타남
- 지하철/경전철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10.7%, ‘보통’ 10.4%, ‘불만족’ 4.5%, ‘해당없음’ 74.4%로 나타남
- KTX/일반철도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16.6%, ‘보통’ 18.6%, ‘불만족’ 7.6%, ‘해당없음’ 57.2%로 나타남
- 시외버스/고속버스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27.5%, ‘보통’ 34.9%, ‘불만족’ 9.3%, ‘해당없음’ 28.3%로 나타남
- 시내버스/마을버스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28.3%, ‘보통’ 35.9%, ‘불만족’ 20.3%, ‘해당없음’ 15.6%로 나타남
-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1> 교통수단 만족도



<표 7-1> 교통수단 만족도

(단위 : %)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해당없음
택시	12.3	40.1	32.3	15.4
지하철/경전철	4.5	10.4	10.7	74.4
KTX/일반철도	7.6	18.6	16.6	57.2
시외버스/고속버스	9.3	34.9	27.5	28.3
시내버스/마을버스	20.3	35.9	28.3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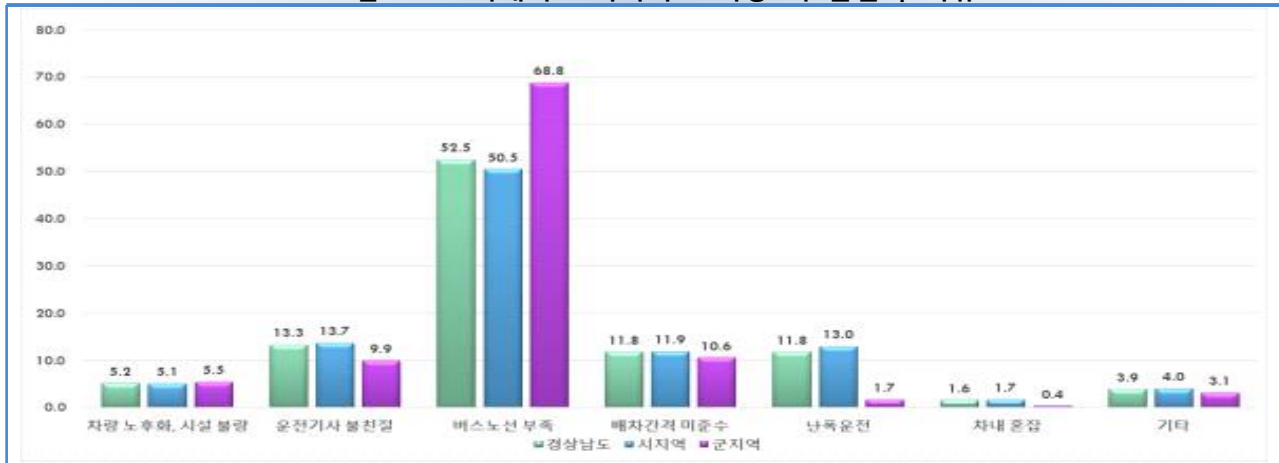
##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불만족 이유

문항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의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버스노선 부족’이 52.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운전기사 불친절’ 13.3%, ‘배차간격 미준수’와 ‘난폭운전’이 각각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불만족 주된 이유인 ‘버스노선 부족’의 지역별 비율은 시 지역(50.5%)이 군 지역(68.8%)에 비해 18.3%p 낮게 나타났으며, ‘난폭운전’에 관련해서는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그림 7-2>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불만족 이유



<표 7-2>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불만족 이유

(단위 : %)

구분	합계	차량 노후화, 시설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버스노선 부족	배차간격 미준수	난폭운전	차내 혼잡	기타	
2021	100.0	5.2	13.3	52.5	11.8	11.8	1.6	3.9	
지역별	시 지역	100.0	5.1	13.7	50.5	11.9	13.0	1.7	4.0
	군 지역	100.0	5.5	9.9	68.8	10.6	1.7	0.4	3.1
성별	남 자	100.0	5.3	12.7	53.5	11.9	11.3	1.9	3.4
	여 자	100.0	5.0	13.8	51.6	11.6	12.3	1.3	4.4
연령별	15~19세	100.0	6.0	11.7	52.9	10.6	7.2	4.9	6.9
	20~29세	100.0	4.8	14.5	47.7	12.8	14.0	1.6	4.7
	30~39세	100.0	5.7	12.3	51.2	9.1	14.3	2.1	5.3
	40~49세	100.0	4.4	13.3	54.0	11.3	13.4	1.4	2.2
	50~59세	100.0	5.5	14.9	52.0	13.4	9.9	0.6	3.7
	60세 이상	100.0	5.3	12.5	55.5	12.7	9.7	1.2	3.2
	65세 이상	100.0	5.2	13.3	58.3	11.3	7.9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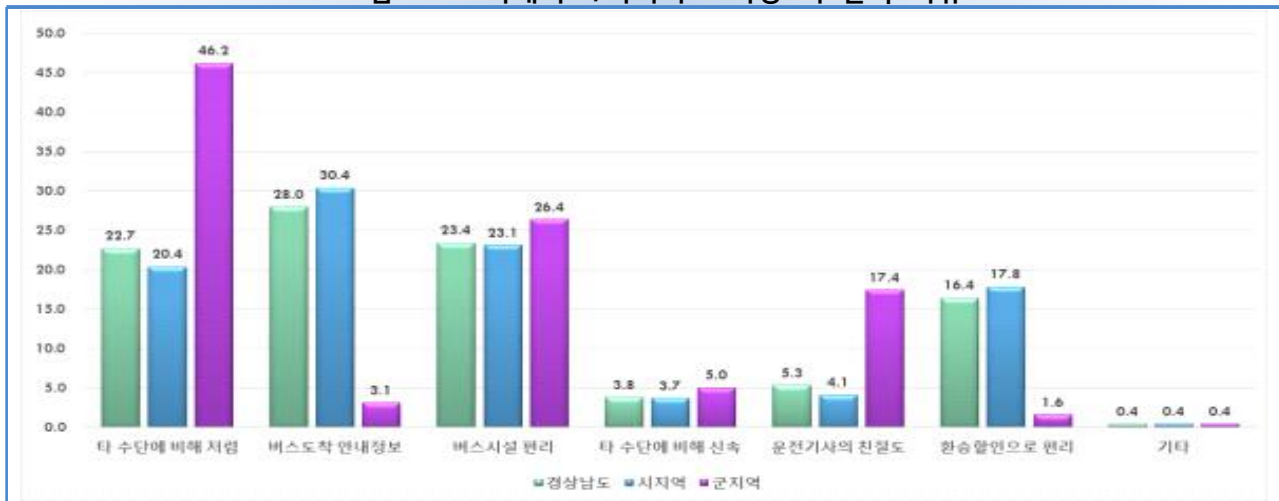
##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만족 이유

문항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의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버스도착 안내정보’가 28.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버스시설 편리’ 23.4%, ‘타 수단에 비해 저렴’이 2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만족의 주된 이유는 시 지역은 ‘버스도착 안내정보’ 30.4%로 나타났고, 군 지역은 ‘타 수단에 비해 저렴’이 46.2%로 나타났으며, ‘버스도착 안내정보’와 ‘운전기사의 친절도’에서 시 지역과 군 지역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임

<그림 7-3>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만족 이유



<표 7-3> 시내버스/시외버스 이용 시 만족 이유

(단위 : %)

구분	합계	타 수단에 비해 저렴	버스도착 안내정보	버스시설 편리	타 수단에 비해 신속	운전기사의 친절도	환승할인으로 편리	기타	
2021	100.0	22.7	28.0	23.4	3.8	5.3	16.4	0.4	
지역별	시 지역	100.0	20.4	30.4	23.1	3.7	4.1	17.8	0.4
	군 지역	100.0	46.2	3.1	26.4	5.0	17.4	1.6	0.4
성별	남 자	100.0	22.2	29.8	22.4	3.9	4.4	16.8	0.4
	여 자	100.0	23.1	26.3	24.3	3.7	6.1	16.0	0.5
연령별	15~19세	100.0	32.6	30.8	19.5	2.4	2.0	12.7	0.0
	20~29세	100.0	22.5	31.0	20.5	4.8	2.2	17.9	1.0
	30~39세	100.0	21.7	36.1	17.8	3.6	3.8	17.0	0.0
	40~49세	100.0	16.7	38.8	21.7	3.3	3.8	15.1	0.6
	50~59세	100.0	21.3	31.5	21.5	3.2	4.5	17.4	0.6
	60세 이상	100.0	24.6	17.7	28.5	4.2	8.4	16.2	0.3
	65세 이상	100.0	26.6	15.2	28.5	4.2	9.4	15.7	0.4

## 8)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

###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

**문항**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교통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충’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교통 확충’이 28.9%, ‘도로망 개선’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시 지역은 ‘주차시설 확충’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군 지역은 ‘대중교통 확충’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8>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



<표 8>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

(단위 : %)

구분	합계	대중교통 확충	도로망 개선	도로시설물 개선	주차시설 확충	교통질서 의식개선	기 타	
2018	100.0	30.3	18.5	6.3	34.0	9.5	1.3	
2021	100.0	28.9	19.8	5.8	30.5	13.6	1.3	
지역별	시 지역	100.0	28.5	19.0	5.4	32.5	13.3	1.3
	군 지역	100.0	31.2	24.4	8.6	19.0	15.6	1.3
성별	남 자	100.0	25.9	21.8	5.8	31.7	13.4	1.4
	여 자	100.0	31.8	17.9	5.8	29.4	13.8	1.3
연령별	15~19세	100.0	38.5	17.4	5.2	19.1	18.7	1.1
	20~29세	100.0	33.8	15.9	5.5	29.0	14.4	1.5
	30~39세	100.0	24.9	20.7	4.6	35.2	12.7	1.8
	40~49세	100.0	26.2	19.2	4.6	36.9	11.9	1.2
	50~59세	100.0	24.3	20.9	5.2	35.6	13.1	1.0
	60세 이상	100.0	31.4	21.2	7.8	24.0	14.1	1.4
	65세 이상	100.0	33.4	21.3	8.1	21.5	14.6	1.2

## 9) 지역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

### 지역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

**문항**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교통안전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지역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전자/보행자 안전의식’이 25.2%, ‘과속/신호위반 단속’ 16.1%, ‘음주운전 단속’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시 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군 지역은 ‘운전자/보행자 안전의식’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9> 지역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



<표 9> 지역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

(단위 : %)

구분	합계	과속/신호위반 단속	음주운전 단속	운전자/보행자 안전의식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고령운전자 대책	불법주정차 근절	교통안전 시설 개선	기타	
<b>2021</b>	<b>100.0</b>	<b>16.1</b>	<b>10.1</b>	<b>25.2</b>	<b>3.1</b>	<b>7.5</b>	<b>28.0</b>	<b>8.9</b>	<b>1.2</b>	
지역별	시 지역	100.0	16.1	10.2	24.2	3.1	6.9	29.7	8.6	1.2
	군 지역	100.0	15.8	9.0	31.3	2.9	11.1	18.0	10.8	1.1
성별	남자	100.0	15.5	9.9	24.3	2.7	7.5	29.5	9.0	1.5
	여자	100.0	16.6	10.2	26.2	3.4	7.5	26.4	8.8	0.9
연령별	15~19세	100.0	21.8	9.9	27.1	3.8	4.2	24.5	7.4	1.3
	20~29세	100.0	17.3	11.6	24.1	2.6	6.3	30.0	6.7	1.5
	30~39세	100.0	13.2	8.8	23.4	6.9	5.7	33.4	6.9	1.8
	40~49세	100.0	14.6	8.4	24.4	4.5	7.2	31.5	8.3	1.1
	50~59세	100.0	14.1	10.1	25.4	1.4	7.9	28.8	11.0	1.2
	60세 이상	100.0	18.0	11.0	26.6	1.6	9.3	22.6	9.9	0.9
	65세 이상	100.0	18.9	11.3	26.7	1.7	9.9	21.3	9.5	0.7

## 10) 보행만족도

### 보행만족도

문항 귀하는 주거지역 인근 또는 시내(읍내)에서 걸어 다니는데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경남도민의 주거지역 인근 보행만족도는 ‘만족’이 37.7%로 나타났고, ‘불만족’ 13.9%, ‘보통’ 48.4%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시내(읍내)지역 보행만족도는 ‘만족’이 30.3%로 나타났고, ‘불만족’ 15.8%, ‘보통’ 53.9%로 나타남
- 지역별 보행만족도의 ‘불만족’은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주거지역 인근과 시내(읍내) 지역 모두 각각 4.5%p, 3.1%p 높게 나타남

<그림 10> 보행만족도



<표 10> 보행만족도

(단위 : %)

구분	합계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					시내(읍내)지역 보행환경 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18	200.0	3.1	10.9	43.7	33.2	9.0	3.1	11.7	50.0	28.5	6.7	
2021	200.0	3.0	10.9	48.4	28.0	9.7	3.5	12.3	53.9	23.5	6.8	
지역별	시 지역	200.0	2.8	10.4	48.7	27.9	10.2	3.1	12.2	54.4	23.2	7.1
	군 지역	200.0	4.0	13.7	46.9	28.2	7.2	5.5	12.9	51.1	25.0	5.6
성별	남 자	200.0	3.0	10.6	49.9	26.9	9.6	3.6	11.4	54.9	23.0	7.1
	여 자	200.0	3.0	11.2	46.9	29.0	9.9	3.4	13.2	52.9	23.9	6.6
연령별	15~19세	200.0	3.1	11.3	49.1	25.7	10.8	3.5	11.4	53.3	25.1	6.8
	20~29세	200.0	3.2	11.0	47.8	27.1	11.0	3.3	12.0	52.4	23.9	8.4
	30~39세	200.0	4.3	13.8	46.4	25.5	10.0	4.1	13.8	53.7	21.7	6.7
	40~49세	200.0	3.4	9.4	48.9	27.7	10.7	3.9	11.1	55.0	22.5	7.5
	50~59세	200.0	2.7	9.6	49.6	29.2	8.8	3.3	11.0	55.9	24.0	5.8
	60세 이상	200.0	2.3	11.3	48.3	29.2	9.0	3.1	13.5	52.8	24.0	6.6
	65세 이상	200.0	2.1	11.7	47.3	29.8	9.1	3.2	13.9	51.7	24.4	6.8

## 2. 문화와 여가

### < 조사항목별 요약 >

#### 11)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경남도민은 생활시간의 부족정도에 대하여 평일의 경우 ‘그렇다’가 53.9%, ‘그렇지 않다’가 46.1%로 나타남
- 경남도민은 생활시간의 부족정도에 대하여 주말의 경우 ‘그렇다’가 42.8%, ‘그렇지 않다’가 57.2%로 나타남

#### 12)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 주말과 공휴일의 여가활동은 ‘TV시청’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휴식’ 14.9%,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8.9%, ‘취미, 자기개발 활동’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3) 여가활동 만족도

-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3.9%로 나타났고, ‘불만족’ 30.5%, ‘보통’ 55.6%로 나타남
-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3.6%로 나타났고, ‘불만족’ 27.4%, ‘보통’ 59.1%로 나타남

#### 14)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여부는 20.8%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영화’가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 20.2%, ‘박물관’ 15.9%, ‘미술관’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5)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

- 경남도민의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는 ‘찬성’이 58.3%로 나타났으며, ‘반대’ 15.4%, ‘모름’ 26.3%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찬성 이유는 ‘문화 향후 기회 제공’이 45.4%로 가장 높았고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가 38.2%, ‘주민화합에 기여’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반대 이유는 ‘진부하고 변화없는 문화제 행사’가 34.9%로 가장 높았고 ‘예산낭비 등 과소비 풍토조장’이 32.7%, ‘교통혼잡 등 질서문란’ 2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6) 도내 관광 경험 및 개선할 점

- 도내 관광 여부는 ‘있다’가 36.8%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시 지역(40.0%)이 군 지역(18.0%)보다 22.0%p 높게 나타남
- 경남도민의 관광지 정보획득 경로는 ‘인터넷, 모바일 웹’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인 소개’가 19.3%, ‘TV,신문’ 6.5%, ‘관광안내 서적’ 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관광지 선택 이유는 ‘다양한 볼거리’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동거리 및 교통편이 편해서’가 31.5%, ‘관광지 지명도’ 20.1%, ‘저렴한 관광경비’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관광지 선택 이유는 ‘다양한 채널의 관광정보 제공’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가지요금의 근절’이 20.6%, ‘음식점 위생개선 및 맛집 발굴 안내’가 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7) 타 지역민에게 경남 관광지 소개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경남의 관광지는 ‘남부해양관광권’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부산악권’이 20.4%, ‘동부산악권’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1)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생활시간의 부족정도

문항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 경남도민은 생활시간의 부족정도에 대하여 평일의 경우 ‘그렇다’가 53.9%, ‘그렇지 않다’가 46.1%로 나타남
- 경남도민은 생활시간의 부족정도에 대하여 주말의 경우 ‘그렇다’가 42.8%, ‘그렇지 않다’가 57.2%로 나타남
- 지역별 생활시간의 부족정도에 대해 평일과 주말 모두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부족정도가 각각 10.3%p, 7.9%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생활시간의 부족정도



<표 11> 생활시간의 부족정도

(단위 : %)

구분	합계	평 일				주말 · 공휴일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8	200.0	11.2	27.8	40.9	20.1	12.7	34.0	38.8	14.5
2021	200.0	13.4	32.7	39.9	14.0	16.0	41.2	33.8	9.0
지역별	시 지역	12.8	31.8	40.7	14.7	15.4	40.6	34.6	9.4
지역별	군 지역	17.2	37.7	35.2	9.9	18.9	45.0	29.1	7.0
성별	남 자	11.4	32.3	42.1	14.1	14.6	42.5	34.0	8.9
성별	여 자	15.5	33.0	37.7	13.8	17.3	40.0	33.6	9.1
연령별	15~19세	6.5	24.9	44.8	23.9	11.8	36.0	37.2	15.0
	20~29세	9.0	29.3	45.8	15.9	12.5	38.5	37.8	11.2
	30~39세	4.5	26.4	47.2	21.9	8.1	36.6	41.1	14.2
	40~49세	5.7	25.5	49.3	19.4	8.7	38.0	42.9	10.4
	50~59세	9.0	32.2	46.1	12.7	11.0	42.4	37.9	8.7
	60세 이상	28.1	42.9	23.6	5.4	29.2	46.7	20.0	4.1
65세 이상	33.0	44.7	18.6	3.7	34.0	47.6	15.5	3.0	



## 12)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문항

귀하는 평소 주말과 공휴일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 주말과 공휴일의 여가활동은 ‘TV시청’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휴식’ 13.9%,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12.4%, ‘스포츠 활동’ 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TV시청’ 비율은 시 지역(46.6%)이 군 지역(56.5%)에 비해 9.9%p 낮게 나타남

- 성별 ‘TV시청’ 비율은 남자(44.4%)가 여자(51.8%)에 비해 7.4%p 낮게 나타남

<그림 12> 주말과 휴일의 여가 활동



<표 12> 주말과 휴일의 여가 활동

(단위 : %)

구분	합계	TV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 개발 활동	휴식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8	100.0	31.0	6.8	1.0	1.5	6.3	5.9	7.9	7.0	27.0	3.7	1.9	
2021	100.0	48.1	1.7	0.5	0.5	7.5	4.6	12.4	7.0	13.9	2.2	1.5	
지역별	시 지역	100.0	46.6	1.8	0.6	0.6	7.8	5.0	13.0	7.0	13.8	2.3	1.6
	군 지역	100.0	56.5	0.9	0.3	0.3	5.7	2.2	8.9	7.4	14.9	1.8	1.1
성별	남 자	100.0	44.4	1.5	0.5	0.9	10.8	4.7	16.5	5.6	12.3	1.5	1.3
	여 자	100.0	51.8	1.9	0.6	0.2	4.2	4.6	8.2	8.5	15.6	2.9	1.7
연령별	15~19세	100.0	21.8	1.9	1.1	0.0	4.0	1.5	50.5	6.2	11.0	0.6	1.6
	20~29세	100.0	26.2	4.6	0.6	1.2	7.6	3.8	35.9	7.8	10.2	1.2	0.9
	30~39세	100.0	34.3	2.2	0.6	0.8	7.6	12.4	16.5	7.8	14.1	1.2	2.6
	40~49세	100.0	45.5	1.9	0.3	0.5	8.7	7.1	9.4	8.0	15.3	1.5	1.7
	50~59세	100.0	53.1	1.3	0.8	0.5	10.0	3.9	4.1	7.6	14.1	3.2	1.5
	60세 이상	100.0	66.4	0.4	0.3	0.3	5.6	1.1	1.0	5.7	15.0	3.1	1.1
	65세 이상	100.0	70.6	0.2	0.2	0.1	4.3	0.6	0.6	4.9	15.1	2.4	0.9

### 13) 여가활동 만족도

#### 여가활동 만족도

**문항**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 내 여가활동 여건과 현재의 여가활동 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3.9%로 나타났고, ‘불만족’ 30.5%, ‘보통’ 55.6%로 나타남

○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3.6%로 나타났고, ‘불만족’ 27.4%, ‘보통’ 59.1%로 나타남

- 지역별 문화여가시설과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모두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불만족’의 비율이 각각 3.1%p, 3.3%p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여가활동 만족도



<표 13>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

구분	합계	문화여가시설					전반적인 여가활동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b>2021</b>	<b>200.0</b>	<b>8.7</b>	<b>21.8</b>	<b>55.6</b>	<b>11.9</b>	<b>2.0</b>	<b>7.1</b>	<b>20.3</b>	<b>59.1</b>	<b>11.6</b>	<b>2.0</b>
지역별	시 지역	8.9	21.1	55.8	11.9	2.2	7.2	19.7	59.4	11.7	2.1
	군 지역	7.4	25.7	54.2	11.6	1.1	6.4	23.8	57.5	11.2	1.2
성별	남 자	8.1	21.4	55.6	12.6	2.3	6.6	19.4	59.5	12.3	2.1
	여 자	9.3	22.2	55.6	11.1	1.8	7.5	21.1	58.7	10.9	1.8
연령별	15~19세	10.1	22.3	55.7	9.1	2.7	7.9	22.1	59.0	9.0	2.0
	20~29세	11.1	24.2	49.3	12.5	2.9	8.7	22.2	53.6	12.5	2.9
	30~39세	12.9	26.3	46.4	12.1	2.3	10.4	24.3	52.4	11.1	1.8
	40~49세	10.6	21.8	53.4	11.8	2.4	8.7	20.2	57.8	10.9	2.4
	50~59세	7.9	20.8	56.8	12.8	1.7	6.4	19.8	59.0	13.2	1.6
	60세 이상	4.9	19.3	62.8	11.5	1.4	4.3	17.7	65.1	11.3	1.5
	65세 이상	4.4	18.9	64.5	10.7	1.5	4.2	17.2	66.2	10.8	1.6

## 14)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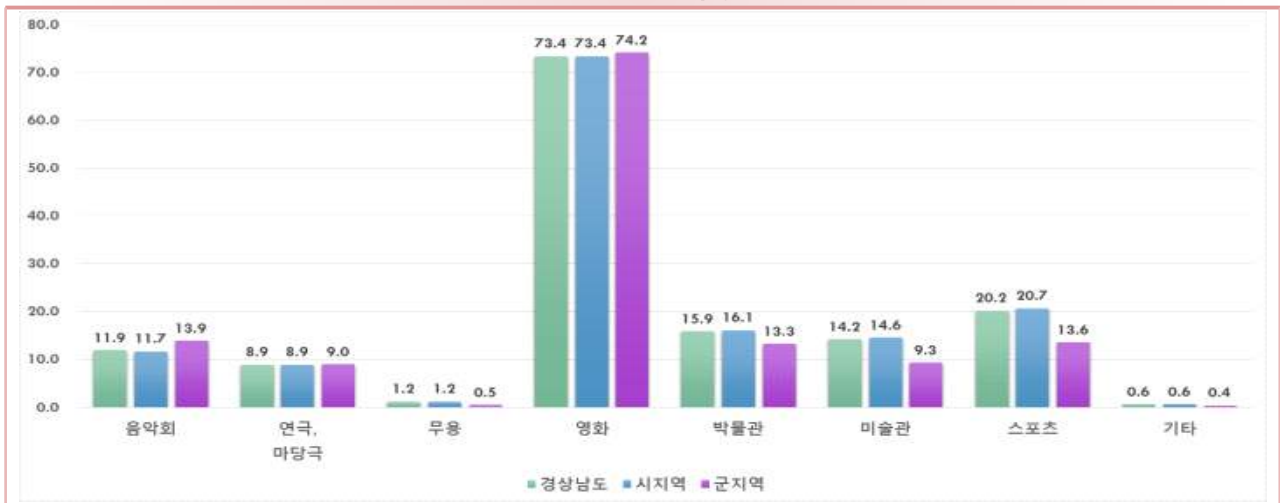
### 문화예술 체육행사 관람

**문항** 귀하는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여부는 20.8%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영화’가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 20.2%, ‘박물관’ 15.9%, ‘미술관’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여부는 ‘있다’가 시 지역(22.6%)이 군 지역(10.3%)보다 12.3%p 높게 나타남

<그림 14> 문화예술 체육행사 관람 여부



<표 14> 문화예술 체육행사 관람

(단위 : %, 회)

구분	관람여부		문화예술 체육행사 종류 및 관람 횟수																		
	있다	전체 평균 관람 횟수	음악회	연극, 마당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기타	평균 관람 횟수	음악회	연극, 마당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기타	평균 관람 횟수	
2018	56.7	0.5	17.3	2.2	13.6	1.8	0.1	2.4	86.8	5.4	19.7	2.2	13.2	2.0	23.1	3.4	5.1	1.5			
2021	20.8	4.1	11.9	1.9	8.9	1.8	1.2	1.6	73.4	3.3	15.9	2.1	14.2	1.9	20.2	2.9	0.6	2.2			
지역별	시 지역	22.6	4.1	11.7	1.9	8.9	1.9	1.2	1.6	73.4	3.3	16.1	2.1	14.6	1.9	20.7	2.8	0.6	2.2		
	군 지역	10.3	3.8	13.9	1.7	9.0	1.6	0.5	1.2	74.2	3.3	13.3	2.2	9.3	1.7	13.6	3.7	0.4	1.7		
성별	남 자	20.8	4.2	10.8	1.8	7.1	1.7	0.8	1.8	70.4	3.4	15.4	2.1	11.0	2.0	30.1	2.8	0.4	1.7		
	여 자	20.7	4.0	13.0	2.0	10.8	1.9	1.6	1.5	76.6	3.2	16.5	2.0	17.5	1.8	10.1	3.0	0.8	2.4		
연령별	15~19세	31.8	3.9	4.4	1.9	5.8	1.9	0.5	3.0	90.7	3.1	9.6	1.7	9.0	1.7	10.8	4.6	0.5	1.0		
	20~29세	38.1	4.2	7.6	1.8	7.6	1.9	0.6	2.2	85.0	3.7	7.1	1.7	10.4	1.6	16.9	2.6	0.3	1.0		
	30~39세	28.2	4.5	12.1	2.0	10.9	1.5	0.8	1.2	70.6	3.4	23.1	2.9	22.9	2.0	20.6	2.7	0.3	1.0		
	40~49세	23.9	4.0	13.9	2.0	10.5	1.7	1.8	1.4	70.5	3.3	20.5	1.8	12.8	1.7	18.5	3.4	1.1	2.1		
	50~59세	20.0	3.9	14.0	1.9	7.9	2.3	1.2	1.6	67.8	3.2	15.8	1.7	13.6	2.1	25.4	2.9	0.1	1.3		
	60세 이상	6.7	3.5	19.9	1.9	10.0	2.0	2.5	1.5	53.6	2.7	19.5	2.1	16.3	2.2	29.2	2.3	1.4	3.8		
	65세 이상	4.9	3.0	22.5	1.7	9.4	1.8	1.6	1.5	46.1	2.1	18.9	2.3	17.9	2.2	26.9	2.0	0.6	1.3		

## 15)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

###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

문항

최근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매년 각 지역별로 지역문화제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의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는 ‘찬성’이 58.3%로 나타났으며, ‘반대’ 15.4%, ‘모름’ 26.3%로 나타남
- 지역별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는 시 지역(57.2%)이 군 지역(65.0%)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7.8%p 낮게 나타남

<그림 15-1>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의견



<표 15-1>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합계	찬성	반대	모름
2018		100.0	58.6	14.8	26.5
2021		100.0	58.3	15.4	26.3
지역별	시 지역	100.0	57.2	16.0	26.9
	군 지역	100.0	65.0	12.1	22.9
성별	남 자	100.0	57.6	16.4	25.9
	여 자	100.0	59.0	14.3	26.7
연령별	15~19세	100.0	45.2	10.8	44.0
	20~29세	100.0	48.7	15.1	36.2
	30~39세	100.0	59.6	16.1	24.3
	40~49세	100.0	62.5	17.7	19.8
	50~59세	100.0	61.4	17.7	20.9
	60세 이상	100.0	59.5	13.1	27.3
	65세 이상	100.0	59.5	11.5	29.0

## 지역문화제 개최 찬성 이유

문항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의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찬성 이유는 ‘문화 향휴 기회 제공’이 45.4%로 가장 높았고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가 38.2%, ‘주민화합에 기여’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지역문화제 개최 찬성이유는 시 지역의 경우 ‘문화 향휴 기회 제공’이 48.9%로 가장 높았고, 군 지역의 경우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5-2> 지역문화제 개최 찬성이유



<표 15-2> 지역문화제 개최 찬성이유

(단위 : %)

구분		합계	문화 향휴 기회 제공	주민화합에 기여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	기타
지역별	2021	100.0	45.4	16.1	38.2	0.3
	시 지역	100.0	48.9	14.6	36.2	0.3
	군 지역	100.0	27.6	23.5	48.8	0.1
성별	남 자	100.0	45.1	16.1	38.5	0.3
	여 자	100.0	45.6	16.1	38.0	0.3
연령별	15~19세	100.0	56.4	11.1	31.7	0.8
	20~29세	100.0	49.8	10.0	39.4	0.8
	30~39세	100.0	58.2	8.8	32.4	0.6
	40~49세	100.0	55.5	9.7	34.5	0.2
	50~59세	100.0	42.3	17.4	40.3	0.1
	60세 이상	100.0	32.4	25.2	42.3	0.2
	65세 이상	100.0	30.9	26.7	42.3	0.2

## 지역문화제 개최 반대이유

문항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의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반대 이유는 '진부하고 변화없는 문화제 행사'가 34.9%로 가장 높았고 '예산낭비 등 과소비 풍토조장'이 32.7%, '교통혼잡 등 질서문란' 2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지역 문화제 개최에 대한 반대 이유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예산낭비 등 과소비 풍토조장'의 비율이 높아졌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교통혼잡 등 질서문란'의 응답 비율이 높아짐

<그림 15-3> 지역문화제 개최 반대이유



<표 15-3> 지역문화제 개최 반대이유

(단위 : %)

구분		합계	예산낭비 등 과소비 풍토 조장	교통혼잡 등 질서문란	지역간 갈등조장	진부하고 변화없는 문화제 행사	기타
지역별	2021	100.0	32.7	26.0	2.6	34.9	3.8
	시 지역	100.0	32.6	26.5	2.4	34.6	3.9
	군 지역	100.0	33.5	22.4	3.9	37.1	3.1
성별	남 자	100.0	33.7	25.3	3.3	33.4	4.3
	여 자	100.0	31.5	26.9	1.8	36.6	3.2
연령별	15~19세	100.0	22.4	30.4	2.4	38.4	6.4
	20~29세	100.0	27.4	26.7	4.2	35.9	5.7
	30~39세	100.0	29.3	26.7	2.3	35.7	6.0
	40~49세	100.0	27.4	24.8	3.0	40.0	4.7
	50~59세	100.0	33.3	25.8	1.5	38.2	1.3
	60세 이상	100.0	42.3	25.9	2.7	26.3	2.8
	65세 이상	100.0	43.6	25.2	2.8	25.1	3.3

## 16) 도내 관광 경험 및 개선할 점

### ☞ 관광지 정보획득 경로

문항	귀하는 지난 1년간 관광 목적으로 경상남도 내 관광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관광지 선택 시 정보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	--

- 도내 관광 여부는 ‘있다’가 36.8%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시 지역(40.0%)이 군 지역(18.0%)보다 22.0%p 높게 나타남
- 경상도민의 관광지 정보획득 경로는 ‘인터넷, 모바일 웹’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인 소개’가 19.3%, ‘TV,신문’ 6.5%, ‘관광안내 서적’ 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관광지 정보획득 경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인터넷, 모바일 웹’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모바일 웹’을 제외한 모든 응답 비율이 높아짐

<그림 16-1> 관광지 정보획득 경로



<표 16-1> 관광지 정보획득 경로

(단위 : %)

구분	도내 관광 경험이 있다	정보획득 경로 (%)						
		합계	인터넷, 모바일 웹	TV, 신문	관광안내 서적	지인 소개	기타	
2018	55.7	100.0	59.6	9.4	3.4	27.0	0.6	
2021	36.8	100.0	71.3	6.5	2.4	19.3	0.5	
지역별	시 지역	40.0	100.0	71.6	6.4	2.4	19.2	0.4
	군 지역	18.0	100.0	67.3	7.5	2.7	21.5	1.1
성별	남 자	37.8	100.0	72.6	5.6	2.5	18.9	0.4
	여 자	35.7	100.0	69.9	7.4	2.3	19.8	0.6
연령별	15~19세	28.5	100.0	80.8	4.2	1.6	11.7	1.7
	20~29세	41.4	100.0	80.7	2.5	0.8	15.6	0.5
	30~39세	54.9	100.0	88.1	2.2	1.0	8.5	0.2
	40~49세	49.4	100.0	80.2	4.6	1.6	13.1	0.4
	50~59세	40.7	100.0	64.0	9.7	3.0	22.8	0.4
	60세 이상	18.1	100.0	33.4	14.7	6.5	44.6	0.7
65세 이상	13.2	100.0	24.5	17.5	6.5	50.6	0.8	

## ❑ 관광지 선택이유

문항 귀하가 관광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의 관광지 선택 이유는 ‘다양한 볼거리’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동거리 및 교통편이 편해서’가 31.5%, ‘관광지 지명도’ 20.1%, ‘저렴한 관광경비’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2> 관광지 선택이유



<표 16-2> 관광지 선택이유

(단위 : %)

구분	합계	이동거리 및 교통편이	관광지 지명도	저렴한 관광경비	다양한 볼거리	기타	
2018	100.0	28.0	22.2	10.2	38.7	0.9	
2021	100.0	31.5	20.1	9.5	37.5	1.4	
지역별	시 지역	100.0	31.8	19.9	9.6	37.3	1.4
	군 지역	100.0	27.6	22.8	7.5	40.6	1.5
성별	남 자	100.0	30.9	22.0	9.6	36.1	1.5
	여 자	100.0	32.1	18.2	9.4	39.1	1.3
연령별	15~19세	100.0	35.1	15.2	9.0	38.5	2.3
	20~29세	100.0	26.9	20.4	12.8	38.4	1.5
	30~39세	100.0	33.4	16.0	6.3	41.9	2.3
	40~49세	100.0	35.8	19.1	8.0	35.5	1.6
	50~59세	100.0	30.7	22.8	10.8	35.0	0.7
	60세 이상	100.0	26.3	24.5	11.1	37.4	0.6
	65세 이상	100.0	27.2	23.7	11.2	37.1	0.7



## ❑ 관광산업 개선사항

문항      경남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경남의 관광지 개선할 점은 ‘다양한 채널의 관광정보 제공’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가지요금의 근절’이 20.6%, ‘음식점 위생개선 및 맛집 발굴 안내’가 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3> 관광산업 개선사항



<표 16-3> 관광산업 개선사항

(단위 : %)

구분	합계	다양한 채널의 관광정보 제공	숙박시설의 개선 및 확충	음식점 위생 개선 및 맛집 발굴 안내	쇼핑시설 다양화 (특산품 등)	바가지요금 근절	기타	
2018	100.0	32.6	13.4	21.6	7.5	23.2	1.7	
2021	100.0	34.3	13.3	23.3	7.0	20.6	1.5	
지역별	시 지역	100.0	34.4	13.4	22.8	6.8	20.9	1.5
	군 지역	100.0	33.1	10.9	28.7	9.1	16.8	1.4
성별	남 자	100.0	33.7	13.3	22.6	6.9	22.0	1.4
	여 자	100.0	35.0	13.2	23.9	7.1	19.2	1.6
연령별	15~19세	100.0	31.5	12.6	25.2	11.4	18.4	0.8
	20~29세	100.0	30.3	14.2	24.8	7.5	20.3	2.9
	30~39세	100.0	39.2	13.7	19.2	6.4	19.3	2.2
	40~49세	100.0	36.0	14.7	20.7	6.6	20.5	1.5
	50~59세	100.0	34.1	12.1	27.9	5.4	19.9	0.6
	60세 이상	100.0	30.0	11.2	24.2	9.2	24.6	0.8
	65세 이상	100.0	32.7	10.4	22.7	8.8	24.7	0.7

## 17) 타 지역민에게 경남 관광지 소개

### ☞ 소개하고 싶은 경남의 관광지

**문항** 귀하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경남의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경남의 관광지는 ‘남부해양관광권’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부산악권’이 20.4%, ‘동부산악권’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타 지역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경남의 관광지는 시 지역은 ‘남부해양관광권’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 지역은 ‘서부산악권’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7> 소개하고 싶은 경남의 관광지**



**<표 17> 소개하고 싶은 경남의 관광지**

(단위 : %)

구분	합계	동부도시권	서부도시권	동부산악권	서부산악권	남부해양관광권	
2018	100.0	9.7	10.9	14.8	21.3	43.3	
2021	100.0	10.5	10.0	14.8	20.4	44.2	
지역별	시 지역	100.0	11.3	10.7	15.4	17.1	45.4
	군 지역	100.0	5.9	5.9	11.4	39.4	37.3
성별	남 자	100.0	10.4	9.9	14.0	21.7	44.0
	여 자	100.0	10.6	10.1	15.7	19.1	44.4
연령별	15~19세	100.0	13.6	13.4	12.2	16.6	44.2
	20~29세	100.0	14.0	10.6	11.7	16.6	47.0
	30~39세	100.0	10.4	7.5	13.4	16.4	52.3
	40~49세	100.0	9.6	8.6	14.6	18.5	48.7
	50~59세	100.0	9.4	9.2	15.0	23.0	43.4
	60세 이상	100.0	9.8	11.6	17.3	23.9	37.4
	65세 이상	100.0	9.7	12.3	17.5	23.7	36.8



### 3. 일자리 노동 부문

#### < 조사항목별 요약 >

##### 18) 일자리 충분도

- 지역 일자리 충분한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7.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49.5%, ‘보통이다’ 4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9) 지역의 실업정도

- 경남도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실업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심각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68.3%로 나타났고, ‘심각하지 않다’가 29.4%, ‘기타’ 2.2%로 나타남

##### 20) 지역의 고용전망

- 경남도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현황의 향후 1~2년 이내의 전망을 묻는 문항에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12.8%로 나타났고, ‘나빠질 것이다’ 42.5%, ‘변동이 없을 것이다’ 44.7%로 나타남

##### 21) 지역의 경제전망

- 경남도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상황의 향후 1~2년 이내의 전망을 묻는 문항에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14.7%로 나타났고, ‘나빠질 것이다’가 41.4%, ‘변동이 없을 것이다’ 43.8%로 나타남

##### 22) 일자리 만족도

- 경제활동여부는 ‘일하였음’이 59.8%, ‘일하지 않았음’ 40.2%로 나타남
-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쉬었음’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육아 또는 가사’ 27.8%,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는 일의 만족도는 ‘만족’이 35.0%, ‘불만족’ 15.1%, ‘보통’ 49.9%로 나타남
- 임금/가구소득의 만족도는 ‘만족’이 25.4%, ‘불만족’ 27.5%, ‘보통’ 47.2%로 나타남
- 근로시간의 만족도는 ‘만족’이 31.6%, ‘불만족’ 17.0%, ‘보통’ 51.4%로 나타남
- 근로환경의 만족도는 ‘만족’이 31.2%, ‘불만족’ 18.6%, ‘보통’ 50.2%로 나타남
- 고용 안정성의 만족도는 ‘만족’이 31.5%, ‘불만족’ 19.5%, ‘보통’ 49.0%로 나타남
- 노동자 권익보호의 만족도는 ‘만족’이 28.7%, ‘불만족’ 20.0%, ‘보통’ 51.2%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의 만족도는 ‘만족’이 30.0%, ‘불만족’ 15.3%, ‘보통’ 54.7%로 나타남

##### 23)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 경남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적기 자금 융자 지원’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상인, 소공인 등 타겟별 맞춤형 정책’ 21.4%,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4) 일자리 창출 분야

- 경남 도내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에 대하여 ‘일자리 발굴사업’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알선(취업박람회 개최 등)’ 25.3%, ‘창업 등 지원’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5) 청년일자리 지원 분야

-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취업 알선’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훈련’ 30.2%, ‘창업 지원’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6)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가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 18.4%, ‘정년보장이 되는 곳’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7) 청년일자리 확대 분야

- 청년이 원하는 확대해야할 일자리 분야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분야’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IT/SW 신기술 분야’ 26.7%, ‘새로운 서비스 산업 분야’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8)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분야

- 저소득 노인일자리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분야에 대하여 ‘취약계층 지원활동’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시설 관리활동’ 19.8%, ‘지역사회 환경개선’ 16.9%, ‘노노케어’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8) 일자리 충분도

### 일자리 충분도

**문항** 귀하는 지역(시군) 내에서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까?

○ 지역 일자리 충분한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7.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49.5%, ‘보통이다’ 4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자리 충분정도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높아짐

<그림 18> 일자리 충분도



<표 18> 일자리 충분도

(단위 : %)

구분	합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b>2021</b>	<b>100.0</b>	<b>49.5</b>	<b>9.2</b>	<b>40.3</b>	<b>42.8</b>	<b>7.7</b>	<b>6.6</b>	<b>1.1</b>	
시·군	시 지역	100.0	49.9	9.3	40.6	42.7	7.2	6.2	1.0
	군 지역	100.0	46.8	8.3	38.5	43.5	9.6	8.5	1.1
성별	남 자	100.0	49.7	9.8	39.9	42.3	7.9	6.7	1.2
	여 자	100.0	49.4	8.6	40.8	43.3	7.3	6.4	0.9
연령	15~19세	100.0	39.0	6.3	32.7	54.6	6.4	5.4	1.0
	20~29세	100.0	51.6	11.2	40.4	41.3	7.2	6.1	1.1
	30~39세	100.0	50.9	11.4	39.5	40.9	8.3	6.9	1.4
	40~49세	100.0	49.2	9.9	39.3	43.6	7.2	6.1	1.1
	50~59세	100.0	52.9	9.6	43.3	39.5	7.6	6.8	0.8
	60세 이상	100.0	47.9	7.2	40.7	44.0	8.1	7.0	1.1
	65세 이상	100.0	45.4	6.3	39.1	46.2	8.4	7.3	1.1

## 19) 지역의 실업정도

### 지역의 실업정도

문항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시·군)에서의 실업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실업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심각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68.3%로 나타났고, ‘심각하지 않다’가 29.4%, ‘기타’ 2.2%로 나타남

- 지역별로 지역의 실업정도는 ‘심각하다’가 시 지역(69.7%)이 군 지역(60.4%)보다 9.3%p 높게 나타남

<그림 19> 지역의 실업정도



<표 19> 지역의 실업정도

(단위 : %)

구분	합계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기타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2018	100.0	79.8	26.0	53.8	18.1	15.8	2.3	2.1	
2021	100.0	68.3	11.0	57.3	29.4	26.2	3.2	2.2	
지역별	시 지역	100.0	69.7	11.5	58.2	28.0	25.0	3.0	2.3
	군 지역	100.0	60.4	8.1	52.3	37.5	33.4	4.1	2.1
성별	남 자	100.0	68.7	11.8	56.9	29.5	25.8	3.7	1.8
	여 자	100.0	68.1	10.3	57.8	29.3	26.6	2.7	2.7
연령별	15~19세	100.0	56.4	6.3	50.1	36.2	33.2	3.0	7.4
	20~29세	100.0	71.0	13.8	57.2	26.4	23.7	2.7	2.7
	30~39세	100.0	65.9	10.0	55.9	31.7	28.2	3.5	2.4
	40~49세	100.0	68.2	10.8	57.4	30.2	26.6	3.6	1.6
	50~59세	100.0	73.1	13.4	59.7	25.4	22.3	3.1	1.6
	60세 이상	100.0	67.5	9.7	57.8	30.6	27.5	3.1	1.9
	65세 이상	100.0	65.1	8.8	56.3	33.0	30.0	3.0	1.9

## 20) 지역의 고용전망

### 고용상황 향후 전망

**문항** 귀하가 살고 있는 시·군에서의 고용상황(일자리 등)은 향후 1~2년 이내에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현황의 향후 1~2년 이내의 전망을 묻는 문항에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12.8%로 나타났고, ‘나빠질 것이다’ 42.5%, ‘변동이 없을 것이다’ 44.7%로 나타남

- 지역별로 고용상황 향후 전망은 ‘나빠질 것이다’가 시 지역(44.0%)이 군 지역(33.5%)보다 10.5%p 높게 나타남

<그림 20> 지역의 고용전망



<표 20> 지역의 고용전망

(단위 : %)

구분	합계	나빠질 것이다	변동이 없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많이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2018	100.0	32.4	7.7	24.7	47.3	20.3	19.2	1.1	
2021	100.0	42.5	8.1	34.4	44.7	12.8	12.1	0.7	
지역별	시 지역	100.0	44.0	8.8	35.2	42.9	13.1	12.3	0.8
	군 지역	100.0	33.5	4.0	29.5	55.3	11.2	10.9	0.3
성별	남 자	100.0	43.8	8.8	35.0	43.5	12.6	11.9	0.7
	여 자	100.0	41.0	7.3	33.7	46.0	13.0	12.4	0.6
연령별	15~19세	100.0	39.1	6.3	32.8	48.2	12.8	11.1	1.7
	20~29세	100.0	45.2	9.9	35.3	43.5	11.2	10.4	0.8
	30~39세	100.0	41.8	8.8	33.0	46.3	11.8	11.4	0.4
	40~49세	100.0	42.9	9.1	33.8	42.2	14.9	14.1	0.8
	50~59세	100.0	45.3	8.6	36.7	41.2	13.5	12.8	0.7
	60세 이상	100.0	40.0	6.3	33.7	47.8	12.2	11.7	0.5
	65세 이상	100.0	37.3	5.3	32.0	50.5	12.2	11.7	0.5



## 21) 지역의 경제전망

### 경제상황 향후 전망

**문항**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상황이 향후 1~2년 이내에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상황의 향후 1~2년 이내의 전망을 묻는 문항에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14.7%로 나타났고, ‘나빠질 것이다’가 41.4%, ‘변동이 없을 것이다’ 43.8%로 나타남

- 지역별로 경제상황 향후 전망은 ‘나빠질 것이다’가 시 지역(43.0%)이 군 지역(32.9%)보다 10.1%p 높게 나타남

<그림 21> 지역의 경제전망



<표 21> 지역의 경제전망

(단위 : %)

구분	합계	나빠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변동이 없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많이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2018	100.0	33.2	7.4	25.8	45.9	20.9	19.5	1.4	
2021	100.0	41.4	7.7	33.7	43.8	14.7	13.9	0.8	
지역별	시 지역	100.0	43.0	8.4	34.6	41.9	15.2	14.3	0.9
	군 지역	100.0	32.9	3.9	29.0	54.7	12.4	12.0	0.4
성별	남 자	100.0	42.9	8.3	34.6	42.5	14.7	13.9	0.8
	여 자	100.0	40.0	7.1	32.9	45.1	14.9	14.0	0.9
연령별	15~19세	100.0	35.9	4.8	31.1	48.9	15.2	13.7	1.5
	20~29세	100.0	42.3	9.3	33.0	44.5	13.1	12.2	0.9
	30~39세	100.0	42.4	7.9	34.5	43.7	13.9	13.4	0.5
	40~49세	100.0	42.2	8.3	33.9	40.1	17.7	16.6	1.1
	50~59세	100.0	45.1	9.2	35.9	39.4	15.5	14.6	0.9
	60세 이상	100.0	38.8	6.1	32.7	47.7	13.4	12.8	0.6
	65세 이상	100.0	35.8	5.4	30.4	50.8	13.4	12.7	0.7

## 22) 일자리 만족도

### 경제활동여부 및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문항	귀하는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이働했습니까?
	귀하는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활동여부는 ‘일하였음’이 59.8%, ‘일하지 않았음’ 40.2%로 나타남
-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쉬었음’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육아 또는 가사’ 27.8%,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쉬었음’이라 응답한 사람이 시 지역(31.0%)이 군 지역(46.1%)보다 15.1%p 낮게 나타남

<그림 22-1>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표 22-1> 경제활동여부 및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

구분	합계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구직활동	취업준비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	육아 또는 가사	쉬었음	기타	
2021	100.0	59.8	40.2	5.7	7.0	17.5	27.8	33.1	9.0	
지역별	시 지역	100.0	59.5	40.5	6.0	7.1	18.3	28.8	31.0	8.8
	군 지역	100.0	61.5	38.5	3.4	6.0	12.5	22.0	46.1	10.0
성별	남 자	100.0	71.2	28.8	8.5	9.7	26.1	3.3	41.1	11.3
	여 자	100.0	48.4	51.6	4.1	5.4	12.6	41.6	28.6	7.7
연령별	15~19세	100.0	5.7	94.3	1.0	1.5	93.6	0.9	2.0	1.0
	20~29세	100.0	56.8	43.2	9.7	33.2	35.1	6.1	11.0	4.9
	30~39세	100.0	73.3	26.7	7.9	8.1	2.0	66.1	14.3	1.6
	40~49세	100.0	80.5	19.5	10.2	4.3	1.3	61.5	19.4	3.3
	50~59세	100.0	77.1	22.9	9.8	2.7	1.1	41.4	38.2	6.8
	60세 이상	100.0	41.1	58.9	3.4	1.8	0.6	24.4	54.1	15.7
	65세 이상	100.0	33.2	66.8	2.4	1.8	0.7	23.0	54.1	18.0

## 일자리 만족도

문항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하는 일의 만족도는 ‘만족’이 35.0%, ‘불만족’ 15.1%, ‘보통’ 49.9%로 나타남
- 임금/가구소득의 만족도는 ‘만족’이 25.4%, ‘불만족’ 27.5%, ‘보통’ 47.2%로 나타남
- 근로시간의 만족도는 ‘만족’이 31.6%, ‘불만족’ 17.0%, ‘보통’ 51.4%로 나타남
- 근무환경의 만족도는 ‘만족’이 31.2%, ‘불만족’ 18.6%, ‘보통’ 50.2%로 나타남
- 고용 안정성의 만족도는 ‘만족’이 31.5%, ‘불만족’ 19.5%, ‘보통’ 49.0%로 나타남
- 노동자 권익보호의 만족도는 ‘만족’이 28.7%, ‘불만족’ 20.0%, ‘보통’ 51.2%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의 만족도는 ‘만족’이 30.0%, ‘불만족’ 15.3%, ‘보통’ 54.7%로 나타남

<그림 22-2> 일자리 만족도



<표 22-2> 일자리 만족도

(단위 : %)

구분	합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하는 일	100.0	15.1	2.8	12.3	49.9	35.0	28.8	6.2
임금/가구소득	100.0	27.5	5.7	21.8	47.2	25.4	21.5	3.9
근로시간	100.0	17.0	3.4	13.6	51.4	31.6	25.3	6.3
근무환경	100.0	18.6	3.4	15.2	50.2	31.2	25.1	6.1
고용 안정성	100.0	19.5	4.2	15.3	49.0	31.5	23.7	7.8
노동자 권익보호	100.0	20.0	4.6	15.4	51.2	28.7	22.3	6.4
전반적인 만족도	100.0	15.3	2.7	12.6	54.7	30.0	24.5	5.5

### 23)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 ☞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문항**      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우선 지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적기 자금 융자 지원’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상인, 소공인 등 타겟별 맞춤형 정책’ 21.4%,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시 지역은 ‘소상인, 소공인 등 타겟별 맞춤형 정책’의 비율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군 지역은 ‘적기 자금 융자 지원’의 비율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3>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표 23>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적기 자금 융자 지원	유통 혁신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불공정 거래 등 갑질 관행 개선	창업, 성장, 사업 정리 등 생애주기별 지원	소상인, 소공인 등 타겟별 맞춤형 정책	기타	
2018	100.0	21.7	19.6	13.8	18.2	9.5	15.3	1.9	
2021	100.0	18.0	22.0	14.3	11.8	10.5	21.4	1.9	
지역별	시 지역	100.0	18.5	21.6	14.0	12.5	10.0	21.8	1.6
	군 지역	100.0	15.1	24.4	16.2	8.0	13.7	19.2	3.5
성별	남 자	100.0	17.8	21.3	14.4	12.8	10.3	21.7	1.7
	여 자	100.0	18.1	22.8	14.2	10.8	10.7	21.1	2.2
연령별	15~19세	100.0	21.1	14.7	14.3	15.0	16.5	15.8	2.6
	20~29세	100.0	20.6	20.0	14.5	10.4	14.0	19.3	1.3
	30~39세	100.0	18.9	18.5	13.8	13.7	11.1	22.6	1.3
	40~49세	100.0	17.4	20.8	13.3	13.2	10.1	23.9	1.3
	50~59세	100.0	16.2	22.4	13.9	12.7	8.8	24.5	1.5
	60세 이상	100.0	17.4	26.3	15.3	9.7	9.2	19.2	3.0
65세 이상	100.0	18.0	26.6	15.7	9.0	9.4	18.1	3.3	

## 24) 일자리 창출 분야

### 일자리 창출 분야

**문항**      귀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 도내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에 대하여 ‘일자리 발굴사업’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알선(취업박람회 개최 등)’ 25.3%, ‘창업 등 지원’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분에서도 마찬가지로 1순위(일자리 발굴사업), 2순위(취업알선), 3순위(창업 등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4> 일자리 창출 분야



<표 24> 일자리 창출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취업알선 (취업 박람회 개최 등)	창업 등 지원	일자리 발굴사업	직업훈련	기업 지원	가사부담	기타	
2018	100.0	27.1	13.8	39.2	10.6	6.3	2.1	0.9	
2021	100.0	25.3	15.0	37.1	10.0	8.2	3.6	0.9	
지역별	시 지역	100.0	25.6	14.4	36.9	10.0	8.4	3.8	0.8
	군 지역	100.0	23.8	18.6	37.9	9.7	6.4	2.4	1.2
성별	남 자	100.0	24.9	15.9	36.4	10.4	9.4	2.1	0.9
	여 자	100.0	25.7	14.2	37.8	9.5	6.9	5.1	0.8
연령별	15~19세	100.0	27.6	19.6	29.6	11.9	7.7	2.5	1.1
	20~29세	100.0	26.3	15.1	32.7	12.0	10.4	2.6	0.9
	30~39세	100.0	21.6	14.5	34.0	11.6	9.8	7.2	1.3
	40~49세	100.0	21.7	15.8	36.8	11.4	8.4	5.1	0.8
	50~59세	100.0	25.3	14.7	39.7	9.8	8.0	2.1	0.5
	60세 이상	100.0	28.3	14.1	40.1	7.4	6.5	2.7	0.9
	65세 이상	100.0	28.4	14.7	39.9	7.0	6.1	2.9	1.1

## 25) 청년일자리 지원 분야

### 청년일자리 지원 분야

**문항**      귀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우선 확대하여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취업 알선’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훈련’ 30.2%, ‘창업 지원’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성별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으나, 연령별에서 15~19세에서 ‘창업 지원’이 2순위로 나타남

<그림 25> 청년일자리 지원 분야



<표 25> 청년일자리 지원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직업훈련	해외인턴	기타	
2018	100.0	49.5	17.0	28.1	3.9	1.5	
2021	100.0	46.6	19.8	30.2	2.6	0.8	
지역별	시 지역	100.0	47.2	19.2	30.1	2.7	0.7
	군 지역	100.0	43.1	23.0	30.5	2.3	1.1
성별	남 자	100.0	44.7	20.8	31.1	2.6	0.9
	여 자	100.0	48.6	18.7	29.3	2.7	0.7
연령별	15~19세	100.0	37.5	27.0	25.7	8.7	1.0
	20~29세	100.0	46.8	23.1	25.1	4.0	1.0
	30~39세	100.0	43.1	20.7	32.5	2.4	1.2
	40~49세	100.0	44.1	19.5	33.4	2.4	0.6
	50~59세	100.0	48.2	18.5	30.5	2.3	0.4
	60세 이상	100.0	50.3	17.6	29.9	1.4	0.8
	65세 이상	100.0	50.4	17.9	29.2	1.4	1.0

## 26)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문항 (만19~39세) 귀하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가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 18.4%, ‘정년보장이 되는 곳’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고학력으로 갈수록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저학력으로 갈수록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곳’과 ‘정년보장이 되는 곳’의 응답비율이 높아짐

<그림 26>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표 26>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단위 : %)

구분	합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	급여가 높은 곳	정년보장이 되는 곳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곳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	기타	
2021	100.0	45.4	13.1	14.5	18.4	8.0	0.5	
지역별	시 지역	100.0	45.6	12.8	15.0	18.1	7.8	0.6
	군 지역	100.0	43.3	15.7	9.9	21.2	9.9	0.0
성별	남 자	100.0	42.5	15.2	16.4	16.7	8.7	0.4
	여 자	100.0	48.8	10.6	12.3	20.4	7.2	0.7
학력별	초 졸	100.0	19.1	10.6	25.6	34.0	10.8	0.0
	중 졸	100.0	40.7	7.8	15.6	30.4	3.0	2.5
	고 졸	100.0	43.5	15.0	13.7	19.6	7.7	0.5
	대 졸	100.0	46.8	12.1	14.9	17.3	8.3	0.5

## 27) 청년일자리 확대 분야

### 청년일자리 확대 분야

**문항** (만19~39세) 귀하가 원하는 확대해야할 일자리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청년이 원하는 확대해야할 일자리 분야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분야’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IT/SW 신기술 분야’ 26.7%, ‘새로운 서비스 산업 분야’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IT/SW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고, 시 지역에 비해 군지역에서는 ‘청년창업 분야’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음

<그림 27> 청년일자리 확대 분야



<표 27> 청년일자리 확대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제조업의 스마트화 분야	IT/SW 신기술 분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창업 분야	새로운 서비스 산업 분야	기타	
<b>2021</b>	<b>100.0</b>	<b>27.4</b>	<b>26.7</b>	<b>10.7</b>	<b>15.6</b>	<b>18.2</b>	<b>1.4</b>	
시·군	시 지역	100.0	27.6	27.2	10.8	14.9	18.0	1.4
	군 지역	100.0	24.6	21.7	9.6	22.9	20.4	0.8
성별	남 자	100.0	30.2	29.5	7.4	16.8	14.9	1.3
	여 자	100.0	24.0	23.4	14.7	14.3	22.1	1.5
연령	초 졸	100.0	33.2	27.3	1.2	12.6	18.0	7.7
	중 졸	100.0	34.7	22.7	3.4	16.6	21.6	1.0
	고 졸	100.0	26.0	27.5	11.0	17.3	16.9	1.4
	대 졸	100.0	27.9	26.3	10.8	14.7	18.9	1.3



## 28)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분야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분야

**문항** 귀하는 저소득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우선 확대하여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저소득 노인일자리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분야에 대하여 ‘취약계층 지원활동’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시설 관리활동’ 19.8%, ‘지역사회 환경개선’ 16.9%, ‘노노케어’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분야



<표 25>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취약 계층 지원 활동	공공 시설 관리 활동	지역 사회 환경 개선	보육 시설 봉사 활동	스쿨존 교통 지원 활동	복지 시설 도우미	취미 생활 지도	경륜 전수 활동	노노 케어	기타	
2018	100.0	28.5	19.2	15.2	4.8	5.1	8.5	4.6	1.2	12.4	0.7	
2021	100.0	25.9	19.8	16.9	4.4	4.9	8.3	4.9	1.2	13.3	0.4	
지역별	시 지역	100.0	26.2	20.0	16.3	4.5	4.9	8.3	4.9	1.3	13.1	0.4
	군 지역	100.0	24.3	18.5	19.9	3.9	4.7	8.5	4.8	0.7	14.0	0.6
성별	남 자	100.0	26.1	21.3	18.4	3.9	5.0	7.7	4.7	1.2	11.1	0.4
	여 자	100.0	25.7	18.2	15.3	4.9	4.8	9.0	5.1	1.2	15.4	0.5
연령별	15~19세	100.0	23.7	16.7	16.0	6.0	8.4	8.8	7.3	2.0	10.3	1.0
	20~29세	100.0	26.0	19.2	16.8	4.5	4.2	8.2	7.6	1.3	11.8	0.3
	30~39세	100.0	25.5	21.7	16.0	4.5	6.8	7.5	4.2	1.0	12.6	0.4
	40~49세	100.0	25.2	20.1	16.5	4.8	6.7	6.8	4.5	1.4	13.6	0.5
	50~59세	100.0	26.5	20.3	17.5	4.3	3.3	8.3	4.7	1.4	13.2	0.5
	60세 이상	100.0	26.5	19.2	17.2	3.9	3.7	9.7	3.9	0.9	14.6	0.3
	65세 이상	100.0	27.2	18.4	16.9	3.5	3.7	10.0	3.7	0.8	15.3	0.4

## 4. 소득과 소비 부문

### < 조사항목별 요약 >

#### 29)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 경험이 '있었다'가 51.0%, '없었다' 49.0%로 나타남

#### 30) 가구 월평균 소득

○ 경남 도내 가구의 주된 소득원에 대하여 '가구주 근로소득'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이 19.9%, '정부의 보조금'이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월 평균 총 가구소득에 대하여 '100~200만원 미만'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300만원 미만' 19.2%, '300~400만원 미만'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1) 소득만족도

○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1.0%, '불만족' 32.4%, '보통' 36.8%, '해당없음' 19.8%로 나타남

#### 32)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

○ 경남도민의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는 '나아질 것이다' 14.5%로 2019년(19.9%)에 비해 5.4%p 감소, '나빠질 것이다' 30.7%, '전과 비슷할 것이다' 54.7%로 나타남

#### 33)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에 대하여 '100~200만원 미만'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100만원 미만' 21.0%, '200~300만원 미만'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4) 소비생활 만족도

○ 경남도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16.2%로 2019년(17.9%)에 비해 1.7%p 감소, '불만족' 27.3%, '보통' 56.4%로 나타남

#### 35) 가구 부채정도와 이유

○ 가구의 부채 유무는 '있다'가 42.7%로 나타남

○ 가구의 부채정도는 '1억원 이상'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천만원 미만'과 '1~2천만원 미만'이 각각 11.0%, '2~3천만원'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채의 주된 이유로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생

활비' 15.4%, '사업/영농 자금'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6) 노후대비 소득보장

- 경남도민은 노후를 대비하여 '준비하고(되어) 있다'가 49.3%로 2019년(47.0%)에 비해 2.3%p 증가
- 준비방법은 '공적연금'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금 또는 적금' 16.0%, '사적연금'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소득대비 지출 비율은 '20% 미만'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40%' 22.4%, '40~60%' 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준비 계획은 '준비할 능력이 없다'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37) 삶에 대한 만족감

- 경남도민이 응답한 삶에 대한 만족감 문항에서 0점부터 10점까지 10점 척도로 비율이 아닌 점수로 표와 그림을 나타냄
- 삶에 대한 만족감 부분의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5.9점, '전반적 생활' 5.8점, '어제 행복' 6.0점, '어제 걱정' 5.0점으로 나타남

## 29)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문항** (만 19세 이상)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생계유지를 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 경험이 '있었다'가 51.0%, '없었다' 49.0%로 나타남

- 지역별로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 경험이 '있었다'가 시 지역(52.7%)이 군 지역(41.2%)에 비해 11.5%p 높게 나타남

<그림 29>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표 29>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

구분	합계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있었다	가끔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b>2021</b>	<b>100.0</b>	<b>49.0</b>	<b>10.3</b>	<b>38.7</b>	<b>51.0</b>	<b>41.1</b>	<b>9.9</b>
지역별	시 지역	47.3	9.5	37.8	52.7	42.1	10.6
	군 지역	58.7	14.6	44.1	41.2	35.3	5.9
성별	남 자	49.6	10.7	38.9	50.4	40.6	9.8
	여 자	48.3	9.9	38.4	51.7	41.6	10.1
연령별	15~19세	67.5	25.3	42.2	32.5	29.2	3.3
	20~29세	54.9	13.8	41.1	45.1	36.6	8.5
	30~39세	48.8	11.3	37.5	51.2	40.0	11.2
	40~49세	45.6	9.4	36.2	54.4	42.3	12.1
	50~59세	48.2	8.9	39.3	51.8	41.2	10.6
	60세 이상	48.6	9.4	39.2	51.5	43.0	8.5
	65세 이상	49.1	9.2	39.9	50.9	42.9	8.0

### 30) 가구 월평균 소득

#### 주된 소득원

문항 귀댁의 주된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 경남 도내 가구의 주된 소득원에 대하여 ‘가구주 근로소득’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이 19.9%, ‘정부의 보조금’이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0-1> 주된 소득원



<표 30-1> 주된 소득원

(단위 : %)

구분	합계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 사적연금 및 퇴직금	정부의 보조금	종교 또는 복지단체 보조금	친인척의 보조금	기타	
2020	100.0	48.6	19.1	4.5	9.7	13.7	0.4	3.2	0.7	
2021	100.0	47.2	19.9	4.2	10.1	12.7	0.3	4.3	1.3	
지역별	시 지역	100.0	48.6	20.9	4.5	9.7	10.4	0.3	4.2	1.4
	군 지역	100.0	40.3	15.4	2.4	11.8	24.0	0.3	5.0	0.8
성별	남 자	100.0	52.6	21.8	3.9	10.1	8.0	0.3	2.5	0.9
	여 자	100.0	35.3	15.8	4.8	10.1	23.3	0.4	8.3	2.2
연령별	15~19세	100.0	19.6	4.4	0.0	0.0	0.0	0.0	22.8	53.2
	20~29세	100.0	61.9	10.6	2.9	1.0	3.1	0.0	13.6	6.8
	30~39세	100.0	70.3	24.0	1.3	1.0	1.1	0.5	1.5	0.4
	40~49세	100.0	66.6	27.6	2.3	0.9	1.7	0.1	0.3	0.4
	50~59세	100.0	61.5	28.0	3.7	2.3	2.9	0.4	0.7	0.7
	60세 이상	100.0	29.5	13.8	5.6	18.8	23.3	0.3	7.1	1.5
	65세 이상	100.0	23.2	10.7	5.9	20.3	29.0	0.3	8.8	1.7

## 월 평균 총 가구소득

문항 귀댁의 지난 1년 동안 세금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월 평균 총 가구소득에 대하여 '100~200만원 미만'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300만원 미만' 19.2%, '300~400만원 미만'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월 평균 총 가구소득에 대해 시 지역은 '200~300만원 미만'의 비율이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군 지역은 '50~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월 평균 총 가구소득에 대해 남자는 '200~3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자는 '50~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0-2> 월 평균 총 가구소득



<표 30-2> 월 평균 총 가구소득

(단위 : %)

구분	합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2020	100.0	8.8	15.7	19.2	18.8	16.3	9.7	5.1	2.3	1.4	2.5
2021	100.0	6.0	16.0	20.1	19.2	17.2	9.7	5.0	2.4	1.7	2.6
지역별											
시 지역	100.0	4.5	14.2	19.5	19.9	18.6	10.4	5.4	2.7	1.9	2.9
군 지역	100.0	14.1	26.1	23.1	15.5	10.0	5.7	3.0	1.1	0.6	1.0
성별											
남 자	100.0	3.0	10.5	18.2	21.6	20.6	11.7	6.2	2.9	2.1	3.1
여 자	100.0	12.7	28.1	24.3	14.0	9.8	5.2	2.4	1.3	0.7	1.5
연령별											
15~19세	100.0	1.2	53.2	21.7	9.3	0.0	14.7	0.0	0.0	0.0	0.0
20~29세	100.0	7.6	16.3	24.9	31.6	12.6	3.9	1.6	1.0	0.5	0.0
30~39세	100.0	1.2	2.9	9.3	28.0	29.7	13.0	6.1	4.1	2.3	3.5
40~49세	100.0	0.4	2.8	10.2	20.7	26.6	17.1	10.6	4.2	3.2	4.2
50~59세	100.0	1.4	5.5	15.5	19.7	22.1	15.1	8.1	4.5	2.9	5.2
60세 이상	100.0	11.1	28.2	27.6	15.8	9.5	4.3	1.6	0.6	0.5	0.8
65세 이상	100.0	14.0	33.8	28.6	13.0	6.9	2.1	0.7	0.4	0.2	0.3

### 31) 소득만족도

#### 소득만족도

문항 (만 19세 이상)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만족합니까?

○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1.0%, ‘불만족’ 32.4%, ‘보통’ 36.8%, ‘해당없음’ 19.8%로 나타남

- 2019년(21.4%)에 비해 2021년(11.0%)은 소득에 대한 만족한다라는 응답비율이 10.4%p 감소함

<그림 31> 소득만족도



<표 31> 소득만족도

(단위 : %)

구분	합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해당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19	100.0	30.0	6.0	24.0	48.6	21.4	18.0	3.4	29.1	
2021	100.0	32.4	6.8	25.6	36.8	11.0	8.8	2.2	19.8	
지역별	시 지역	100.0	32.9	7.3	25.6	35.3	10.7	8.5	2.2	21.2
	군 지역	100.0	29.8	4.1	25.7	45.5	12.7	10.5	2.2	12.0
성별	남 자	100.0	34.7	7.8	26.9	40.8	12.9	10.4	2.5	11.6
	여 자	100.0	30.1	5.8	24.3	32.8	9.1	7.2	1.9	28.0
연령별	15~19세	100.0	12.6	0.5	12.1	12.6	9.0	6.0	3.0	65.9
	20~29세	100.0	26.5	5.7	20.8	29.1	9.9	7.8	2.1	34.6
	30~39세	100.0	31.5	6.4	25.1	36.8	11.2	9.2	2.0	20.5
	40~49세	100.0	34.2	7.4	26.8	39.9	12.2	10.1	2.1	13.6
	50~59세	100.0	35.5	8.9	26.6	37.8	13.6	10.8	2.8	13.1
	60세 이상	100.0	32.6	5.8	26.8	38.2	9.0	7.1	1.9	20.2
	65세 이상	100.0	32.3	5.4	26.9	38.1	8.3	6.6	1.7	21.3

### 32)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

####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

**문항** 귀댁은 향후 2~3년 후 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의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는 ‘나아질 것이다’ 14.5%로 2019년(19.9%)에 비해 5.4%p 감소, ‘나빠질 것이다’ 30.7%, ‘전과 비슷할 것이다’ 54.7%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경우 ‘전과 비슷할 것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시 지역은 군지역에 비해 ‘나빠질 것이다’와 ‘나아질 것이다’의 비율이 각각 7.9%p, 6.7%p 높게 나타남

<그림 32>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



<표 32>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분	합계	나빠질 것이다	전과 비슷할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조금 나아질 것이다	많이 좋아질 것이다		
			많이 나빠질 것이다	조금 나빠질 것이다					
2019	100.0	29.6	7.7	21.9	50.5	19.9	17.4	2.5	
2021	100.0	30.7	6.6	24.1	54.7	14.5	12.1	2.4	
지역별	시 지역	100.0	31.9	7.2	24.7	52.4	15.6	12.9	2.7
	군 지역	100.0	24.0	3.0	21.0	67.1	8.9	8.0	0.9
성별	남 자	100.0	31.1	6.9	24.2	53.1	15.8	13.4	2.4
	여 자	100.0	29.9	5.8	24.1	58.2	12.0	9.5	2.5
연령별	15~19세	100.0	12.4	0.0	12.4	38.7	48.9	12.2	36.7
	20~29세	100.0	16.8	2.6	14.2	45.2	38.0	30.4	7.6
	30~39세	100.0	16.4	5.1	11.3	53.5	30.1	25.2	4.9
	40~49세	100.0	21.5	4.4	17.1	53.6	24.9	21.6	3.3
	50~59세	100.0	35.2	8.6	26.6	50.3	14.6	12.5	2.1
	60세 이상	100.0	36.3	7.1	29.2	58.2	5.5	4.3	1.2
	65세 이상	100.0	34.3	6.4	27.9	61.4	4.3	3.2	1.1



### 33)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문항**      귀 댁(가구주+전체 가구원)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에 대하여 ‘100~200만원 미만’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100만원 미만’ 21.0%, ‘200~300만원 미만’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에 대해 시 지역은 ‘100~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군 지역은 ‘50~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월 평균 총 가구소득에 대해 남자는 ‘100~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자는 ‘50~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표 33>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 %)

구분		합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2019		100.0	30.9	28.8	21.1	10.7	5.1	2.0	0.6	0.7		
2021		100.0	10.2	21.0	27.3	20.5	12.3	5.2	2.0	0.9	0.3	0.2
지역	시 지역	100.0	8.0	19.5	27.8	21.7	13.4	5.7	2.2	1.1	0.4	0.3
	군 지역	100.0	22.3	29.3	24.2	13.6	6.4	2.6	0.9	0.3	0.3	0.1
성별	남 자	100.0	5.6	16.2	28.3	24.2	15.0	6.4	2.4	1.1	0.4	0.3
	여 자	100.0	20.3	31.5	24.9	12.4	6.4	2.8	0.9	0.5	0.2	0.1
연령	15~19세	100.0	15.8	58.3	25.9	0.0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11.2	30.8	40.2	13.4	3.6	0.2	0.6	0.0	0.0	0.0
	30~39세	100.0	2.2	9.8	25.3	30.4	21.1	6.0	2.6	1.6	0.8	0.3
	40~49세	100.0	1.1	6.7	22.3	29.6	22.2	11.3	4.0	1.6	0.7	0.6
	50~59세	100.0	3.2	10.1	25.9	26.2	19.0	9.2	3.7	1.8	0.6	0.3
	60세 이상	100.0	18.3	32.6	29.1	13.1	4.5	1.5	0.5	0.3	0.0	0.1
	65세 이상	100.0	22.9	37.5	26.8	9.1	2.8	0.6	0.1	0.1	0.0	0.0

### 34) 소비생활 만족도

#### ☒ 소비생활 만족도

**문항**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경남도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16.2%로 2019년(17.9%)에 비해 1.7%p 감소, ‘불만족’ 27.3%, ‘보통’ 56.4%로 나타남

- 지역별 소비생활 만족도는 시 지역(27.8%)이 군 지역(24.5%)에 비해 ‘불만족’의 비율이 3.3%p 높게 나타남

**<그림 34> 소비생활 만족도**



**<표 34>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

구분	합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19	100.0	26.4	4.0	22.4	55.7	17.9	15.0	2.9	
2021	100.0	27.3	4.9	22.4	56.4	16.2	14.0	2.2	
지역별	시 지역	100.0	27.8	5.3	22.5	55.8	16.3	14.0	2.3
	군 지역	100.0	24.5	2.8	21.7	59.9	15.6	14.0	1.6
성별	남 자	100.0	26.7	5.1	21.6	56.2	17.2	15.0	2.2
	여 자	100.0	28.0	4.8	23.2	56.7	15.2	13.0	2.2
연령별	15~19세	100.0	25.6	2.9	22.7	46.9	27.5	19.8	7.7
	20~29세	100.0	25.3	4.1	21.2	54.2	20.5	16.3	4.2
	30~39세	100.0	25.7	5.5	20.2	56.0	18.3	15.7	2.6
	40~49세	100.0	28.1	5.4	22.7	56.7	15.2	13.7	1.5
	50~59세	100.0	28.1	5.6	22.5	55.8	16.0	14.6	1.4
	60세 이상	100.0	28.3	4.7	23.6	59.6	12.1	11.0	1.1
	65세 이상	100.0	28.2	4.4	23.8	60.8	11.1	10.1	1.0

### 35) 가구 부채정도와 이유

#### 가구의 부채정도

**문항** 뒤 맥에는 부채(빚)가 있습니까? 있다면 부채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가구의 부채 유무는 ‘있다’가 42.7%로 나타남
- 가구의 부채정도는 ‘1억원 이상’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천만원 미만’과 ‘1~2천만원 미만’이 각각 11.0%, ‘2~3천만원’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부채 정도는 시 지역(29.6%)이 군 지역(20.6%)에 비해 ‘1억원 이상’의 비율이 9.0%p 높게 나타남

<그림 35-1> 가구의 부채정도



<표 35-1> 가구의 부채정도

(단위 : %)

구분	합계	부채가 있다	부채 정도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3~4천만원 미만	4~5천만원 미만	5~6천만원 미만	6~7천만원 미만	7~8천만원 미만	8~9천만원 미만	9~10천만원 미만	1억원 이상	
2019	100.0	42.7	13.0	13.2	10.7	9.0	8.9	5.9	3.5	3.7	2.8	4.6	24.7	
2021	100.0	42.7	11.0	11.0	10.2	8.1	7.8	6.2	4.7	4.2	2.3	5.6	28.7	
지역별	시 지역	100.0	45.6	10.8	10.6	9.9	7.9	7.6	6.2	4.9	4.3	2.4	5.8	29.6
	군 지역	100.0	27.4	12.9	15.4	13.2	10.3	9.8	6.2	2.9	3.0	1.9	3.8	20.6
성별	남 자	100.0	47.5	9.4	10.1	9.7	7.9	7.6	6.6	4.9	4.4	2.6	5.8	31.1
	여 자	100.0	32.4	16.2	13.9	11.7	9.1	8.6	5.1	4.2	3.6	1.4	5.2	20.9
연령별	15~19세	100.0	4.4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20~29세	100.0	30.9	24.7	10.0	9.4	7.9	8.1	6.5	0.9	1.8	1.1	3.1	26.5
	30~39세	100.0	64.0	7.1	7.7	7.6	6.4	7.0	4.6	5.8	5.2	4.6	7.4	36.7
	40~49세	100.0	66.1	7.5	7.7	8.4	7.6	8.2	7.2	6.2	5.5	2.7	7.1	31.8
	50~59세	100.0	56.7	9.8	11.6	11.3	8.7	9.1	6.1	4.6	4.0	1.8	5.2	27.7
	60세 이상	100.0	24.5	16.6	15.7	12.3	9.0	6.5	6.3	3.1	2.7	1.5	3.9	22.4
65세 이상	100.0	18.3	19.5	16.7	12.7	8.7	6.5	6.3	2.5	2.4	0.9	2.7	20.9	

## 부채의 주된 이유

문항	부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

○ 부채의 주된 이유로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생활비’ 15.4%, ‘사업/영농 자금’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부채의 주된 이유로는 시 지역은 ‘주택 임차 및 구입’의 비율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군 지역은 ‘사업/영농 자금’의 비율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5-2> 부채의 주된 이유



<표 35-2> 부채의 주된 이유

(단위 : %)

구분		합계	주택 임차 및 구입	교육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재테크 투자	사업/영농 자금	기타
2019		100.0	55.4	3.4	2.1	13.8	5.7	16.6	3.0
2021		100.0	56.5	3.3	2.4	15.4	5.5	15.1	1.8
지역별	시 지역	100.0	58.6	3.3	2.4	15.7	5.6	12.5	1.8
	군 지역	100.0	37.6	2.7	2.5	12.6	4.1	38.5	2.0
성별	남 자	100.0	57.5	2.8	2.0	14.0	6.0	15.8	1.9
	여 자	100.0	53.1	4.8	3.7	19.8	4.0	13.1	1.5
연령별	15~19세	100.0	100.0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59.0	5.4	1.7	21.1	5.6	5.1	2.1
	30~39세	100.0	75.4	3.0	0.8	10.2	2.0	6.8	1.8
	40~49세	100.0	68.5	2.8	1.0	12.1	5.5	8.2	1.8
	50~59세	100.0	50.8	5.5	1.6	16.3	6.1	18.7	1.0
	60세 이상	100.0	39.6	1.4	5.6	20.1	6.7	24.0	2.6
	65세 이상	100.0	37.7	1.1	6.2	20.9	5.8	25.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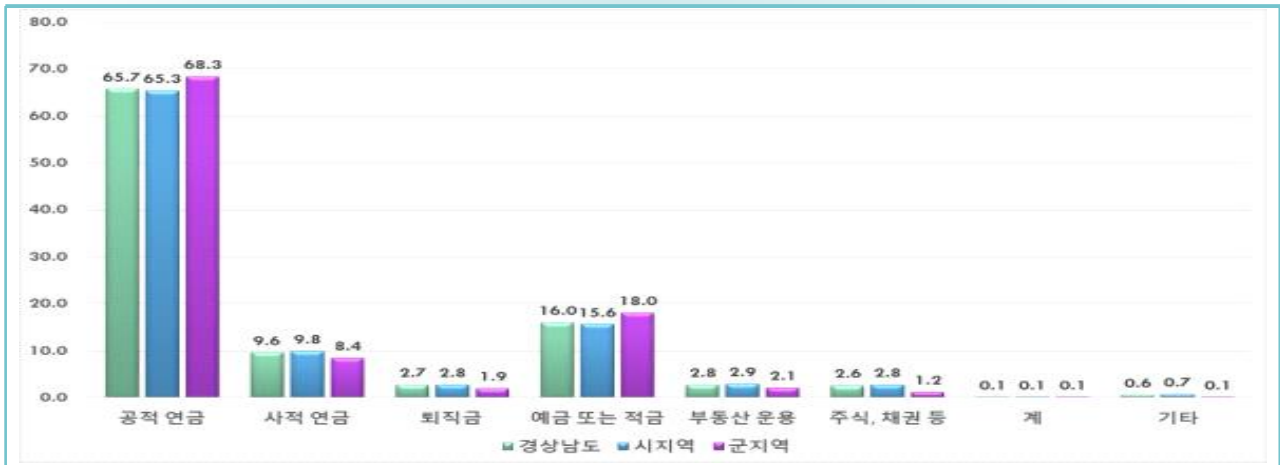
### 36) 노후대비 소득보장

#### 노후대비 준비방법

문항      귀하는 노후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경남도민은 노후를 대비하여 ‘준비하고(되어) 있다’가 49.3%로 2019년(47.0%)에 비해 2.3%p 증가
- 준비방법은 ‘공적연금’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금 또는 적금’ 16.0%, ‘사적연금’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노후 준비방법은 ‘공적연금’의 비율이 남자(69.2%)가 여자(61.4%)에 비해 7.8%p 높게 나타남

<그림 36-1> 노후대비 준비방법



<표 36-1> 노후대비 준비방법

(단위 : %)

구분	합계	준비하고 (되어) 있음	준비방법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또는 적금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계	기타	
2019	100.0	47.0	62.2	13.4	2.3	17.3	3.8	0.8	0.1	0.2	
2021	100.0	49.3	65.7	9.6	2.7	16.0	2.8	2.6	0.1	0.6	
지역별	시 지역	100.0	49.6	65.3	9.8	2.8	15.6	2.9	2.8	0.1	0.7
	군 지역	100.0	48.1	68.3	8.4	1.9	18.0	2.1	1.2	0.1	0.1
성별	남 자	100.0	54.8	69.2	8.3	3.4	12.9	2.7	2.8	0.0	0.7
	여 자	100.0	43.8	61.4	11.2	1.8	19.8	2.8	2.3	0.2	0.5
연령별	15~19세	100.0	1.1	52.5	0.0	0.0	47.5	0.0	0.0	0.0	0.0
	20~29세	100.0	28.9	59.5	8.4	1.0	27.0	0.0	3.2	0.1	1.0
	30~39세	100.0	55.2	58.9	12.0	2.8	17.9	1.8	5.9	0.2	0.5
	40~49세	100.0	61.8	67.5	10.5	2.8	12.9	1.8	3.4	0.1	0.9
	50~59세	100.0	64.0	67.4	10.3	3.0	14.0	2.8	2.1	0.0	0.4
	60세 이상	100.0	46.9	68.1	7.3	2.7	16.3	4.7	0.4	0.1	0.4
	65세 이상	100.0	42.3	67.5	6.7	3.0	16.8	5.1	0.4	0.1	0.4

## 소득대비 지출 비율 및 향후 준비 계획

문항

노후대비 지출 비율은 개인소득 대비 얼마나 됩니까?  
노후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경남도민의 소득대비 지출 비율은 ‘20% 미만’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40%’ 22.4%, ‘40~60%’ 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소득대비 지출 비율은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향후 준비 계획은 ‘준비할 능력이 없다’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에 따른 향후 준비 계획에서 ‘준비할 능력이 없다’라는 응답비율이 시 지역(46.3%)에 비해 군 지역(56.6%)이 10.3%p 높게 나타남

<그림 35-2> 소득대비 지출 비율 및 향후 준비 계획



<표 35-2> 소득대비 지출 비율 및 향후 준비 계획

(단위 : %)

구분	소득대비 지출 비율						향후 준비 계획				
	소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소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할 능력이 없다	
2019	100.0	76.9	20.4	2.3	0.3	0.1	100.0	16.0	38.3	45.7	
2021	100.0	72.4	22.4	3.8	0.9	0.5	100.0	15.5	36.6	47.8	
지역별	시 지역	100.0	71.3	23.2	4.1	1.0	0.4	100.0	15.4	38.3	46.3
	군 지역	100.0	79.1	17.7	2.0	0.5	0.8	100.0	16.0	27.4	56.6
성별	남 자	100.0	71.6	23.1	3.8	1.1	0.4	100.0	17.3	40.6	42.1
	여 자	100.0	73.5	21.5	3.7	0.8	0.5	100.0	14.1	33.4	52.5
연령별	15~19세	100.0	42.7	37.4	20.0	0.0	0.0	100.0	44.2	25.5	30.3
	20~29세	100.0	60.1	27.3	9.9	2.1	0.6	100.0	27.6	49.5	22.9
	30~39세	100.0	65.6	28.5	4.4	1.3	0.2	100.0	11.7	61.1	27.2
	40~49세	100.0	69.3	26.1	3.3	0.9	0.3	100.0	8.5	58.3	33.2
	50~59세	100.0	69.9	25.5	3.6	0.6	0.5	100.0	8.9	44.6	46.5
	60세 이상	100.0	84.1	12.1	2.3	0.8	0.7	100.0	6.5	11.0	82.4
	65세 이상	100.0	88.0	9.3	1.6	0.4	0.6	100.0	6.1	6.8	87.1

### 37) 삶에 대한 만족감

#### ☒ 삶에 대한 만족감

문항	귀하는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근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시군의 전반적인 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귀하는 어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귀하는 어제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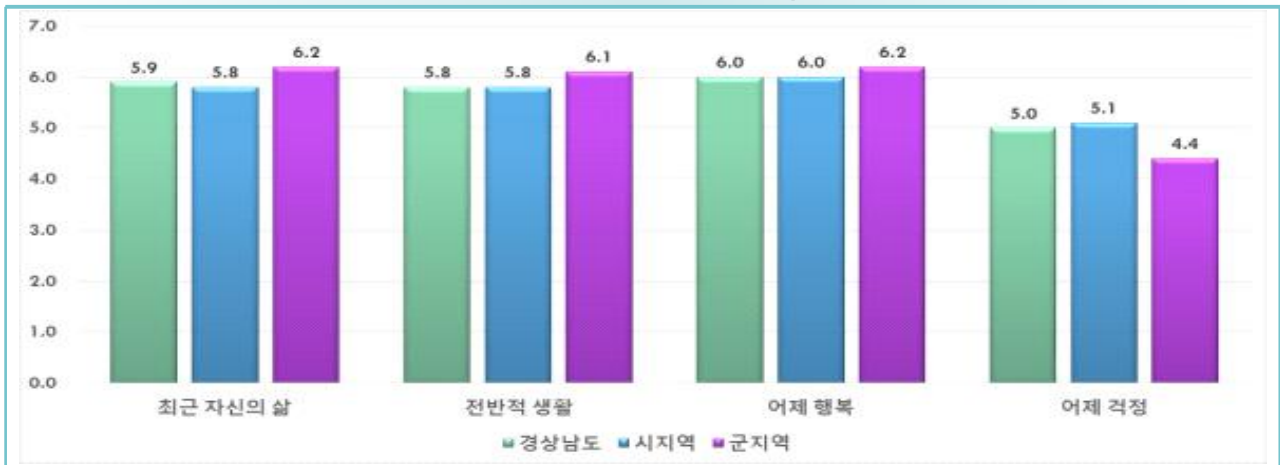
○ 경남도민이 응답한 삶에 대한 만족감 문항에서 0점부터 10점까지 10점 척도로 비율이 아닌 점수로 표와 그림을 나타냄

○ 삶에 대한 만족감 부분의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5.9점, ‘전반적 생활’ 5.8점, ‘어제 행복’ 6.0점, ‘어제 걱정’ 5.0점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어제 걱정’을 제외한 만족감에서 시지역보다 군지역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감이 높게 나타남

<그림 37> 삶에 대한 만족감



<표 37> 삶에 대한 만족감

(단위 : 점)

구분	최근 자신의 삶	전반적인 생활	어제 행복	어제 걱정	
2020	5.8	5.6	5.9	4.9	
2021	5.9	5.8	6.0	5.0	
지역별	시 지역	5.8	5.8	6.0	5.1
	군 지역	6.2	6.1	6.2	4.4
성별	남 자	5.9	5.8	6.0	5.0
	여 자	5.9	5.8	6.1	5.0
연령별	15~19세	6.3	6.0	6.4	5.0
	20~29세	6.0	5.8	6.2	5.1
	30~39세	5.9	5.7	6.3	5.1
	40~49세	5.8	5.7	6.1	5.1
	50~59세	5.8	5.8	6.0	4.9
	60세 이상	5.8	5.9	5.8	4.8
	65세 이상	5.8	5.9	5.8	4.8

## 5. 교육 부문

### < 조사항목별 요약 >

#### 38)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지식, 기술습득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45.8%, ‘효과없다’ 9.2%, ‘보통이다’ 35.3%, ‘모르겠다’ 9.7%로 나타남
- 인격형성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38.4%, ‘효과없다’ 15.2%, ‘보통이다’ 36.7%, ‘모르겠다’ 9.7%로 나타남
-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32.5%, ‘효과없다’ 16.3%, ‘보통이다’ 40.2%, ‘모르겠다’ 11.0%로 나타남
-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37.1%, ‘효과없다’ 15.4%, ‘보통이다’ 37.8%, ‘모르겠다’ 9.8%로 나타남
-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47.1%, ‘효과없다’ 8.4%, ‘보통이다’ 34.8%, ‘모르겠다’ 9.7%로 나타남
- 사회성 향상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45.7%, ‘효과없다’ 9.1%, ‘보통이다’ 35.4%, ‘모르겠다’ 9.8%로 나타남

#### 39) 교육환경 만족도

- 경남도에 거주하는 시군의 보육환경 만족도는 ‘만족’이 46.1%, ‘불만족’ 14.6%, ‘보통’ 39.3%로 나타남
- 경남도에 거주하는 시군의 공교육 환경 만족도는 ‘만족’이 25.7%, ‘불만족’ 23.3%, ‘보통’ 50.9%로 나타남
- 경남도에 거주하는 시군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 이외 필요로 하는 교육 기회가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21.0%, ‘그렇지 않다’ 39.1%, ‘보통이다’ 40.0%로 나타남
- 경남도에 거주하는 시군내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24.4%, ‘그렇지 않다’ 25.5%, ‘보통이다’ 35.4%, ‘잘 모르겠다’ 14.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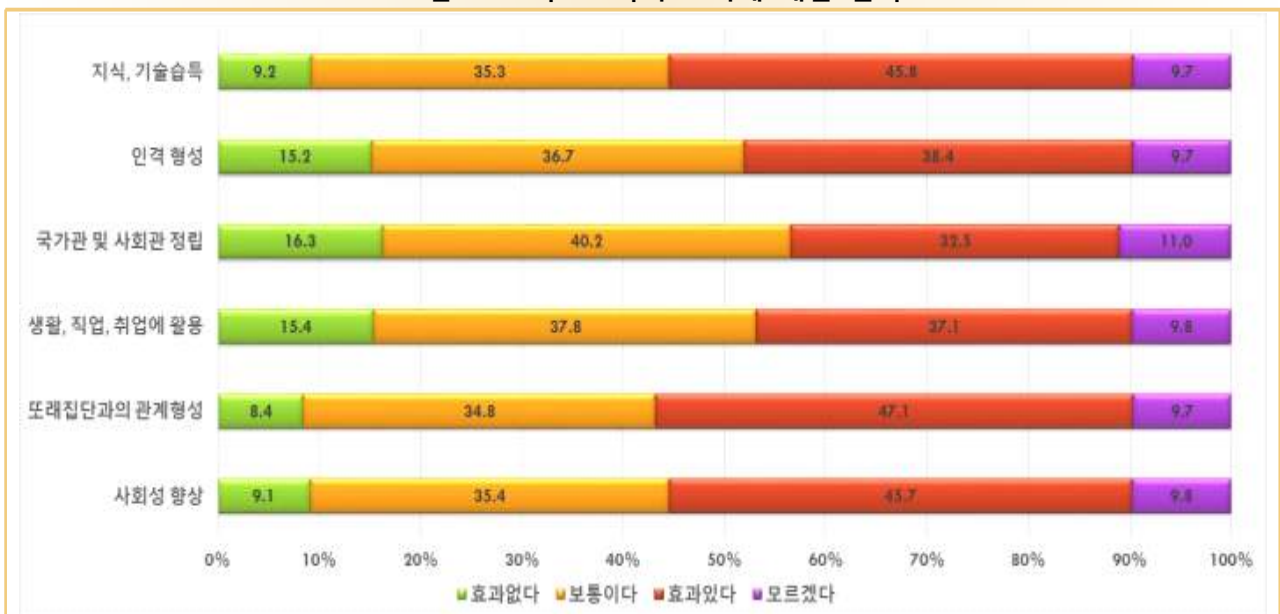
### 38)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학교교육의 효과

**문항**      귀하는 현재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식, 기술습득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45.8%, ‘효과없다’ 9.2%, ‘보통이다’ 35.3%, ‘모르겠다’ 9.7%로 나타남
- 인격형성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38.4%, ‘효과없다’ 15.2%, ‘보통이다’ 36.7%, ‘모르겠다’ 9.7%로 나타남
-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32.5%, ‘효과없다’ 16.3%, ‘보통이다’ 40.2%, ‘모르겠다’ 11.0%로 나타남
-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37.1%, ‘효과없다’ 15.4%, ‘보통이다’ 37.8%, ‘모르겠다’ 9.8%로 나타남
-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47.1%, ‘효과없다’ 8.4%, ‘보통이다’ 34.8%, ‘모르겠다’ 9.7%로 나타남
- 사회성 향상에 대한 인식은 ‘효과있다’ 45.7%, ‘효과없다’ 9.1%, ‘보통이다’ 35.4%, ‘모르겠다’ 9.8%로 나타남

<그림 38>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표 38>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합계	효과 없다	별로	전혀	보통 이다	효과 있다	약간	매우	모르 겠다
				효과 없다	효과 없다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지식, 기술습득	2019	100.0	11.2	1.7	9.5	37.7	46.5	35.8	10.7	4.7
	2021	100.0	9.2	1.3	7.9	35.3	45.8	33.6	12.2	9.7
인격 형성	2019	100.0	19.8	4.1	15.7	39.4	36.1	28.3	7.8	4.6
	2021	100.0	15.2	2.9	12.3	36.7	38.4	28.8	9.6	9.7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2019	100.0	21.7	5.0	16.7	42.2	29.9	23.6	6.3	6.2
	2021	100.0	16.3	3.0	13.3	40.2	32.5	24.5	8.0	11.0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2019	100.0	22.0	5.4	16.6	40.8	31.7	24.7	7.0	5.5
	2021	100.0	15.4	2.4	13.0	37.8	37.1	27.9	9.2	9.8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	2021	100.0	8.4	1.4	7.0	34.8	47.1	31.7	15.4	9.7
사회성 향상	2021	100.0	9.1	1.7	7.4	35.4	45.7	31.8	13.9	9.8

### 39) 교육환경 만족도

#### 보육환경 만족도

**문항**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가구주) 귀하는 거주하시는 시군의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경남도에 거주하는 시군의 보육환경 만족도는 ‘만족’이 46.1%, ‘불만족’ 14.6%, ‘보통’ 39.3%로 나타남

- 지역별 보육환경 만족도의 ‘만족’은 시 지역(45.9%)이 군 지역(48.6%)에 비해 2.7%p 낮게 나타남
- 성별 보육환경 만족도의 ‘만족’은 남자(44.9%)가 여자(53.9%)에 비해 9.0%p 낮게 나타남

<그림 39-1> 보육환경 만족도



<표 39-1> 보육환경 만족도

(단위 : %)

구분	합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b>2021</b>	<b>100.0</b>	<b>14.6</b>	<b>2.1</b>	<b>12.5</b>	<b>39.3</b>	<b>46.1</b>	<b>35.9</b>	<b>10.2</b>	
지역별	시 지역	100.0	14.4	2.1	12.3	39.7	45.9	35.6	10.3
	군 지역	100.0	16.2	2.4	13.8	35.3	48.6	39.1	9.5
성별	남 자	100.0	14.6	2.0	12.6	40.5	44.9	35.5	9.4
	여 자	100.1	14.0	2.6	11.4	32.0	53.9	38.5	15.4
연령별	15~19세	100.0	0.0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10.1	0.0	10.1	31.9	58.0	40.8	17.2
	30~39세	100.0	17.3	2.6	14.7	37.6	45.1	34.6	10.5
	40~49세	100.0	10.6	1.3	9.3	43.9	45.4	36.3	9.1
	50~59세	100.0	28.8	12.3	16.5	32.5	38.7	34.7	4.0
	60세 이상	100.0	9.6	0.0	9.6	22.7	67.7	56.0	11.7
65세 이상	100.0	0.0	0.0	0.0	27.3	72.7	56.0	16.7	

## 공교육 환경 만족도

문항

(초·중·고생 있는 가구주) 귀하는 거주하는 시군의 공교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 경남도에 거주하는 시군의 공교육 환경 만족도는 ‘만족’이 25.7%, ‘불만족’ 23.3%, ‘보통’ 50.9%로 나타남
- 지역별 공교육 환경 만족도의 ‘만족’은 시 지역(24.8%)이 군 지역(34.1%)에 비해 9.3%p 낮게 나타남
- 성별 공교육 환경 만족도의 ‘만족’은 남자(25.0%)가 여자(29.0%)에 비해 4.0%p 낮게 나타남

<그림 39-2> 공교육 환경 만족도



<표 39-2> 공교육 환경 만족도

(단위 : %)

구분	합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b>2021</b>	<b>100.0</b>	<b>23.3</b>	<b>3.6</b>	<b>19.7</b>	<b>50.9</b>	<b>25.7</b>	<b>23.5</b>	<b>2.2</b>	
지역별	시 지역	100.0	23.4	3.6	19.8	51.7	24.8	22.8	2.0
	군 지역	100.0	22.9	4.1	18.8	42.9	34.1	29.9	4.2
성별	남 자	100.0	23.3	3.6	19.7	51.8	25.0	22.9	2.1
	여 자	100.1	23.9	4.0	19.9	47.2	29.0	26.3	2.7
연령별	15~19세	100.0	0.0	0.0	0.0	56.5	43.5	43.5	0.0
	20~29세	100.0	45.5	13.3	32.2	54.4	0.0	0.0	0.0
	30~39세	100.0	18.4	2.6	15.8	46.1	35.5	32.6	2.9
	40~49세	100.0	24.6	3.9	20.7	51.4	24.1	22.1	2.0
	50~59세	100.0	25.8	4.3	21.5	54.2	20.0	17.5	2.5
	60세 이상	100.0	11.3	0.0	11.3	49.0	39.8	37.3	2.5
	65세 이상	100.0	10.0	0.0	10.0	54.0	35.9	32.9	3.0

## 학교 교육 이외 필요로 하는 교육 기회 충분도

문항

(초·중·고생 있는 가구주) 귀하는 거주하는 시군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 이외에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에 거주하는 시군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 이외 필요로 하는 교육 기회가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21.0%, ‘그렇지 않다’ 39.1%, ‘보통이다’ 40.0%로 나타남
- 지역별 교육 기회 충분도는 ‘그렇지 않다’가 군 지역(48.7%)이 시 지역(38.1%)에 비해 10.6%p 높게 나타남

<그림 39-3> 학교 교육 외 필요로 하는 교육 충분도



<표 39-3> 학교 교육 외 필요로 하는 교육 충분도

(단위 : %)

구분	합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b>2021</b>	<b>100.0</b>	<b>39.1</b>	<b>6.5</b>	<b>32.6</b>	<b>40.0</b>	<b>21.0</b>	<b>19.2</b>	<b>1.8</b>	
지역별	시 지역	100.0	38.1	6.4	31.7	40.8	21.1	19.4	1.7
	군 지역	100.0	48.7	7.5	41.2	32.2	19.2	16.8	2.4
성별	남 자	100.0	39.3	6.5	32.8	40.1	20.5	18.9	1.6
	여 자	100.1	37.8	6.2	31.6	39.4	22.8	20.4	2.4
연령별	15~19세	100.0	0.0	0.0	0.0	56.5	43.5	43.5	0.0
	20~29세	100.0	45.6	0.0	45.6	54.4	0.0	0.0	0.0
	30~39세	100.0	37.9	6.5	31.4	33.7	28.4	25.4	3.0
	40~49세	100.0	38.1	6.8	31.3	41.9	19.9	18.2	1.7
	50~59세	100.0	46.5	5.9	40.6	37.0	16.5	15.6	0.9
	60세 이상	100.0	23.7	2.3	21.4	53.1	23.2	21.3	1.9
	65세 이상	100.0	23.4	3.5	19.9	52.1	24.4	22.9	1.5

## 평생교육의 기회 충분도

문항 (만 25세 이상) 귀하는 거주하는 시군내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에 거주하는 시군내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24.4%, ‘그렇지 않다’ 25.5%, ‘보통이다’ 35.4%, ‘잘 모르겠다’ 14.7%로 나타남

- 연령별로 평생교육의 기회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높아짐

<그림 39-4> 평생교육의 기회 충분도



<표 39-4> 평생교육의 기회 충분도

(단위 : %)

구분	합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b>2021</b>	<b>100.0</b>	<b>25.5</b>	<b>3.7</b>	<b>21.8</b>	<b>35.4</b>	<b>24.4</b>	<b>21.4</b>	<b>3.0</b>	<b>14.7</b>	
지역별	시 지역	100.0	25.4	3.8	21.6	35.8	24.1	21.2	2.9	14.8
	군 지역	100.0	26.2	3.2	23.0	33.7	26.3	22.8	3.5	13.8
성별	남 자	100.0	26.7	4.0	22.7	36.1	22.9	19.9	3.0	14.3
	여 자	100.1	24.3	3.5	20.8	34.8	25.9	23.0	2.9	15.0
연령별	15~19세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25.0	5.3	19.7	36.6	22.7	19.7	3.0	15.7
	30~39세	100.0	29.1	4.4	24.7	36.1	22.9	20.3	2.6	12.0
	40~49세	100.0	29.9	4.1	25.8	37.4	22.6	20.0	2.6	10.0
	50~59세	100.0	28.3	4.1	24.2	36.3	23.2	20.2	3.0	12.3
	60세 이상	100.0	19.5	2.6	16.9	33.1	27.5	24.1	3.4	20.0
	65세 이상	100.0	18.3	2.1	16.2	32.9	27.1	23.7	3.4	21.7

## 6. 부가조사 부문

### < 조사항목별 요약 >

#### 40) 청년인구 유출

- 청년이 타시·도로 이사 가는 이유로 '소득 등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해'가 50.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IT, SW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 20.6%,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찾기 위해'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1) 청년인구 유입

- 타시·도 청년이 경상남도로 이사오도록 하는 것으로 '고향, 익숙한 곳이라서/부모님 근처에서 함께 살기 위해'가 3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수도권 생활이 힘들어서' 27.6%, '취업·창업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해' 2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변화

- 수면시간은 '줄었음'이 12.3%, '늘었음' 19.7%, '변함없음' 68.0%로 나타남
- 취업활동은 '줄었음'이 31.5%, '늘었음' 7.3%, '변함없음' 61.3%로 나타남
- 자녀 돌보기는 '줄었음'이 6.3%, '늘었음' 49.1%, '변함없음' 44.7%로 나타남
- 가사활동은 '줄었음'이 9.0%, '늘었음' 28.5%, '변함없음' 62.5%로 나타남
- 디지털 기기 사용은 '줄었음'이 10.0%, '늘었음' 51.0%, '변함없음' 39.0%로 나타남
- 영화·공연관람·여행·운동 등 여가는 '줄었음'이 73.1%, '늘었음' 5.3%, '변함없음' 21.6%로 나타남
- 종교활동은 '줄었음'이 73.3%, '늘었음' 1.9%, '변함없음' 24.7%로 나타남
- 가족 및 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모임은 '줄었음'이 88.4%, '늘었음' 1.4%, '변함없음' 10.2%로 나타남

#### 43) 코로나19로 인한 행동변화

- 외출 자제는 '항상 하였다' 42.4%, '자주 하였다' 32.2%, '가끔 하였다' 22.7%, '전혀 하지 않았다' 2.7%로 나타남
- 모임 취소 또는 예정된 행사 불참은 '항상 하였다' 49.8%, '자주 하였다' 28.1%, '가끔 하였다' 15.2%, '전혀 하지 않았다' 7.0%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 자제는 '항상 하였다' 52.4%, '자주 하였다' 22.1%, '가끔 하였다' 17.7%, '전혀 하지 않았다' 7.8%로 나타남
- 외출시 마스크 착용은 '항상 하였다' 93.2%, '자주 하였다' 5.3%, '가끔 하였다'



1.2%, '전혀 하지 않았다' 0.3%로 나타남

○ 귀가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은 '항상 하였다' 79.2%, '자주 하였다' 17.0%, '가끔 하였다' 3.4%, '전혀 하지 않았다' 0.4%로 나타남

○ 주기적 실내 환기는 '항상 하였다' 68.6%, '자주 하였다' 23.4%, '가끔 하였다' 7.3%, '전혀 하지 않았다' 0.7%로 나타남

#### 40) 청년인구 유출

##### 청년인구 유출 이유

**문항** (만19~39세) 귀하는 경남의 청년이 타시·도로 이사 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청년이 타시·도로 이사 가는 이유로 ‘소득 등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해’가 50.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IT, SW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 20.6%,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찾기 위해’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청년이 떠나는 이유에 대하여 ‘생활 편의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부족’은 시 지역에서는 4순위로 나타났으나, 군 지역에서는 2순위로 나타남

**<그림 40> 청년인구 유출 이유**



**<표 40> 청년인구 유출 이유**

(단위 : %)

구분	합계	IT, SW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	소득 등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찾기 위해	생활 편의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부족	기타	
<b>2021</b>	100.0	20.6	50.2	15.6	12.7	1.0	
지역별	시 지역	100.0	21.1	50.5	15.4	12.0	1.0
	군 지역	100.0	16.0	46.2	17.2	19.8	0.7
성별	남 자	100.0	20.2	52.7	14.1	12.1	0.8
	여 자	100.0	21.0	47.2	17.2	13.4	1.1
연령별	15~19세	100.0	20.5	31.4	26.5	20.2	1.4
	20~29세	100.0	23.7	44.8	16.8	13.6	1.1
	30~39세	100.0	17.7	56.5	13.6	11.4	0.8
	40~49세	100.0	0.0	0.0	0.0	0.0	0.0
	50~59세	100.0	0.0	0.0	0.0	0.0	0.0
	60세 이상	100.0	0.0	0.0	0.0	0.0	0.0
	65세 이상	100.0	0.0	0.0	0.0	0.0	0.0

## 41) 청년인구 유입

### 청년인구 유입 이유

**문항** (만19~39세) 귀하는 타시·도 청년이 경남으로 이사오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타시·도 청년이 경상남도로 이사오도록 하는 것으로 ‘고향, 익숙한 곳이라서/부모님 근처에서 함께 살기 위해’가 3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수도권 생활이 힘들어서’ 27.6%, ‘취업·창업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해’ 2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타시·도 청년이 경상남도로 이사오도록 하는 것으로 ‘취업·창업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해’는 시 지역(25.4%)이 군 지역(19.7%)보다 5.7%p 높게 나타남

<그림 41> 청년인구 유입 이유



<표 41> 청년인구 유입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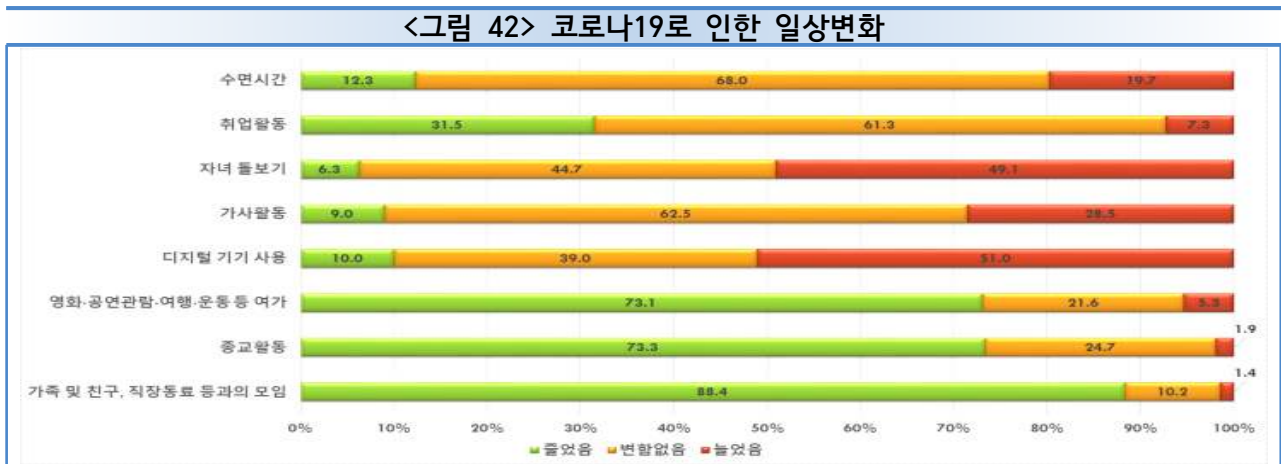
구분	합계	수도권 생활이 힘들어서	고향, 익숙한 곳이라서/부모님 근처에서 함께 살기 위해	여유로운 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취업·창업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기타	
2021	100.0	27.6	31.3	15.3	24.9	0.9	
지역별	시 지역	100.0	27.2	31.4	15.1	25.4	0.9
	군 지역	100.0	31.3	30.6	17.9	19.7	0.5
성별	남 자	100.0	26.0	30.5	14.9	27.5	1.0
	여 자	100.0	29.4	32.3	15.8	21.8	0.7
연령별	15~19세	100.0	22.7	37.8	20.3	19.1	0.0
	20~29세	100.0	28.1	32.3	15.7	23.0	0.9
	30~39세	100.0	27.4	30.0	14.7	27.0	0.9
	40~49세	100.0	0.0	0.0	0.0	0.0	0.0
	50~59세	100.0	0.0	0.0	0.0	0.0	0.0
	60세 이상	100.0	0.0	0.0	0.0	0.0	0.0
	65세 이상	100.0	0.0	0.0	0.0	0.0	0.0

## 4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변화

###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변화

**문항**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 수면시간은 ‘줄었음’이 12.3%, ‘늘었음’ 19.7%, ‘변함없음’ 68.0%로 나타남
- 취업활동은 ‘줄었음’이 31.5%, ‘늘었음’ 7.3%, ‘변함없음’ 61.3%로 나타남
- 자녀 돌보기는 ‘줄었음’이 6.3%, ‘늘었음’ 49.1%, ‘변함없음’ 44.7%로 나타남
- 가사활동은 ‘줄었음’이 9.0%, ‘늘었음’ 28.5%, ‘변함없음’ 62.5%로 나타남
- 디지털 기기 사용은 ‘줄었음’이 10.0%, ‘늘었음’ 51.0%, ‘변함없음’ 39.0%로 나타남
- 영화·공연관람·여행·운동 등 여가는 ‘줄었음’이 73.1%, ‘늘었음’ 5.3%, ‘변함없음’ 21.6%로 나타남
- 종교활동은 ‘줄었음’이 73.3%, ‘늘었음’ 1.9%, ‘변함없음’ 24.7%로 나타남
- 가족 및 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모임은 ‘줄었음’이 88.4%, ‘늘었음’ 1.4%, ‘변함없음’ 10.2%로 나타남



**<표 4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변화**

(단위 : %)

구분	합계	줄었음			변함없음	늘었음		
		대폭 줄었음	조금 줄었음	대폭 늘었음		조금 늘었음	대폭 늘었음	
수면시간	100.0	12.3	2.3	10.0	68.0	19.7	16.3	3.4
취업활동	100.0	31.5	11.7	19.8	61.3	7.3	5.8	1.5
자녀 돌보기	100.0	6.3	1.8	4.5	44.7	49.1	25.7	23.4
가사활동	100.0	9.0	2.1	6.9	62.5	28.5	19.3	9.2
디지털 기기 사용	100.0	10.0	4.4	5.6	39.0	51.0	32.7	18.3
영화·공연관람·여행·운동 등 여가	100.0	73.1	44.8	28.3	21.6	5.3	4.1	1.2
종교활동	100.0	73.3	49.0	24.3	24.7	1.9	1.1	0.8
가족 및 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모임	100.0	88.4	59.8	28.6	10.2	1.4	0.9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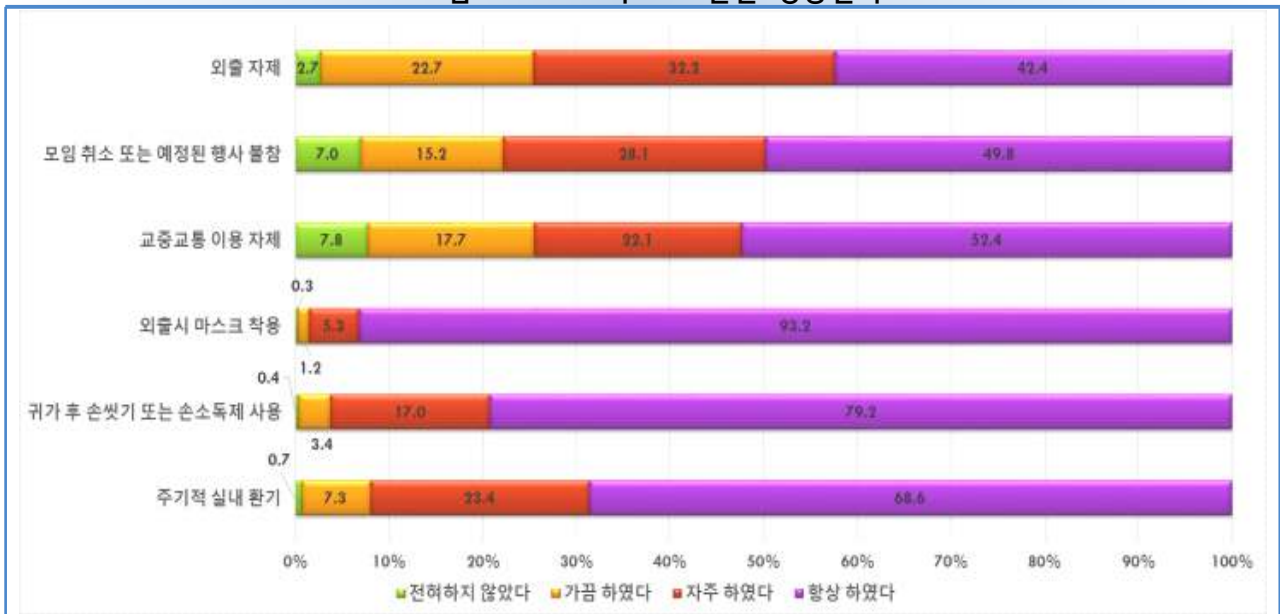
### 43) 코로나19로 인한 행동변화

#### ☒ 코로나19로 인한 행동변화

**문항**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 외출 자제는 ‘항상 하였다’ 42.4%, ‘자주 하였다’ 32.2%, ‘가끔 하였다’ 22.7%, ‘전혀 하지 않았다’ 2.7%로 나타남
- 모임 취소 또는 예정된 행사 불참은 ‘항상 하였다’ 49.8%, ‘자주 하였다’ 28.1%, ‘가끔 하였다’ 15.2%, ‘전혀 하지 않았다’ 7.0%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 자제는 ‘항상 하였다’ 52.4%, ‘자주 하였다’ 22.1%, ‘가끔 하였다’ 17.7%, ‘전혀 하지 않았다’ 7.8%로 나타남
- 외출시 마스크 착용은 ‘항상 하였다’ 93.2%, ‘자주 하였다’ 5.3%, ‘가끔 하였다’ 1.2%, ‘전혀 하지 않았다’ 0.3%로 나타남
- 귀가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은 ‘항상 하였다’ 79.2%, ‘자주 하였다’ 17.0%, ‘가끔 하였다’ 3.4%, ‘전혀 하지 않았다’ 0.4%로 나타남
- 주기적 실내 환기는 ‘항상 하였다’ 68.6%, ‘자주 하였다’ 23.4%, ‘가끔 하였다’ 7.3%, ‘전혀 하지 않았다’ 0.7%로 나타남

**<그림 43> 코로나19로 인한 행동변화**



<표 43> 코로나19로 인한 행동변화

(단위 : %)

구분	합계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 하였다	자주 하였다	항상 하였다
외출 자제	100.0	2.7	22.7	32.2	42.4
모임 취소 또는 예정된 행사 불참	100.0	7.0	15.2	28.1	49.8
대중교통 이용 자제	100.0	7.8	17.7	22.1	52.4
외출시 마스크 착용	100.0	0.3	1.2	5.3	93.2
귀가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	100.0	0.4	3.4	17.0	79.2
주기적 실내 환기	100.0	0.7	7.3	23.4	68.6

### Ⅲ. 통 계 표

1. 주거와 교통 부문
2. 문화와 여가 부문
3. 일자리 노동 부문
4. 소득과 소비 부문
5. 교육 부문
6. 부가조사

